

## SK C&C, SK(주) 전격 흡수합병

1:0.74 비율 주식교환...자산 13조2000억 거대 지주사로  
최태원 회장 지배구조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피해

SK그룹이 SK C&C와 합병을 통해 '옥상옥(屋上屋)'의 불완전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게 됐다.

SK C&C와 SK(주)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 간의 합병을 결의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SK C&C와 SK는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하며 SK C&C가 신주를 발행, SK의 주식과 교환해 흡수 합병한다. 다만, SK 브랜드의 상징성과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합병회사의 사명은 SK주식회사로 결정했다.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SK C&C가 지주회사 SK(주)를 지배하는 옥상옥의 불완전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합병을 통해 SK그룹은 완벽한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최태원 회장은 SK C&C 지분을 32.9% 보유하고 있지만 SK 지분율은 0.02%(1만주)로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1만1695주)보다도 적다. 이에 최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SK C&C를 통해 사실상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SK그룹은 이번 합병을 통해 통합법인은 SK C&C가 가진 ICT 역량 기반의 사업 기회와 SK가 보유한 자원이 결합함으로써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다양한 신규 유망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용이해져 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SK그룹은 "합병회사는 총자산 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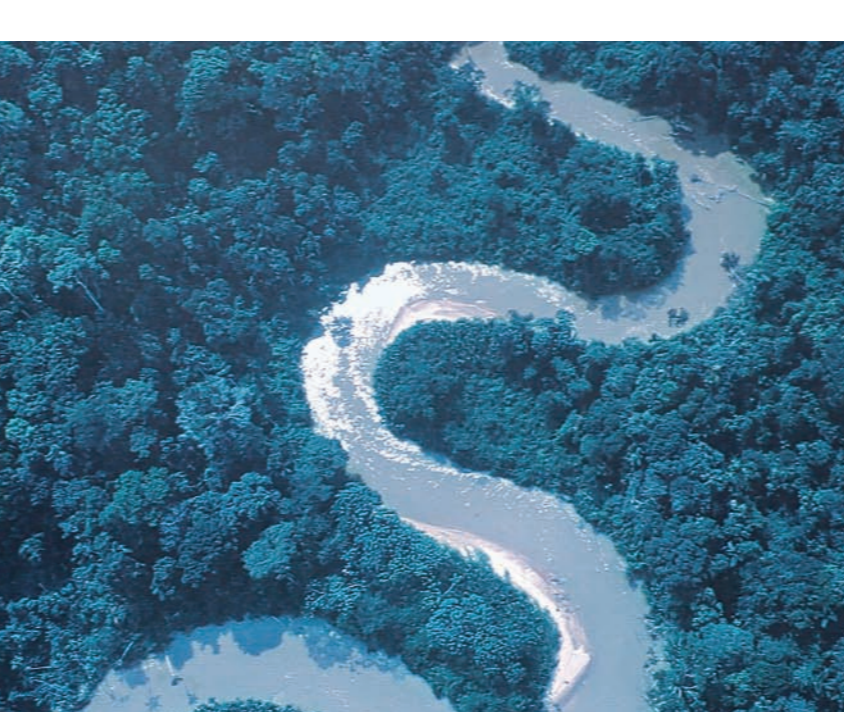
2000억원의 명실상부한 그룹의 지주회사가 되며, 안정적 지주회사 체제 완성을 토대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객, 주주, 구성원, 사회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이 SK C&C와의 합병을 통해 불완전한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최태원(사진)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하게 됐다.

SK C&C와 SK(주)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 간의 합병을 결의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통합법인을 출

범시키기로 하고 밝혔다. SK C&C와 SK는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SK C&C가 신주를 발행, SK 주식과 교환해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다만 SK 브랜드의 상징성과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합병회사의 사명은 SK주식회사로 결정했다.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SK C&C가 지주회사 SK(주)를 지배하는 옥상옥의 불완전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이번 합병을 통해 SK그룹은 완벽한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이번 합병은

조남호 기자 spdran@



### 최태원 회장 무슨 생각할까



페루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리마 시내 인류고고학 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아마존 강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보고 있다.

## '무어의 법칙' 50년 만에 용도폐기?

칩가격 떨어지고 개발비 늘어  
반도체 칩 14나노미터서 정체  
IBM은 돈 주며 반도체 하청

올해로 정립 50주년을 맞이한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용 컴퓨터 및 휴대폰, 웹 서버, 네트워크 접속 기기 등 혁신적인 제품 등장 길을 열어 반도체산업의 불운을 뚫었던 '무어의 법칙' 효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웨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최근 일제히 보도했다.

'무어의 법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

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가 지난 1965년 4월 기고문을 통해 언급한 이론이다. 하나의 칩에 탑재되는 반도체 집적량이 18개월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무어의 법칙'의 효용론이 도마에 오른 배경에는 반도체 칩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반면, 개발 비용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신 칩의 회로폭은 14나노미터. 여기서 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트라티지 등에 따르면 최신형 반도체 칩을 디자인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은 평균 1억3200만 달러(약 1426억8000만원)로 직전 모델 개발 비용보다 약 9% 늘었다. 반도체 칩의 소형화로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공정이 추가되면서 개발 비용이 증가된 것이다.

이에 업체들의 반도체 칩 개발을 독려하고, 하나의 기준이 됐던 '무어의 법칙'이 기술의 고도화와 비용 부담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글로벌 기업인 IBM의 경우 지난해 100억 달러 규모의 신형 반도체 칩 제조공장 설립 계획을 접었다. 대신 반도체 제조 하청업체에 15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최신행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비용절감에 무게를 둔 것이다.

WSJ는 "기업들은 '무어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속도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지난달 생산자 물가 4년4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돼 4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물가'를 보는 것으로,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가 올 3월 101.8로 한달 전보다 0.1% 하락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로써 생산자물가는 2010년 11월(101.78) 이후 4년 4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째 내리막길을 걷은 후 지난 2월 설과 유가반등 영향으로 '반짝' 상승했으나 다시 아래로 방향을 틀었다.

이진영 기자 mint@

## 정유사의 기적

지난해 7400억 적자 내더니  
유가 오름세·정제마진 회복  
1분기 실적 일제히 흑자전환

지난해 국제유가 급락으로 고전했던 정유사들이 올 1분기 흑자전환의 반전 드라마를 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극심한 동반 부진을 겪은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올 1분기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

증권사가 추정한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 11조8648억원, 영업이익 2051억원이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26.4%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463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에스오일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은 매출 4조 5427억원, 영업이익 1748억원으로 매출은 27.5% 줄지만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을 전망했다.

비상장사인 GS칼텍스에 대해서는 KB투자증권이 매출은 전 분기보다 20.7% 줄어든 7조1420억원, 영업이익은 2153억원 흑자전환을 예상했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대신증권은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7.8% 줄어든 3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1200억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7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정유사 1분기 실적 추정

※자료 : fN가이드, 대신·KB투자증권

	매출	영업이익
SK이노베이션	118,648억원 (-26.4%)	2,051억원 (흑자전환)
GS칼텍스	71,420억원 (-20.7%)	2,153억원 (흑자전환)
에스오일	45,427억원 (-26.4%)	1,748억원 (흑자전환)
현대오일뱅크	34,000억원 (-27.6%)	1,200억원 (782.4%)

1분기에 정유사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국제유가의 오름세와 정제 마진의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유사는 국제유가가 적정 수준에서 등락하거나 혹은 상승세를 보여야 이익을 낼 수 있다. 통상 중동의 원유를 들여와 제품 판매까지 한 달여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 사이 가격 상승폭과 정제기간 상승폭이 모두 정제 마진에 반영돼 영업이익으로 인식된다. 여기에 유가 하락기에 는 시차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도 불가피하다.

국내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배럴당 107.79달러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작년 말 53.60달러로 반토막 나면서 정유사는 재고평가 손실 등으로 지난해 7465억원(4사합산)의 영업 적자에 허덕였다. 그러나 올 초 40달러 초반까지 밀려나 유가는 등락을 거치며 지난 17일 60달러 언저리까지 회복했다. 또 지난해 4분기 배럴당 평균 76달러 수준이던 정제 마진은 올해 들어 배럴당 9.7달러 수준으로 개선됐다.

조남호 기자 spdran@

## 보조금의 저주

이통3사 갤럭시S6 보조금 경쟁  
출시 일주일만에 50% 올려  
제값내고 산 '충성고객' 분통



삼성전자의 고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S6' 보조금이 출시 일주일 만에 50%가량 올라 충성 고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유동부조개선택(단통법)에 따라 눈치싸움을 벌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2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갤럭시S6 보조금이 최고 요금제 기준으로 전주보다 약 13만원 올라 출시 직후 '제값 다 주고' 구입한 충성스러운 소비자 물가의 향이 낮아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KT 대리점 직원은 "지난주 금요일 최고 요금제의 보조금이 법정 한도인 33만원 수준까지 치솟아 그 이전에 구입한 고객들의 향의를 많이 받았다"며 "갤럭시S6에 대한 충성도 높은 고객이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주는 "실제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람도 있었지만 케이스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박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소비자의 강한 요구로 개통을 철회한 대리점도 있다. 한 이통사 대리점주는 "보조금이 들쭉날쭉하면서 갤럭시 S6 구매가격이 하루 사이에 15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며 "정부의 보조금 상한 정책에 따른 통신사의 눈치보기에 따라 초기에 구입한 충성 고객은 손해를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일주일 이내에는 개통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 가입자가 많은 3년~6만원 사이의 중저가 요금제에서 보조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통사의 보조금 눈치보기가 결국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일선 현장 대리점과 판매점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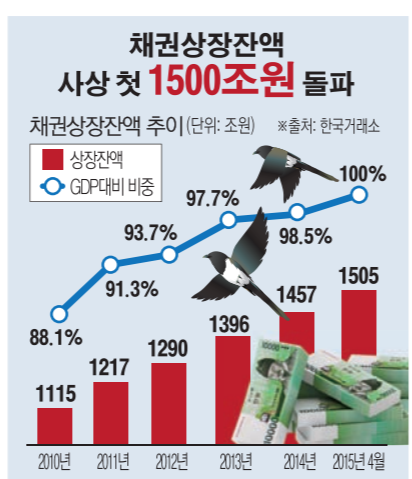
통신3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통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은 단통법과 상관없이 통신사와 제조사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태 기자 psj@

## 데이터 뉴스 Data News

### 올들어 외국인 시총 44조원 증가

지난 16일 기준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은 약 466조원으로 전체 시총의 약 30.8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보유 시총은 올해 들어서만 약 44조원 증가했다. 반면 시총 비중은 0.74%포인트 감소했다.

코스피시장에서 대형주의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 말보다 1.1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중형주, 소형주의 외국인 시총비중은 0.10%포인트와 0.15%포인트씩 증가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채권상장잔액 10년간 2배 늘었다

채권상장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채권상장잔액은 현재 상장돼 있는 채권의 발행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같은 맥락이다. 중도 또는 만기도래 채권을 제외하고 순발행 기준으로 집계된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기준 채권상장잔액이 1500조원을 돌파해 1502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장잔액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준희 기자 junior@

하루 한생각 穀雨落種 (곡우낙종)  
법시 뿌리고 논농사를 시작하는 철 ▶14년

경영승계 대해부 LG그룹 ▶16

IT부호 열전 김정주 NCX 회장 ▶17

한동우 회장 ▶8 신창재 회장 ▶13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 김정태·장동현의 동맹... 이제 실리로?

〈하나금융지주 회장〉 〈SK텔레콤 사장〉

SKT, 하나금융 유증 참여  
1800억 규모 지분 2% 확보

하나카드 통합펀 FI로 전략  
카드 지분 낮추고 금융 늘려



김정태(사신 왼쪽) 하나금융지주 회장  
과 장동현(오른쪽) SK텔레콤 사장의 동맹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햇수로 5년째를 맞은 하나금융지  
주와 SK텔레콤의 '전략적 동맹'이 실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해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나  
금융지주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800  
억779만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  
상증자를 결정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유증 후  
하나금융지주의 보통주 610만9000주(지  
분율 2.064%)를 확보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SK텔레콤과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지속적  
으로 유지하고 그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

해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  
상증자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  
배경은 하나카드 보유 지분을 줄이는 대신  
하나금융지주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  
로 동맹의 형태를 바꾸기 위함이다.

앞서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의 동맹  
은 장동현 사장의 전임인 하성민 SK텔레  
콤 전 사장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SK

텔레콤은 지난 2010년 하나카드에 4000억  
원을 투입해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하  
며 지분율 49%를 확보, 2대주주로 올라섰  
다. 이후 하나카드는 이들을 하나SK카드  
로 변경하고 SK텔레콤 출신 임원을 영입  
하는 등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의 공  
동경영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합  
병을 추진하면서 SK텔레콤과의 공고한

동맹 관계도 깨지게 됐다. 통합 카드사 출  
발 시 SK텔레콤의 하나SK카드 지분율은  
25.4%로 낮아지며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지분인 33%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FI)로 전략한  
SK텔레콤은 하나카드 보유 지분을 처분  
하려고 했으나 양사의 '의리'를 생각해 이  
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양사는 동맹 관계의 형태를 바꿀  
전망이다. 하나금융지주는 SK텔레콤에  
하나금융지주 신주를 발행해주는 조건으  
로 지난 3일 SK텔레콤이 보유한 하나카드  
의 지분 25.4% 중 10.4%를 매입했다.

결국 SK텔레콤이 이번 유증을 시작으  
로 하나카드 보유 지분을 줄이는 대신 하나  
금융지주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다만 양사의 전략적 협업 관계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다. SK텔레콤이 이번 유증  
을 통해 확보한 하나금융지주 지분은 1년  
뒤인 내년 5월경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돼 현금화 가능  
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산성엘엔에스〉 손안대고 2736억 번 김관길 회장 코스닥팰리에 '新주식갑부' 64명

700선 고지 파죽지세 상승장에  
올들어 주식 자산 2.3조 불어나  
주식가치 1000억원대 부자 속출



코스닥이 700선을 돌파하는 등 파죽지  
세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역원대 코스  
닥 부자들이 줄줄이 탄생하고 있다.

2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의 코스닥 상장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는  
모두 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벌닷컴이  
관련 기록을 조사한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 초만 해도 1000억원대 코스닥 부자  
의 수는 46명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코스  
닥지수가 7년 3개월 만에 700선 고지에 올  
라서 코스닥 부자의 수도 크게 늘는 모  
습이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18명이 늘어  
난 것.

특히 이들 64명의 주식 자산은 올들어  
어서만 2조30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게 주식 자산이 늘어난 인  
물은 연초 대비 최근 주가가 280% 이상 폭  
등한 산성엘엔에스 김관길 회장이다.

김 회장은 산성엘엔에스의 주식 22.48%  
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김 회장의  
주식 자산은 연초 대비 278.6%(2736억원)  
급증해 현재 371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이완진 대한뉴팜 회장과 김  
선영 바이로메드 사장은 각각 1402억원과  
1307억원의 주식 가치가 증가했다. 조정일  
코나아이 부회장 1229억원, 신용철 아미코  
젠 대표도 1208억원이나 주식 자산이 불  
어났다.

### 알려왔습니다

본지 3월 19일자 1면 '포스코, 동양종합  
건설에 5년간 2400억 몰아쳤다' 기사와 관  
련, 동양종합건설 측은 포스코에서 수주  
한 인도네시아 사업은 합리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낙찰됐으며 특히 수주, 과다  
수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혀 왔습  
니다. 또 이 사업은 엄청난 적자와 부당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현재 포스코와 소  
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4개월여 만에 주식 가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코스닥 대표들도 많다.

김대영 슈퍼켄코리아 대표의 주식평가  
액은 5955억원으로 연초(2698억원)보다  
120%가량 증가했다. 이에 김 대표는 코스  
닥 부자 순위 10위에서 4위로 경종 뛰어올  
랐다.

양용진 코미팜 회장(1492억원→3252억  
원)의 주식 자산은 연초보다 118% 늘어났  
다.

한성호 예프엔씨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주식 자산도 연초 544억원에서 1085억원  
으로 2배가량 늘어나며 코스닥 부자 55위  
에 이름을 올렸다.

한 대표는 주식 가치 급증으로 YG엔터  
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와 SM엔터테인먼트  
트 이수만 회장의 뒤를 이어 엔터업계 '3대  
주식부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코스닥 부호 1위 자리는 김범수 다  
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다만 김 의장의 주식 자산은 연초  
보다 16.5% 줄어든 1조4398억원으로 집계  
됐다.

문선영 기자 moon@

## '날씨까지 안도와줘'...삼중고 빠진 최진민 귀뚜라미 회장

허위광고로 신뢰도 떨어지고  
펠릿보일러 사업 갑질 논란도  
작년 따뜻한 겨울 실적 직격탄  
최회장 '2세 승계' 계획 먹구름



자수성가형 대표 기업인인 최진민(사  
신) 귀뚜라미를 명예회장이 최근 '삼중  
고'로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내 보일러시  
장 1, 2위를 다투는 귀뚜라미가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을  
받아 기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데다, 지  
난해 실적 악화와 펠릿보일러 사업 유지로  
인한 '동반성장 역행' 비판까지 겹치는 등  
악재가 몰리고 있어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최  
진민 회장의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과 3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대 수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가 사실보다 과장, 확산되고 있어  
귀뚜라미 측은 이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  
한 지방 대리점들의 사실 확인 유무 문의  
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과장보도가 많아 대리점과 내부 직  
원들에게 적극 해명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부분 무혐의였던 제보 내용 중 일부만  
적발된 것이고,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말했다.

시장 선도업체인 귀뚜라미에 허위·과장  
광고 타이틀은 뼈아프다. 특히 경쟁사인  
경동나비엔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기업 신뢰도 추락은 향후 귀뚜라미의  
보일러 시장 장악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자수성가로 중견 보일러업체 귀뚜라미를  
키워 온 최진민 명예회장의 명성에도 흠집  
이 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최진민 회장은 오는 6월 초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귀뚜라미의 신기술 설명회  
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 보일러 시공업자들을 직접 만나며  
귀뚜라미의 신기술을 홍보하는 것이 골자  
다. 매년 열리는 행사이지만 올해는 최진  
민 회장이 최근 실추된 기업 신뢰도를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보일러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 출신으  
로 기술력에 자부심이 있던 최진민 회장에  
게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최악의 상황으  
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2세 경영 승계  
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회사의 악재는 모두

본인이 마무리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  
다.

공정위 시정명령 외에 악재는 또 있다.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목재펠릿보일러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펠릿보일러 시장규모는 연간 100  
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경쟁사 경동나비엔  
은 동반성장을 내세우며 펠릿보일러 시장  
에서 일찍이 철수했지만, 귀뚜라미는 여전  
히 사업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동반성장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비난의 수위가 세지  
고 있는 것은 물론, 일각에선 최진민 회장  
의 성장과도 이를 연결짓고 있어 기업 이미  
지 하락마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 지난해 실적까지 악화되면  
서 최진민 회장의 수심은 더욱 깊어질 것  
으로 보인다. 귀뚜라미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4% 줄어든 5453억원이었고, 영업  
이익은 20.4% 급감한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비교적 따뜻한 겨울 날씨의 영향  
이 컸다는 분석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www.iwest.co.kr

빛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

3개의 혁신, 30년의 성장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http://www.facebook.com/kowepo

일한 정보기 가득한 한국서부발전의 공식 페이스북 많이 이 방문해주세요.

전기가 있어 행복한 세상!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 한국서부발전이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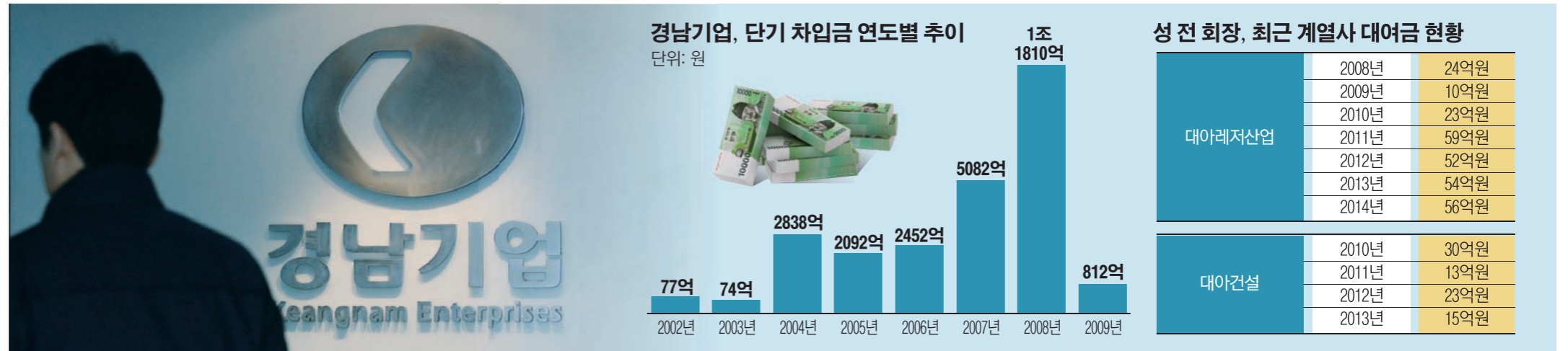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이념 아래 구성원의 열정과 도전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상생을 통해 전력의 안정적 경제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With Pride WVP 한국서부발전 | 지

# 성완중 前 회장, 계열사 돈·단기차입금으로 '부실 돌려막기'

고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대아레저산업 등 계열사들로부터 개인대출과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융통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산업의 은행 대출을 위해 지급보증 등 2500억원의 개인 담보를 잡혀 은행권의 특혜대출 및 부실 신용평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신분 이던 지난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75억4000만원 수준이다.



사실상 성 전 회장이 이들 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아레저산업은 성 전 회장이 71.75%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성 전 회장 일가와 경남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원건설산업은 경남기업이 96.65%, 성 전 회장의 동생인 성석중씨가 3.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본인이 최대주주인 계열사에서 직접 개인대출을 받아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아레저산업의 경우 성 전 회장이 빌려온 대어금 잔액은 지난 2008년 24억2408만원에서 2009년 36억9126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0년에는 63억5360만원으로 점차 대어금이 늘었다. 2010년의 경우 대아레저산업의 전체 단기대어금 58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대아레저의 대표이사는 경남기업의 재

**측근들 계열사 대표 앉혀놓고  
수십억원 빌려쓰고 갚지 않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손실 처리**

무 총책임자인 한장섭 경남기업 부사장이자 경영기획본부장인 하태실 상무는 경남정보기술의 대표를 각각 맡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이 회사가 경영난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던 시기에도 자금을 계속 빼 썼다. 대아레저산업은 2013년 592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성 전 회장에게 대어금 명

**경남기업 단기차입금 몇년새 급증  
은행 대출용 개인담보 2500억 등  
특혜 대출·부실 신용평가 지적도**

목으로 자금을 빼간 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손실 처리해 회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성 전 회장은 대아건설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총 4차례 자금을 유용했다. 또 경남기업의 단기차입금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차입금은 1년 미만으로 빌려 쓰는 빚으로 회

사 재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장기차입금 대비 상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기차입금이 많다는 것으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경남기업의 단기차입금이 2007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경남기업 단기차입금은 73억원에 불과했지만 2004년 대아건설과 합병한 이후 단기차입금이 2000억원대 이상으로 급증했다. 2004년 단기차입금이 2838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2005년 2092억원, 2006년 2452억원 등 2000억원대를 지속했다. 이는 단기차입금 돌려막기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단기차입금 규모가 5082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데 이어 2008년에는 1조1810억원까지 커졌다. 결국 다시 3차 워크아웃에 돌입한 2009년에 단기차입

금이 81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은행들의 경남기업과 계열사에 대한 대출금 회수 여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들은 모든 기업에 대출을 할 때 실제 담보 능력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대표이사(CEO)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대표가 담보 능력이 없더라도 추후 부실화할 때 책임을 지우기 위한 대비 장치이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사망한 데다 경남기업과 대아건설 등의 관계사가 줄줄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신청한 만큼 해당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대아레저산업의 총부채는 총자산보다 173억7400만원 많은 수준이다. 경남기업 총매출의 93%를 차지하는 거래처다. 안철우 기자 acw@

## 줄줄이 멈춰선 경남기업 공사 1800여개 협력사 줄도산 위기

**충북 도로공사 등 곳곳서 차질**

경남기업이 상장폐지와 함께 법정관리가 결정되면서 공사 현장이 멈춰서는 등 협력사들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공기가 연장되거나 멈춰서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3109억원의 손실에 이어 지난해에도 1827억원의 영업적자를 보이면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다. 여기에 검찰 수사까지 겹치며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거절하자, 지난달 27일 경남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는 개시됐지만 충북 단양·영동군을 비롯해 세종·충남지역의 대형공사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우려한 하청업체의 작업 거부로 공사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던 충북 단양~가곡간 국도 59호선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영동·용산간 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 일부 구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외에도 경남기업이 진행하던 공사 현장들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되면서 일부 하도급업체는 공사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정관리 상태에서 개별 공사현장마다 채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채권 정리가 되는 공사현장은 공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정리가 안될 경우 사업장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70여개가 넘는 사업장이 있어서 개별 현장마다 채권정리 현황이 다른데, 현재 채권관련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 대부분 판급공사이다 보니 채권정리가 빨리 될 수 있지만 현장마다 속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사를 현재 시공사에게 맡길지 계약을 파기할지는 결국 발주처에 달려있다"면서 "아파트 현장들도 대부분 시행이 아닌 단순 시공사이기 때문에 시행사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1호 상장 건설사' 몰락...기관도 개인도 눈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 수백억 손실**

국내 1호 상장 건설사인 경남기업은 기관과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적잖은 피해를 남겼다.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기간에도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다. 경남기업을 중심으로 갖가지 풍문이 소용돌이 쳤고,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들 역시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부침을 겪었다. 상장폐지 순간까지도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됐다.

지난 6일 정리매매 첫 날 주가는 88.64% 급락했다. 전 거래일까지 주당 5000원 안팎을 기록했던 경남기업의 주가는 기관투자자의 손절로 인해 곧장 110원대로 추락했다. 하지만 그 이튿날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라는 호재가 들려오며 주가는 94.91%나 급등했다. 이어 성완중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지난 9일에는 전일보다 44.3%가 하락한 400원대에 장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급등락 속에서 기관투자자의 손실이 가장 컸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경남기업 주식 463만4200주(10.93%)를 정리매매 첫날인 6일과 이튿날인 7일 두 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했다. 첫 날에는 350만주를 주당 754원에, 이튿날에는 113만4200주를 주당 436원에 각각 매각했다. 매각가격은 총 31억3300만원

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경남기업의 지분을 사들일 당시 가격은 주당 5000원으로 231억7100만 원이었다. 출자전환 결정으로 인해 1년 사이 200억원을 손해본 셈이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신한은행도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경남기업 주식을 내다 팔아 각각 120억원 안팎의 매각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1%를 차지했던 개인투자자 역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기관의 경우 정리매매 결정과 함께 일찌감치 손실을 감수하고 경남기업을 떠났지만 반면 소액투자자들은 아직 미련을 남겨 놓고 있다.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경남기업은 여전히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의 렌드마크타워, 수완에너지의 주식 70%(210억원)와 채권(65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각종 공사에 대한 권리도 지녔다. 상장이 폐지됐을 뿐 기업은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산 정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5년 후 재상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경남기업측은 "정리매매 기간이 이제 막 끝난 상황에서 재상장을 논할 수는 없다"며 "총수와 경영진의 부채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기업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LOTTE**

**제주사랑은 감귤사랑입니다**

제주산 감귤로만 만든 [제주사랑 감귤사랑] 마시는 만큼, 제주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롯데칠성음료**  
유종기간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 기업, 검찰수사 대응책은 '증거인멸'?

특별수사팀, 경남기업 압수수색  
사건 관련 자료 은폐 정황 포착  
방산비리 일괄공영도 파일 삭제  
기업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수사 착수 또는 (수사) 확대 조짐이 보이면 사건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거 인멸은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우선, 고(故)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최근 경남기업 내부에서 조직적인 증거 은폐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기업 측이 자원개발 비리와 '성완중 리스트' 의혹으로 잇따라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사건 관련 내부자료를 빼돌리려고 일부러 CCTV를 끈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주 중 반부터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방산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일괄공영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은 지난날 14일 구속된 이 회사 이규태(66) 회장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자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같은 달 25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 회장의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이미 사라졌고, 컴퓨터 파일 등도 삭제된 뒤였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김씨 등 2명을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말 '쌍용회향'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쌍용회향 사태 이후) 대한항공 임원으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객실업무 총괄하는 임원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복구에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임원은 박정진 사무장에 대한 회유 상황,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등을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효성그룹은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앞둔 2013년 9-10월께 컴퓨터 170여대의 하드디스크를 파기·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대부분 기업 언저리는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경향이 짙다"며 "증거 인멸은 말 그대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의 최고 결정판"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증거 인멸은 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뿐 완전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증거 인멸은 곧 제2, 제3의 범행위업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수 기자 tearand76@

## 당·정·청 세월호특별법 논의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가 정국을 뒤흔치고 있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장에서 열린 '제3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비롯해 4월 국회의 주요 법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국토부 "A320 조종사 보강 훈련하라"

### 조종사협회는 "졸속·전시 행정" 반박

#### 아시아나 사고 '정부·민간협' 갈등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가 정부-민간협회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고 이후 A320 조종사에 대한 긴급 보강 훈련지시를 내리자,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가 반발하면서 갈등 양상이 빚어진 것.  
국토부 운항정책과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15일 아시아나 A320 조종사에 대한 긴급 보강훈련지시를 내렸다.  
이에 맞서 조종사협회는 17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아시아나 사고와 관련, 국토부의 긴급 보강훈련 지시는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에 명시돼 있는 사고 조사 후 권고사항 생산의 절차와 기본 취지를 위반했다"며 "절저한 조사가 끝난 후 원인 규명이 이뤄진 다음에 이뤄져야 할에도 사고 다음날 바로 훈련지시를 내린 것은 졸속행정 및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다가 이번 주체는 조사기관인 일본운수안전위원회로 국토부의 이 같은 지시는 조속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이륙한 아시아나항공 162편(A320기)은 같은 날 오후 8시 5분께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했다. 당시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은 긴급 탈출했고 27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2013년 대한항공 日 착륙사고는 가장 '오인' 때문"

### 국토부, 일본 운수안전위 조사보고서 넘겨받아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3년 일본 니가타 공항에서 일으킨 활주로 이탈 사고의 원인은 가장의 오인 때문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3년 니가타공항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가 가장의 오인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대한항공 763편 보잉737기는 2013년 8월 5일 오후 7시 41분께 니가타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넘어서 정지했다.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전원이 무사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 말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기장과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했는지 별도의 사실조사 작업을 벌였다.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사고기 기장이 니가타공항 활주로 끝에 있는 '탈단등'을 이보다 300m 앞에 있는 '멈춤등'으로 착각해 착륙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또 관제탑에서 '착륙 후 교차 활주로를 지나도 된다'고 허락한 것을 기장은 '착륙 과정에 교차 활주로를 지나도 된다'고 다르게 이해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니가타공항 착륙사고 후 3주간의 일정으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또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철규 기자 yoonck@

## 이완구 지지 '완사모' 핵심 인물 회사 자금 60억원 어디에 썼나

차명계좌 통한 자금 횡령 포착  
검찰, 충남 시내버스 대표 구속  
'검은돈' 정치권 유입 수사 확대

이완구 국무총리의 외곽 조직을 이끄는 충남 아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전격 구속됨에 따라 향후 이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또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이 총리 고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이 총리 지지 모임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교롭게도 겹쳤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전안지원은 16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내버스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아산의 운양교통운수(주) 대표 이모(6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이씨는 이 총리 지지모임인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자문 임원단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리 직원이나 차명계좌 등을 통해 회사 자금 60여억원을 빼돌린 구제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씨가 빼돌린 금액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는 2009년 이 총리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반발해 충남지사 직을 사퇴하자 김태흠 국회의원, 강태봉 당시 충남도의회 의장, 김준배 당시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등과 함께 '세종시 원안 관철 및 이완구 지사 사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 의장에 선출되며 세종시 원안 추진과 이 총리 사퇴 반대의 선두에 섰다.  
또 매년 연말이면 충남지역 주요 정치인과 완사모 회원 수백명이 참석하는 완사모 지문임원단 송년회 및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이 총리를 외곽에서 적극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아산지역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을 두 번이나 지내 지역사회에서는 '조간간 지역정가에 발을 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수 기자 tearand76@



이완구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시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우비를 착용하고 기념공연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성완중 리스트'에 야당 있다?

특별수사팀 '로비장부 본적 없어' 수사범위는 제한없이 원칙대로"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아직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17일 고 성 전 회장이 여야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장부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형태의 자료는 현재까지 수사팀이 눈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문

검사장은 이날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자료들을 분석하느라 잠도 못자고 일해 왔는데, 오늘 같은 일(장부가 있다는 보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 수사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로비장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보도된 한 야당 의원은 "저를 포함한 몇몇 야당 의원들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의 작성과 유포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좌영길 기자 jy97@

## 법사위, 황교안 장관 불러 '성 리스트' 수사 추궁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중 리스트' 사건과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여야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성완중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자금을 건넨 구제적 정황을 살폈다.  
야당은 독립적 수사를 위해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앞서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독립적 수사를 위해) 이 총리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등을 물어볼 것"이

라며 "강압수사는 없었는지, 리스트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일 큰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지 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이 총리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통화에서 "앞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당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이 총리 사퇴와 관련해서는 "당장 대통령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사퇴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필호 기자 beellebum@

## 서울 관악을-인천 서구·강화을 2곳 최대 승부처로

### '성 리스트' 재보선 판세 바꾸나

#### 野 열세지역 '박빙' 전환

'성완중 리스트' 여파로 4·29재·보궐선거가 곱돌고 있다.  
총 4곳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애초 새누리당이 우세를 점했던 서울 관악을과 인천 서구·강화을이 '박빙'으로 전환되면서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경기 성남 중원에서도 여당 후보에 대한 야권 후보들의 추격이 매섭다.  
특히 서울 관악을에선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독주를 멈추고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무소속 정동영 후보와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 초반 오 후보는 야당 후보보다 2배 가까운 지지율을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오자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오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2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

지 않았다"며 "지역선거는 결국 지역 발전에 어떤 후보가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태호 후보 측은 "곳곳을 다녀 보면 민심이 야당으로 완전히 돌아선 걸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  
정동영 후보 측은 "성완중 리스트 파문으로 기성정당인 여야 모두에 주민들이 등을 돌리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강화을에선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와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중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지지기반으로 바락 민심이 확고하다"고 했고, 신 후보 측은 "이미 역전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중원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다소 앞선 가운데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출신인 김미희 후보가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김의중 기자 zerg@

## "한국사·한자 쉽고, 도형·도식적추리 어려웠다"

### LG그룹, 대졸공채 인적성검사

"한국사와 한자 문제의 경우 LG커리어스에 공개한 예시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돼 비교적 쉬웠지만, 도형 추리 문제는 시간이 모자라 다 풀지 못했다." (LG전자 MCA사업본부 지원자 김모씨)  
LG그룹의 올해 상반기 대졸공채 인적성검사는 한국사와 한자가 쉬웠던 반면, 도형·도식적 추리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LG그룹은 18일 오후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 11개 고사장서 상반기 공채 인적성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적성검사는 LG전자를 비롯해 LG이노텍, LG화학, LG유플러스 등 9개 계열사 서류전형 합격자 9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4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인적성검사는 '웨이잇 테스

트로 불리는 인성검사와 언어이해·언어추리·인문역량과 수리력·도형 추리·도식적 추리 등을 평가하는 적성검사로 구분돼 실시됐다.  
웨이잇 테스트는 'LG웨이'에 맞는 개인별 역량 또는 직업 적합도를 확인하는 검사로, 50분 동안 342문항을 풀면 된다. 1분당 7문제 풀이이다. 적성검사는 직무수행 기본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로, 총 140분간 총 125문항을 풀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추가된 인문역량 부문은 한국사와 한자 문제가 10개씩 나왔고 난이도는 평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도형과 도식적 추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각 계열사별로 인적성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5~6월 면접전형 이후 7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LG는 상반기 공채와 수시모집 등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지난해와 비슷한 2000여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guty@

## 임환수 '소통'에 차세대TIS '숨통'

〈국세청장〉 〈국세행정시스템〉

### 임 청장 리더십에 빠른 안정화

개통 초반 시스템 오류로 논란이 일었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이 점차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17일 국세청과 일선세무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개통한 차세대TIS는 당시 세수 집계와 채납 징수 업무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13일 이후 모든 업무가 안정 계도에 진입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의 주력 업무인 세수 집계와 채납 징수 업무는 개통 초기와 달리 현재는 오류 없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결제시스템 또한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차세대TIS 내 대내 포탈에 있는 정보 분석 조회가 수월하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1주일에 불과하던 경정청구 조회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연장, 직원 만족도가 제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차세대TIS 안정화 이면에는 임환수 청장과 직원들 간 헌정 소통 그리고 분청 전산실과 일선세무서 직원들이(차세대TIS) 문제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

어붙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례로 임 청장은 지난달 27일 종로세무서에 이어 최근에는 안산세무서를 방문, 차세대TIS와 관련해 직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당시 임 청장은 차세대TIS에 대해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본지방국세청 국실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다. 임 청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본청 주관 확대간담회에서 "이달 17일이면 차세대TIS가 개통한 지 8주차가 접어들었다"며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차세대TIS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 바 있다.

임 청장의 '현장 소통' 리더십 이외에도 국세청은 차세대TIS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분야 전문인력이 차세대추진단과 함께 오류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EITC 업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확대하렷더니...

# 비정규직 줄이고 간접고용 늘렸다

### 공공기관, 정부 압력에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력 감소세 정규직 채용은 줄고 용역·과건은 6년전보다 17% 증가

공공기관들이 용역·과건 등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자 직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은 줄이는 대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은 늘리는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 인력은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2년에 4만5074명까지 늘어났지만 2013년 이후부터 감소해 지난해에는 4만3136명까지 줄었다.

반면 주로 청소나 경비 업무 등 용역·과건 형태의 근로자인 소속 외 인력은 같은 기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24개 공공기관의 소속 외 인력은 2009년 5만2717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6만4070명까지 증가했다. 2009년과 비교하면 17%가량이나 증가한 수치다.

소속 외 인력들은 공공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과건·용역 형태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이

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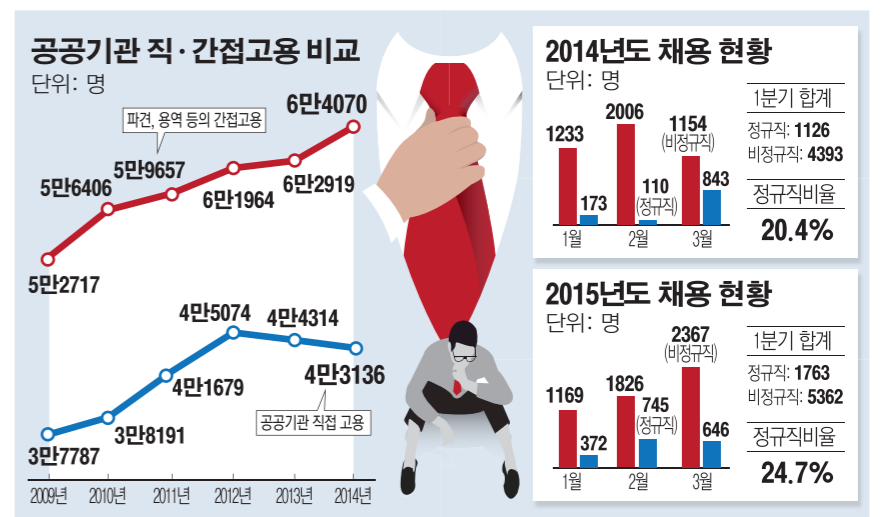
기관별로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7612명)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6288명), 한국철도공사(5247명), 한국공항공사(3225명), 주택관리공단(2415명)의 순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직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은 줄이는 생색만 내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것이어나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3년간(2013~2015년) 1만1784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준의 중요한 항목에 포함시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수도 작년에 비해 소폭 늘어



나는데 그쳤다.

올해 1분기 326개의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7125명에 달한다. 이는 5519명을 채용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채용 규모는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정규직 비율은 전체 채용 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쳤다. 실제 올해 정규직 채용 비율을 보면 7125명의 신규 채용 가운데 계약직은 5362명, 정규직은 1763으로 정규직 채용 비율이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지난해 5519명의 신규 채용 가운데 계약직 4393명, 정규직 채용이 1126명으로 정규직 비율이 20%인 것과 비교하면 4%가

량 늘어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재계에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정차 공공기관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중심의 채용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잣대로 포함한다고 하면서 전환 규모에만 공공기관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신규채용 인력 등은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sympark@

### 현장 인터뷰 김혁호 수자원공사 동남아시아담당장

## “총리가 수자원공사에 우선권 약속 태국 6조 물관리사업 무산 아니다”

“태국 총리가 한국의 참여를 언급한 사업입니다. 시일의 문제일 뿐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4일 태국 방콕 현지에서 만난 한국수자원공사 김혁호 동남아시아담당장은 상기된 목소리로 발언을 열었다.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태국 사업 무산 보도에서 느낀 답답함 때문이다.

김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앞서 태국 정부는 2011년 9월 홍수 방지를 위해 약 11조 원 규모의 물관리사업을 추진했고 이 중 공사는 2개 세부사업 입찰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쿠데타로 브라웃 총리가 집권하면서 관련 사업은 백지화됐다. 이어 신정부는 31조원 규모의 새로운 물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실상 전제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과격없이 사업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수자원공사는 결국 치열한 고군분투의 길을 걷고 있다.

김혁호 단장은 “지난해 정상회담 외에도 현지 실무진들이 물관리사업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태국 정부와 100회 이상 협의



테이블에 앉았다”며 “덕분에 거의 농철 뿐만 아니라 6조원 사업 수주에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브라웃 태국 총리가 신 물관리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매우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게 그의 설명.

김 단장은 향후 새로운 물관리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2017년께로 보고 있다. 그는 “물론 공사의 물관리사업 참여가 늦춰질 수 있고 종전 사업의 입찰 비용으로 집행된 125억원의 문제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신규 물관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혁호 기자 h9913@

### 칭찬합시다 정성호 의원이 추천한 김영우 의원

## “쇄신과 균형을 아는 젠틀맨”

### 포천 주민생활 개선 앞장... 당내 혁신연대 핵심역할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이 ‘칭찬 릴레이’ 바통을 넘긴 이는 이웃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시·연천군)이다. “김영우 의원은 균형 감각과 도전의식이 있는 데다 지역구도 굉장히 안정적인 만큼 새누리당에선 장래가 촉망되는 의원”이라는 이유다.

특히 정 의원은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이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뛰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각종 규제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포천·연천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삼일위도 국방위나 외교통일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이 구라·포천 민자고속도로 추진 등 포천·연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동료 의원들을 찾아 협조를 구한다고 부연한 뒤, 웃음 띠며 목소리로 “잘생긴 데다 늘 밝고 젠틀한 분이라서 칭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7·27전당대회에 나서 당내에 도전한 일에도 정 의원은 후한 점수를 줬다. 정 의원은 “비록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당내 쇄신과 포천을 위해서 40대 기수론을 주장하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설 정도로 용기 있는 분”이라며 “계파로는 천이계로 정계 입문했다고 해도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이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당 혁신연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이후 쇄신전대추진 모임과 통합해 만든 혁신모임인 ‘아침소리’에서 활약 중이다. 언론인 출신인 그는 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젠틀맨’을 인정받아 지난해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도 받았다. 김미영 기자 bomnal@

### 봄비가 오려나... 곡우에 봄비



봄비(雨)가 내려 백곡(穀)을 기를지기를 한다는 절기상 봄의 마지막 절기 곡우(穀雨)인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송포동에서 한 농부가 못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차대통령 페루 방문 동포 100여명과 간담회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두 번째 방문국인 페루에서 현지 동포 100여명을 초청해 민간 간담회를 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996년 한인회 주도로 설립한 양국 우정단체인 ‘아빠포’(HAPECO)가 페루 빈민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 등을 펼치면서 동포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감사의 뜻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한 양국이 전통적인 무역과 투자협력력을 넘어 IT, 보건 의료, 인프라, 교육, 방산, 치안 등 다양한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통해 페루 동포사회에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 정부의 통일정책과 맞춤형 동포정책 등을 소개하고, 동포사회의 이해와 지지도 요청한다. 김미영 기자 bomnal@

## ‘저물가’ 잡겠다고 ‘서민’ 잡는 정부

### 저물가 기조에 수도·교통 요금 인상 예고 “연쇄인상 우려... 눈가리고 아웅” 지적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공공요금은 민간서비스 요금의 연쇄 인상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부가 저물가 기조를 벗어나고자 공공요금 인상을 묵인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물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오는 6월 인상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요금 150원, 지하철 요금 250원, 광역버스 요금 450원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금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면 연간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안에 대해 서울시는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적자를 줄이려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올 상반기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 11월 버스요금 조정 이후 3년 넘게 요금을 동결해왔으

나 운송비용 상승,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등으로 버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해지자 요금 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상반기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평균인상률을 4.7%로 한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현실화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는 했으나 후속 절차는 전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번만이 아니다. 안동시는 4월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34.6%, 10% 올렸고, 전주시 역시 하수도 요금을 36% 인상했다. 제주도도 오는 5월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27%, 9.5% 올리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이미 고삐가 풀려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함에도 요금인상 자체 요청을 해야 할 중앙정부는 ‘말 먹은 병어리’다. 공공요금 책정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손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난해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지적이 나온

### 지자체별 공공요금 인상 추진 추이

지자체	추진 내용
서울시	시내버스 150원, 지하철 250원 인상 추진
인천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검토
경기도	21일 학계·소비자단체·업계 등 참석해 ‘버스요금 조정’ 공청회 개최
안동시	하수도(34.6%), 상수도(10%) 요금 인상
전주시	하수도 요금 36% 인상
제주도	하수도(27%) 상수도(9.5%) 인상 추진

다. 당국의 물가관리 의지가 약한 까닭은 저물가가 우려에서 찾을 수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올 들어 계속 2%대로, 담뱃값 인상 효과를 빼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다. 하지만 체감 물가상승률이 3%대 이상인 상황에서 인상 요인들이 대부분 서민의 생계에 직격탄을 가하는 것이어서 반

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체감경기가 실제 경기보다 훨씬 부정적인 만큼 소비여건 개선과 함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 伊 패션·가족 장인 기술전수 사다리 된 '마에스트로 아카데미'



삼성 글로벌 CSR 사례

※출처: 삼성 각 계열사

계열사	프로그램명	내용
삼성전자	삼성 스마트 스쿨	IT 기술 활용한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
	삼성 테크 인스티튜트	체계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
	삼성 케어 드라이브	헬스케어 프로그램, 진단 의료인 양성과 이동 의료 센터 운영
	삼성 나눔 빌리지	개발도상국 취약지역 대상 생활 인프라 개선
	솔브 포 투모로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적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임직원 해외 봉사활동	일주일간 해외 봉사활동
삼성디스플레이	초등학교 건립	아프리카 토고 아베지에 초등학교 건립 지원
	아학운영	필리핀법인, 불가리아에 학비 지원·야학 운영
	제일기획	인도 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실태 정보 공유, 기금 조성해 교육 환경 시스템을 구축
	삼성화재	인니법인, 자카르타 공립 초등학교에 집기과 비품 무상 지원
삼성생명	비품 지급 및 패스트 브레이킹	라미단 기간 고아원생 초청 행사
	맹그로브 식목사업	태국법인, 2004년 태국 쓰나미 피해 고려 맹그로브 식목활동

지난해 6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삼성 마에스트로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진 디자이너 엘리스 멘토인 자전거 장인인 펠리콜라가 공들여 제작한 '스마트 바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메인 극장 베토벤홀에서 열린 '톨스토이 문학상' 시상식. 사진제공 삼성전자

## CSR 이제 세계로

3 SAMSUNG 삼성

삼성전자는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반면 장인 기술이 필요한 산업에는 후계자를 찾지 못해 기술 전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후 삼성전자의 제품을 활용해 장인들의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젊은 세대는 장인과 함께 작품을 제작해 출품하거나 판매·전시할 수 있는 '삼성 마에스트로 아카데미'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마에스트로 아카데미 캠페인 영상은 1000만명 이상이 유튜브에서 시청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다. 멘토링을 통해 제작된 드레스셔츠는 이탈리아 유명 패션잡지에 소개됐고, 가족 장인의 기술 전수를 통해 만들어진 가방은 고급 공방에서 판매됐다.

◇CSR로 삶의 질과 지역문제 해결 나서 = 삼성은 1994년 국내 기업 최초로 사회공헌 전담 조직인 삼성사회봉사단을 설립한 이래 봉사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현재 30개 계열사에 112개 자원봉사센터와 4226여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10개의 지역 총괄을 중심으로 85개국에서 지역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가 많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CSR 활동이 가장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자전거에 장착된 레이저 프로젝터가 달리는 도로 위에 바이크 라인을 만든다. 자전거 후방에 달린 리어뷰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전송되고, GPS 시스템을 활용해 내비게이션은 물론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결과물로 탄생한 '스마트 바이크'에 대한 얘기다. 이탈리아 유명 자전거 프레임 빌더인 조바니 펠리콜라와 신진 디자이너 엘리스의 협업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 IT기술 활용한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

### 진단 의료인 양성·이동 의료센터 운영

### 전세계 85개국서 지역맞춤형 사회공헌

### 삶의 질 향상·지역문제 해결에도 앞장

### 美 아동건강 지원·CIS 불쇼이극장 후원

### 해외법인도 국가별로 특화된 활동 펼쳐

2013년부터 나눔경영 주영역인 교육, 고용, 의료보건에서 5개 대표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삼성 스마트 스쿨'과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현지 고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삼성 테크 인스티튜트'를 운영하며 청년층 취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애쓰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서남아, 동남아, 중남미, 유럽, 중동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의료보건을 위해서는 '삼성 케어 드라이브'와 '삼성 나눔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 케어 드라이브는 삼성전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단 의료인 양성과 이동 의료센터를 운영해 기본 건강 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 나눔 빌리지는 개발도상국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작년 기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DRG, 가나, 나이지리아, 탄자니아에 나눔빌리지를 구축했으며, 베트남 투이화 마을, 인도 베드푸라 마을에서 올해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브 포 투모로우'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을 적용해 지역 환경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경진대회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워크숍을 통해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법인, 각 국가에 맞는 맞춤형 CSR 실천 = 삼성전자의 해외법인들은 각 지역에서 특화된 맞춤형 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호프 포 칠드런(Hope for Children)'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 북미총괄은 2002년부터 대형 IT·가전 유통업체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하면 이익금의 일정액을 미국 4대 스포츠(골프·야구·농구·미식축구) 스타들이 후원하는 NGO(비정부기구)에 기부하는 '희망의 사계절(Four Seasons of Hope)'을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건강을 지원하는 '호프 포 칠드런'으로 발전했다.

루마니아 법인은 2011년부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을 하는 '트렌드 오브 투모로우(Trends of Tomorrow)'를 진행하고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29개 도시에서 140개 학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적성검사와 진로상담 세미나에서는 삼성 임직원, 업계 전문가, HR 전문가 강사, 심리학자, 유망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폴란드, 영국에서는 '코딩(Coding)' 교육사업이 대표적이다. 6만여개의 ICT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유럽연합(EU)에서 ICT 교육 확대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에 발맞춰 폴란드법인은 선두로 2013년 영국법인도 코딩 관련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코딩 교육을 위한 제품 지원, 세미나 개최, 교사 교육을 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CIS)에선 불쇼이 극장 후원이 현지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 CIS 총괄은 1991년부터 불쇼이 극장을 후원하고 있는 불쇼이 극장을 후원하고 있다. 삼성전자 CIS 총괄은 옛소련 붕괴 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돼 폐관 위기에 처한 불쇼이 극장과 스폰서십을 맺고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2003년 9월에는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탄생 175주년을 기념해 불쇼이 문학상을 제정했다. 매년 수백편의 출판작 중 대상과 신인상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13년 시상식부터 아동 문학상이 추가됐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 CSR은 '해피 투게더,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희망, 화합, 인간애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임직원은 참여와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을 펼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화합하며, 봉사활동의 실천으로 인간애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내 아이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에  
LIG손해보험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자녀보험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해지고  
그 희망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LIG손해보험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무배당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LIG NEW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앞!에서! 앞!생까지!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4-2764호(2014.12.15)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www.LIG.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기일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통계 내용상보험의 해약금액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인니법인이 국립 고아원생 및 교사를 초청(왼쪽 큰 사진), 학용품과 기념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여는 등 삼성 부품 및 금융계열사들은 특화된 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기 필리핀법인 직원들은 직접 야학을 운영하고 있으며(오른쪽 위) 제일기획 인도법인은 저소득층 여자 어린이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메리 클래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아프리카에 초등학교 세우고 우물 파고...필리핀 야학·태국 식목사업... 부품·금융계열사, 브랜드 이미지 심기

B2B(기업간 거래)사업 중심인 삼성 부품 계열사들은 특화된 CSR 활동을 통해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 국가에 새기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부터 아프리카 토고 아베지 마을에서 초등학교 건립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적절한 수준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초등학교 시설 건립과 유지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기반을 둔 이 사업은 올해 1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식수가 부족한 현지 환경을 고려해 학교 내에 우물을 건설했다. 학생들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더 이상 물을 얻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다.

삼성전기 필리핀법인은 2006년부터 CSR 개념을 본격 도입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07년부터는 각종 CSR 활동을 정례화했다. 불우가정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삼성 직원들이 직접 참여 야학을 운영했다. 장학사업은 불우가정 학생 20여명을 선정, 사측이 50%, 임직원이 50%를 부담해 학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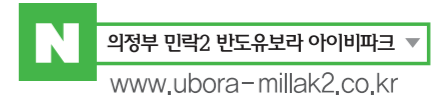
제일기획 인도법인은 저소득층 여자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메리 클래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 여자 어린이 중 약 80%가 정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메리 클래스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인도 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실태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금도 조성해 교사, 교실 등 높은 품질의 교육 환경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프로젝트다.

삼성 금융 계열사의 글로벌 CSR 활동도 다양하다. 삼성화재 인니법인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급과 기부행사 활동과 라미단(이슬람교 금식기간) 기간 중에는 갈 곳 없는 국립 고아원생 및 교사 전원을 초청해 학용품과 기념품 등을 지급하고 소정의 선물도 주는 '패스트 브레이킹(Fast Breaking)' 행사를 열기도 했다.

삼성생명 태국현지법인은 매년 맹그로브 식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그린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100여명의 직원이 식목사업에 참여했다. 삼성생명은 2004년 태국이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점을 고려해 환경보호와 탄소가스 흡수 효과와 함께 쓰나미 예방도 기대할 수 있는 맹그로브의 식목 활동을 CSR로 선정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의정부 시민들이 기다려온 반도유보라 - 의정부의 첫 번째 유보라 프리미엄!

**15분대 서울생활권**  
“의정부 민락동 이기환씨 유보라의 서울접근성에 놀라다”

**BRT 정류장**

**의정부가 처음 만나는**  
“의정부 신곡동 김정은씨 유보라의 교육특화에 반하다”

**단지내 별동학습관**

**단지와 직접 연결된**  
“도봉구 창동 김보람씨 유보라의 에코프리미엄에 반하다”

**민락천과 체육공원**

**주부 마음에 쏙 드는**  
“의정부 호원동 강임희씨 유보라의 혁신평면에 반하다”

**4Bay 4Room**

## 민락의 핵심가치를 유보라에 담다 - 의정부 민락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 프리미엄 교통** 1,7호선 환승역 도봉산역까지 15분대에 직통하는 BRT(간선급행버스)예정, 정류장 옆
- 프리미엄 평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4BAY 4ROOM 혁신평면과 주방공간이 특화된 다목적 알파룸
- 프리미엄 교육** 송양중, 송산초, 송양고 및 의정부 최초 단지내 별동학습관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
- 프리미엄 생활** 이마트, 코스트코, 영화관(예정)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완벽한 생활인프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산90-2(01마트 의정부점 맞은편)

78㎡ 76세대 / 81㎡ 116세대 / 84㎡ 747세대 총 939세대 중소형 대단지 시행 대창개발 시공 B 반도건설

# 1800-1991

\* 상기 CG컷 및 내용은 소비자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 및 인허가 상의 문제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印尼 BME 인수’ 속원 푼 한동우

〈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은행, 지분 40% 596억원에... 외국은행 인수 승인 첫 사례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 올해의 수익비중 10% 달성 영업 박차

신한금융이 지난 2년여간 표류해 온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BME) 지분 인수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 진출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인도로 이어지는 아시아 금융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올해의 수익비중 10%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영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인 OJK(OTORITAS JASA KEUANGA N)로 부터 자카르타 소재 현지은행 지분 인수 승인을 획득해 인도네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2년 금융기관 최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도입한 이후 외국 은행에 지분 인수를 승인해 준 최초 사례다.

블룸버그와 인도네시아 언론 더 RAKYAT포

스트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BME 지분 40%를 7000억 루피아(약 596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잔여지분 추가 인수를 추진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2012년 BME 최대주주인 메트로판카와 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 지분 40%를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지만,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에서 승인해 주지 않아 인수가 지체돼 왔다.

이에 한 회장은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함께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방문해 금융당국자를 만나 직접 인도네시아 현지은행 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BME) 인수 절차를 매듭지었다.

BME는 1967년 설립돼 수도인 자카르타에 본



점을 두고 있는 외국환 상업은행이다.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중심으로 19개의 채널망을 두고 있는 소형은행이지만 부실채권 비율이 0.38%에 불과하다. 이번 지분 인수의 자문사로는 BNP파리바가 선정됐다. 강구귀 기자 kkk@

## “중고차 복합할부로 사세요” 신한카드, 업계 첫 ‘C-Plus’ 출시

신한카드가 업계 최초로 자체적인 중고차 복합할부 상품을 출시했다. 중고차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신한카드가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카드는 지난 19일 중고차 유통업체 U-Car와 손을 잡고 중고차 구매시 카드결제 시 가능한

중고차 자산복합할부 상품 C-Plus를 출시했다.

C-Plus는 중고차 구매시 카드결제와 할부금융을 결합한 상품으로 카드 부가서비스와 할부 금리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컨셉으로 운영되는 업계 최초 상품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 1000만 유커시대...카드도 큰손 ‘유니온페이’와 손잡는 카드사들

작년 6.7조 거액... 대부분 유니온페이로  
KB국민·우리·비씨카드 전략적 제휴나서



카드사 유니온페이 제휴 현황

KB국민카드	7월부터 중국 현지 NFC 단말기 결제 가능
우리카드	중국, 대만 등 사용가능한 자유로운 여행카드 출시
BC카드	중국은행과 제휴마케팅 확대 등 MOU 체결

카드사들이 몰려드는 유커(중국 관광객)를 잡기 위해 중화권 최대 카드사인 유니온페이(CUP)와의 제휴에 나섰다. 한국과 중국 카드사들이 결제 편의성을 강화하면서 양국 결제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인 것으로 보인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비씨카드의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한 거화용 차이나 유니온페이(CUP)·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UPI)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KB국민카드는 LG유플러스, 유니온페이와 함께 국내 모바일 카드를 중국내에서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부터 유니온페이 브랜드를 탑재한 KB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국내 고객은 중국 현지 가맹점에 설치된 근거리무선 통신(NFC) 단말기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유니온페이와 함께 중국, 대만, 마카오 등 중화권과 일본 등 우리 국민이 자주 여행가는 아시아 국가에서 우대 가맹점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로운 여행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예약부터 귀국까지 해외여행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래티넘 카드를 표방한다.

BC카드는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중국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화서비스개발, 제휴 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장성글로벌자유

여행카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앞다퉀 유니온페이와 손잡는 이유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유커의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22만명, 2012년 283만명, 2013년 432만명, 2014년 613만명 등 유커들의 방문 규모가 커지면서 2017년이면 1000만명 돌파도 무난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방문한 유커들 가운데 대부분이 유니온페이카드 이용자이며 거래규모는 약 6조 7000억원이다.

즉 국내 카드사들은 한국과 중국인들이 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양국 결제 시장 공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유니온페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결국 중국인이 사용하는 빈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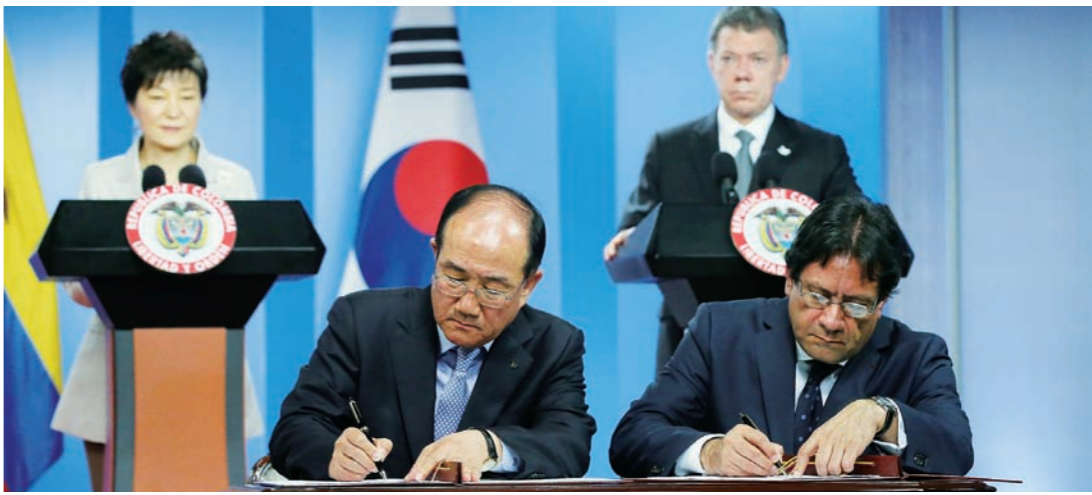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릅니다. \*해외투자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1557호 (2015.03.11~2016.03.10)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과 네스토르 라울 파구아 구아우케(Nestor Raul Fagua Guaque) 콜롬비아 개발은행(Financiera de Desarrollo Nacional) 부행장이 17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시 대통령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융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 콜롬비아 개발은행과 금융협력 MOU

수출입은행이 콜롬비아 개발은행(FDN)과 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로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시 대통령령에서 네스토르 라울 파구아 구아우케 콜롬비아 개발은행(FDN) 부행장과 만나 △콜롬비아 인프라사업에 대한 공동 금융구조화 및 금융지원

△FDN에 수은의 금융자문 경험 전수 △각종 정보공 유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중남미 주요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임석했다. 이 행장은 서명식 직후 “두 기관간 공고한 협력관계가 구축돼 콜롬비아 인프라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창출되고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섫별 기자 byul0104@

## 국민은행, 원스톱서비스로 中企대출 ‘깡충’

올해초 기업금융 강화 위해 도입 결실  
1분기 2.3조 증가...전년 5천억의 ‘5배’

KB국민은행이 올해 초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도입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빛을 발하고 있다. 중기대출 증가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5배나 늘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지난 3월 말 원화대출 잔액은 198조820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196조 2424억원)과 비교하면 3개월만에 2조 5779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중기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중기대출 잔액(소호대출 포함)은 같은 기간 68조 3935억원에서 70조 7518억원으로 2조 3583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5000억원이 증가한 것만을 감안하면 무려 5배의 증가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올 초 도입한 원스톱 서비스가 주요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원스톱 서비스는 기업금융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영업지원 토털서비스 장구다. 일선 영업점의 기업금융과 본부의 소통창구인 셈이다.

윤종규 행장은 취임 이후 현장과 고객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프로세스를 영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했다. 처음 단편한 조직개편에서 중소기업 지원그룹을 신설하고 제도 및 시스템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 중소기업과 소호고객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했다.

최근 실시된 경기도 고양시 삼송테크노밸리의 아파트형 공장 잔금대출을 KB국민은행이 거의 휩쓸다시피한 것은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체계를 빠르게 마련해 소매금융 시장에서의 확고한 지위와 함께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리딩뱅크 위상 회복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진 기자 sunhyun@

# 고속질주 수입차, 獨3사 순익 80% 차지

지난해 수입차 '톱 10' 매출 8조6258억... 37% 성장  
벤츠, 순익 969억 180% 증가... BMW는 22% 늘어  
아우디폭스바겐, 매출 2조6619억 수입차 업계 1위

수입차의 판매가 크게 늘면서 이들 업체의 지난해 순이익이 급증했다. 올해에도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전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매출 상위 10대 수입차 업체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매출은 8조6258억원으로 전년의 6조3110억원 보다 36.7%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013년 798억원에서 지난해 1977억원으로 147.8%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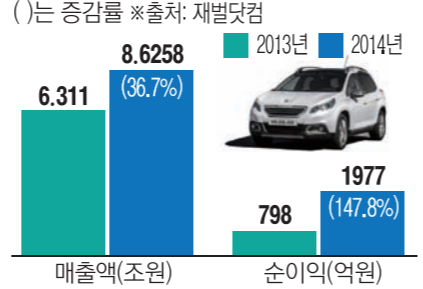
업체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013년 1조3606억원에서 지난해 2조2045억원으로 매출이 1년 만에 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345억원에서 969억원으로 180.6% 불어났다. 벤츠코리아의 대주주 배당금은 2013년 173억원에서 지난해 48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벤츠코리아는 다임러AG와 홍콩 소재 스타오토홀딩스 등 외국법인이 51%와 4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23.6% 늘어난 2조6619억원으로 수입차 업계 1위를 지켰다. 당기순이익은 30.1%

## 상위 10대 수입차업체의 실적 차이



증가한 407억원이다. BMW코리아의 매출과 순이익도 2조2999억원과 201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0.6%, 22.4% 증가했다.

이들 독일차 업체들의 순이익을 합하면 1577억원으로 상위 10위권 수입차 업체 순이익의 79.8%를 차지했다. 지난해 독일차 업체의 판매는 전체 수입차 판매의 69.4%였다. 그러나 이들의 순이익 비중이 이보다 큰 것은 고가 위주의 차량 판매가 주를

이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독일차 업체 이외에는 영국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매출이 2013년 3367억원에서 지난해 4740억원으로 40.8% 늘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21억원에서 7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3년 설립된 포르쉐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878억원, 당기순이익의 12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올해는 SUV 신차를 선보인 업체들의 성장이 눈에 띄고 있다. 올해 1분기 'C4 피카소'를 앞세운 시트로엥은 146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217.4% 성장했다. '2008'을 선보인 푸조의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9%(1345대 판매)다. 포르쉐는 올 1분기 '카이엔', '마칸' 등 SUV 632대를 판매, 스포츠카를 포함한 전체 판매의 68.1%를 차지했다. 이 업체의 전년 대비 1분기 성장률은 104.4%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가보니 'G4' 카메라 모듈 생산 LG이노텍

# 7차례 이물제거후 클린룸 입실 0.0005mm 크기 먼지도 없다

천장·바닥 설치 된 특수장치로  
쌀 한가마 압력 받으면서 작업  
수백번 흔들며 가혹 테스트



LG이노텍 직원들이 전락 스마트폰 G4의 카메라 모듈을 소개하고 있다. G4는 현존하는 카메라 중 가장 낮은 F 1.8 조리개 값을 가진 1600만 화소 OIS 카메라 모듈을 탑재했다.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 차세대 스마트폰 'G4' 핵심 기능은 조리개값 F1.8의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전면 800만 화소 카메라다. 이를 제작하는 생산공장의 심장부를 엿보는 과정은 시작부터 까다로웠다. 방진복과 방진화, 방진모, 마스크에 두 겹의 장갑을 착용해야 생산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일곱 차례의 이물제거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10천 클린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지난 17일 G4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LG이노텍 광주공장을 찾았다. 이곳의 자랑은 반도체 생산라인 수준에 버금가는 무결점 '10천 클린룸' 카메라 모듈 생산라인이다. 10천은 1ft(세제곱피트·약 30cm 길이 정육면체 크기)의 공간에 0.0005mm 크기의 먼지가 10개 이하인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출입관리가 까다로운 것은 최고의 품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혹시 모를 공기 중의 작은 먼지 하나라도 제품에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화면에 작은 점처럼 보이는 불량 모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톱만한 크기의 카메라모듈을 만들기 위해 작업자들은 그야말로 먼지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천장과 바닥에 설치된 특수장치가 압력을 가해 생산라인에 있을지도 모르는 먼지가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며 "이곳에서 오랜 기간 일하는 작업자들의 경우 쌀 한 가마에 버금가는 압력을 어깨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카메라 모듈은 반드시 양산 테스트를 거친다. 각각의 제품은 자동화된 테스트 장치를 통해 오토포커스, OIS(손떨림보정기능), 해상도 등을 점검한다. 특히 OIS 기능 품질 테스트를 위해 수십 대의 검사장비 안에 카메라 모듈을 넣어, 수백 번을 흔들면서 촬영하는 가혹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G4에 탑재될 1600만 화소 카메라를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년 남짓. 핵심 공정을 3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원점부터 재설계했다.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은 2013년 10억대 규모를 돌파했으며, 올해는 15억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백화점, 월요일 세일에 온라인 연장 할인까지

소비 침체에 다양한 판촉행사

백화점들의 세일 공식이 깨지고 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소비 침체가 가속화되자 경쟁사 휴점일에 나홀로 세일 행사를 여는가 하면, 오프라인 세일을 온라인 대형 할인행사로 이어가는 등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20일 신세계백화점은 경쟁사들이 문을 닫는 휴점일에 대부분의 점포에서 대형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봄 정기세일 기간을 기존 17일에서 10일로 축소시킨 대신, 경쟁사 휴점일을 틈타 초특가 행사를 열어 고객몰이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백화점은 20일 의정부점을 제외한 모든 점포에서 패션과 잡화, 식품, 생활 등의 인기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단 하루 초특가 판매전'을 진행한다.

신세계의 이례적인 경쟁사 휴점 세일은 연중 계속되는 할인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이 더 떨어졌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조치다. 흥정표 신세계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지난 2007년 연간 61일에 머물렀던 세일기간을 지난해 102일 진행했다"며 "길어진 세일이 오히려 고객들의 구매의욕을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장세일'과 '노마드세일'로 반짝 특수를 누렸던 롯데백화점은 오늘 정기 휴점하는 대신 최근 달아오른 세일 분위기를 온라인을 통해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롯데백화점도 정기 휴무일인 20일 인터넷 쇼핑물 롯데닷컴·롯데이몰·엘롯데몰에서 다양한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사이버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 총 100억원어치의 물량을 선보인다.

진호 롯데백화점 옴니채널팀장은 "백화점 휴일에도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자는 취지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 '티볼리' 상하이모터쇼 출격



쌍용자동차가 20일 중국 상하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상하이 국제모터쇼'에서 전락 모델 '티볼리'를 선보이며 급성장하는 중국 SUV 시장 공략에 나섰다. 티볼리는 중국 전역에서 '티볼리'라는 이름으로 6월부터 판매된다. 회사 측은 가솔린 모델을 먼저 선보인 뒤, 디젤과 4륜구동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 회생 불씨 살린 팬택, 넘어야 할 산은

공개입찰 세곳 인수의향...분리매각·기술 유출문제 불거질듯

팬택이 기사회생 가능성에 한 발짝 다가갔다.

17일 오후 3시 마감된 팬택 공개 경쟁입찰에는 국내외 업체 세 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지난해와 올해 이미 두 번의 입찰이 실패한 만큼, 사실상 이번이 팬택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접수 마감 하루 전인 16일 오후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 한 곳도 없었지만, 이날 접수 막바지 세 개 업체가 팬택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팬택은 다시 한 번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

해 있다. 앞서 올해 초 두 번째 입찰에서는 미국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 컨소시엄과 의 본계약 체결이 유력시됐지만, 컨소시엄이 인수대금을 송금하지 않으면서 매각이 실패한 바 있다.

업계는 앞으로 팬택 매각절차 진행 시 할당 매각과 분리 매각, 기술유출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이 3번째 매각작업인 만큼, 매각 성사를 위해 법원과 매각관리사가 인수후보자 외의 가격협상에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1500억원에 이르는 높은 인수금액(팬택

청산가치)은 팬택 매각 지연의 주된 요인이었다.

인수금액 조정이 이뤄진다면 분리매각 이슈도 재등장할 수 있다.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겠지만 매각 성공을 위해서 분리매각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다. 또 미국 업체가 인수전에 뛰어드 만큼, 해외 업체로 매각될 경우 기술 유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인수의향서가 접수되면 주간사별 서류 검토 후 투자 설명서와 입찰 안내서가 발송된다. 이후 입찰서류 접수 및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자로 제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gujy@

## 이통3사, 갤럭시S6·엠티지 3사 3색 전략

KT, 가입자당 매출에 초점

LGU+ 공시지원금 업계 최고

SKT, 현 가입자 지키기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엠티지를 출시한 뒤 각각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다소 공격적인 모드라면 SK텔레콤은 수세적인 자세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갤럭시S6와 갤럭시S6엠티지 출시 이후 전략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KT는 가입자당 매출 지표인 알파(ARPU)에 초점을 둔 마케팅 전략에 힘을 쏟고 있다. 시장점유율 3위인 LG유플러스는 시장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가입자를 지키는 방향에서 마케팅 전략을 잡고 있다.

우선 KT는 지난 17일 공개한 보조금 공시에서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지원금을 신고 있다. 이는 양보다

질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KT의 경우 상대적으로 9만원대 이상의 무한요금제에 지원금을 더 보냈다.

KT 관계자는 "특별히 고가요금제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당 매출실적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는 '순 완전 무한 99'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S6 32GB의 보조금을 32만7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6만~8만원대 요금제에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엠티지의 공시지원금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금을 변경했다. 시장점유율에 방점을 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LTE 69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S6 64GB의 경우 17만원으로 경쟁사 대비 최소 5000원부터 최대 9만2000원이 넘는 지원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와 달리 방어적인 전략이 묻어나고 있다.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방향에서 보조금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양창규 기자 yangck@

## D램 이어 낸드 잠은 삼성전자, SSD 매출 '인텔+샌디스크'

작년 매출액 40억달러 육박  
세계 시장 점유율 34% 달해

삼성전자가 가파른 SSD(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성장세를 바탕으로 낸드플래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독보적 선두 자리를 확보하며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일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SSD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매출액

은 전년(20억5200만 달러)보다 94.7%(19억4400만 달러) 급성장한 39억9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3억 인텔(19억9000만 달러)과 샌디스크(19억1500만 달러)의 매출을 합한 것보다 많다.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의 빠른 성장 속도다. 인텔과 샌디스크는 지난해 2013년 대비 5억 달러 안팎의 매출 증가에 그쳤지만, 삼성전자는 두 기업보다 4배 이상 많은 매출 확대를 달성했다. 매출 성장률을 놓고 보면 2억 인텔의 3배에 달한다.

매출액이 두 배가량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세계 SSD 시장점유율은 8%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점유율 역시 인텔과 샌디스크의 두 배 수준이다.

SSD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 이어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확고한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IH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매출액과 점유율을 전년 대비 각각 4%, 0.1%포인트 끌어올리며 선두를 유지했다.

앞으로 SSD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 작년 세계 SSD 시장매출액 및 점유율 추이



상되는 만큼,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주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IHS에 따르면 전체 저장장치 시장에서 SSD 점유율(매출 기준)은 지난해 26.3%에서 2018년 41.3%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영 기자 gujy@

## R&D에 1억도 안 쓴 국내 제약사

대한약품 8606만원 사용  
매출의 0.07%에 불과

국내 제약사 중 일부는 R&D 투자에 인색하다 못해 연구개발비가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약업계 및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 제약사(이하 12월 결산 법인) 중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대한약품으로 0.07% 불과했다. 지난 한 해동안 R&D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8606만원으로 1억원이 채 안됐다.

대한약품의 경우 최근 3년간 R&D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2012년에는

10억원이 조금 넘었던 R&D 비용이 다음해인 2013년 1억원 가량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난해도 대폭 줄었다.

다음으로 적은 곳은 수혈생명과학으로 지난해 R&D 비용이 4억6631억원에 불과했다. 수혈생명과학 외에 지난해 R&D 비용이 10억원 미만인 제약사는 △경남 제약(8억6465만원) △화일약품(5억6500만원) △우리들제약(5억4825만원) 등이었다. 이들 중 경남제약(2.4%)을 제외하곤 모두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1%대거나 그 미만이었다.

지난해 상장 제약사들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평균 8.2%였다.

김인호 기자 kangin@

# 수도권 부럽잖다... 광역시도 분양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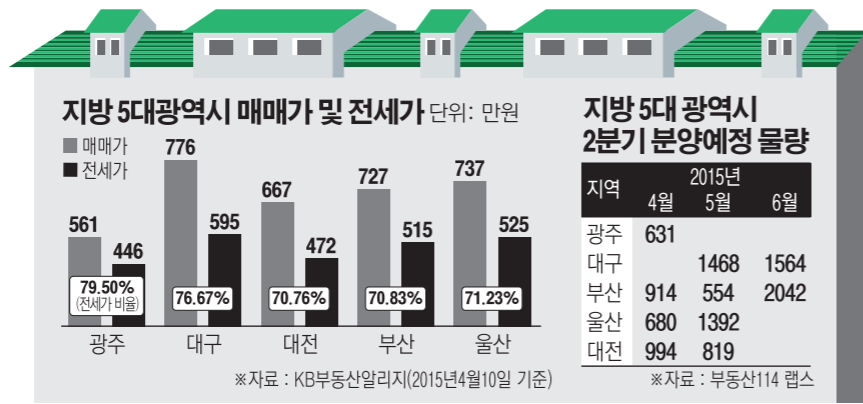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5곳〉

전국에서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방 5대 광역시의 분양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KB부동산알리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5대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의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은 70%를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전세가율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도 치열하다. 지방 청약 열풍의 주역인 울산, 대구, 부산의 경우 작년 아파트 순위 내 청약 경쟁률 전국 1-3위를 싸늘이했을 정도다. 3곳의 청약경쟁률은 △부산 21.04대 1 △대구 14.52대 1 △울산 14.09대 1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청약 마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1분기에 공급된 단지 4곳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지난 2월 분양된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광로제비앙'은 154가구 모집에 1만791명이 몰려 평균 70대 1을 기록했으며, 3월 광산구 수완 지구에 공급된 '수안채리치'는 평균 10.6대 1로 마감됐다. 또 지난달 20일 나란히 문을 연 북구 각화동 '골드클래스'와 북구 본촌동 '이안 광주첨단' 역시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 전셋값 급등에 저금리 '이참에'... 탄탄한 생활 인프라 열기 더해 대구 '신천동 유보라' 울산 '복산 아이파크' 등 1만여 가구 공급

울산 중구에서는 최근 전세를 접수한 '약사 더샵' 역시 138가구 모집(특공 제외)에 2만4335명이 몰리며 평균 176.3대 1을 기록했고, 대전 관저지구에서 공급된 '관저 에미지'도 평균 4.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다.

5대 광역시의 경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서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특히 2012년 2월 이후 광역시의 1순위 자격이 6개월로 완화되고, 높은 전세가에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선 수요자들이 초기 목돈 부담이 적은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웃돈도 불고 있다. 작년 11월 광주 북구 풍향동에서 분양했던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경우 현재

2000만~3000만원가량 웃돈이 형성돼 있으며, 올해 2월 공급된 '대광로제비앙' 역시 2개월 만에 15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이 외에도 대구에서 올 초 입주를 시작한 '월배 아이파크'의 경우 전용 84㎡ 기준 1억 2000만~3000만원가량의 높은 웃돈이 붙은 상황이다.

올해 2분기에는 이들 광역시에 1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될 예정인 물량은 총 1만1058가구다.

이중 눈여겨볼 만한 단지는 △소촌동 모아걸 에듀퍼스트(광주) △신천동 반도유보라(대구) △광안 더샵(부산) △호계 한양수자인 2차(울산) △복산 아이파크(울산) 등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거래가 활발해지고 신규 공급 아파트에 수요자가 몰리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부동산 청약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역에 따라 세부입지, 분양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ipjoo@

## 의정부민락2 단독주택용지 '최고 1325대 1'

LH, 13필지 매각 3416명 신청

제한 및 2000만원의 신청예약금에도 평균 9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민락2 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종교, 보육시설용지 총 13필지에 대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3416명의 신청자가 몰려 전 필지가 마감됐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일 의정부민락2지구 단독주택용지 11필지, 보육시설용지 1필지, 종교용지 1필지 총 13필지를 청약 신청받은 결과, 단독주택용지 평균 307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전망 매각했다.

특히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중 의정부민락2지구 동서를 관통하는 민락천을 따라 조성된 민락동 820-1번지의 경우 최고 경쟁률인 1325대 1을 기록했다.

이 토지를 포함해 단독 4블록 3필지에 무려 2926명이 신청, 1인 1필지 신청자격

의정부민락2지구는 금오, 송산, 민락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의정부시 동부권 신시가지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구를 관통하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로, 지구 오른쪽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2017년 완공 예정) 등으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상태다.

현도관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의정부민락2지구 내 분양 토지는 대금 원납 후 즉시 토지 사용이 가능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는 데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면서 "무엇보다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분양 호조 등으로 입증된 안정된 분양성과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개발 전망이 더욱 기대되는 지구"라고 강조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4/20 (월)	접수	전남	여수시	소라면	여수축림양우내안애 2순위	061666-6661	
			서울	종로구	교남동	경희공자이 4	1800-8577
4/21 (화)	접수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오목천동서희스타힐스 1순위	031)298-2100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푸르지오3차(6호) 1순위	1800-0086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1순위	051)638-3030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드림파크3차 (~4/23)	02)868-1616
4/22 (수)	접수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2신도시2차푸르지오(A-1) (~4/23)	1899-6577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인천연수서해그랑블 (~4/23)	1670-0855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신금호파크자이 1순위	1800-6500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오목천동서희스타힐스 2순위	031)298-2100
4/23 (목)	발표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푸르지오3차(5호) 2순위	1800-0086	
			경기	용인시	역북동	용인역북지구우미린센트럴파크 1순위	031)321-7900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2순위	051)638-3030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역푸르지오	1800-0207
4/23 (목)	접수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드림스카이	031)633-1005	
			인천	남동구	서창동	e편한세상서창(공공분양)	032)468-8288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신금호파크자이 2순위	1800-6500
			서울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백련산4차 1순위	02)302-7203
4/24 (금)	접수	경기	광주시	태전동	광주태전아이파크 1순위	031)797-3222	
			경기	용인시	역북동	용인역북지구우미린센트럴파크 2순위	031)321-7900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화성남양2차양우내안애에듀타운 1순위	1670-5200
			부산	수영구	광안동	부산광안더샵 1순위	051)7474-580
4/24 (금)	발표	세종	세종시	보람동	세종3-2생활권대방노블랜드(M3) 1순위	1688-7730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신신(신도시)B(10)	031)434-1011
			서울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코오롱하늘채	1899-8774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신일메트로	02)3489-6755
4/24 (금)	오전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번도유보라이아비파크(B10)	1800-1991	
			경기	파주시	아랑동	운정신도시롯데캐슬파크타운(A27-1)	1899-2266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인천서창2지구호반베르디움(9BL)	1688-3269
			서울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백련산4차 2순위	02)302-7203
4/24 (금)	접수	경기	광주시	태전동	광주태전아이파크 2순위	031)797-3222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화성남양2차양우내안애에듀타운 2순위	1670-5200
4/24 (금)	발표	세종	세종시	보람동	세종3-2생활권대방노블랜드(M3) 2순위	1688-7730	

\* \* = 오피스텔,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 자료: 부동산114

4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 걸쳐 1만 가구에 육박하는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20일부터 24일 까지 전국 13개 사업장에서 991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호동2가 '신금호파크자이' 1156가구, 양양동 '힐스테이트백련산4차' 963가구, 경기 용인 역북지구 '우미

린센트럴파크' 1260가구 등 총 7023가구에 분양물량이 풍성하다. 지방은 부산 은전동 '동래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582가구, 세종 보람동 '세종3-2생활권대방노블랜드' 1002가구 등 2887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 화성시 능동 '동탄해리움' 956실 오피스텔을 눈여겨볼 만하다. 박태진 기자 tjipjoo@

## 주목! 이곳

###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

# 초·중·고교 걸어서 통학 가능 뛰어난 교육환경 맹모들 '들썩'

현대건설이 지난 17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는 지하 4층~지상 15~19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63가구 규모로 이 중 521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59㎡A·B 7가구 △84㎡A·B·C 514가구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돼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백련산 1~3차 3221가구의 분양을 완료했으며, 이번 4차 분양으로 총 4184가구의 힐스테이트 대단지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무엇보다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는 초·

전용 59-84㎡ 521가구 일반분양

분양가도 3.3㎡당 1400만원 저렴

층간소음 저감재 강화·천장고 높여

쾌적한 생활... 입주민 배려한 설계

중·고등학교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입주민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현대건설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응 설계기준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재를 일반적인 기준인 20mm에서 30mm로 강화해 적용했다. 또한



17일 오전 힐스테이트 백련산4차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

천장고를 2350mm(우물천장 2480mm)로 높여 개방감도 확보했다.

최현철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 분양소장은 "이번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의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대로 책정됐다"며 "최근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함께 84㎡의 경우 계약

금 정액제(2000만원)로 운영된다. 또한 베란다 확장도 700만원대로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운영된다.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의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35(응암초등학교 뒤편)에 개관했고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30일 발표하며 계약기간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1시간 속성 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셰일가스 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제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UB, J유엔제이 번역  
한국판 | 199쪽 | 20,000원

#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지식...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외교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 youngsh@etoday.co.kr

# 중 경기부양 초강수 '단번에 1%P'

지급준비를 인하...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큰 폭  
경제성장 목표 7% 달성 위해 기준금리도 곧 내릴 듯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 심화에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중국 인민은행이 19일(현지시간)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종전 대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형은행 지준율은 종전 19.5%에서 18.5%로 낮아졌다. 농업발전은행 지준율은 종전보다 2%포인트 인하했다. 새 조치는 20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시장은 이번 지준율 인하폭이 일반적인 0.5%포인트가 아니라 단번에 1%포인트로 확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12월 1%포인트 인하 이후 가장 큰 폭의 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 심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준율은 은행이 받은 예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이 비율을 낮추면 은행 자금 부담이 덜어지면서 대출 확대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생긴다. 저우사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 기간 기자회견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펼칠 우려가 있으나 우리는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저우 총재의 말과 다르게 인민은행은 경기둔화 심화를 막고자 바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하 조치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달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가 7%라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경기부양책이다. 리 총리는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관측과 중국의 자금 해외 유출 추이도 이번 지준율 인하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중국의 지난달 광의통화



(M2)는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로 올해 목표인 12% 증가율을 밑돌았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산업생산 증가율은 5.6%로 2008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 1분기 GDP디플레이터(포괄적인 물가지표)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영역에 진입하는 등 경기둔화는 물론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물 경제에 돈이 제대로 유입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 7%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만큼 고용시장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금융시장 개방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경기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준율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각각 두 차례 낮췄다. 헬렌 차오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준율 인하는 정책결정자들이 자본 유출 충격에 대비하고 거시경제 환경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1%포인트 인하는 급속한 경기둔화에 완화정책 강도도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이번주 뉴욕증시 향배 그리스·기업실적이 열쇠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주 수익, 감소·소폭 증가 예상  
24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주목

이번 주(4월 20-24일)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과 그리스 문제가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그리스 불안 재고조에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어서 차익실현 매물 움직임이 나온 것도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1.3%, S&P500지수는 1%, 나스닥지수는 1.3% 각각 하락했다. 이번 주에는 S&P500 기업 가운데 147곳이 실적을 발표한다.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도 쏠아진다. 달러화 강세로 IT 기업 대부분의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언 비저 피보탈리서치 애널리스트는 "구글이 이번주 실적을 발표하는 IT 기업 중 매출과 규모 면에서 다른 기업을 앞서지만 진정한 스타는 페이스북이 될 것"이라며 "페이스북은 프리미엄 콘텐츠의 현금화와 광고 분야에서의 존재감 강화, 인스타그램 사업화, 메신저와 와츠앱 등이 다양한 부문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스가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약 8조4000억원)를 받으려면 개혁안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금과 고용시장 부문에서 이견이 너무 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리스

美 주간 경제지표 발표 일정  
기간: 4월 20일-24일  
\*자료: 블룸버그(현지시간 기준)

발표일	시간	경제 지표	이전 수치	예상치
20일	오전 8시30분	3월 시가총액 연준 국가활동지수	-0.1	0.2
21일	오전 9시	2월 FOMC 주택가격지수	0.3%	0.6%
	오전 10시	3월 기준주택 매매	488만채	504만 5000채
	오전 8시30분	주간 신규 실업 수급 청구건수	29만 4000건	28만 6000건
	오전 9시45분	4월 마켓트 제조업 PMI예비치	29만 4000건	28만 51만
23일	오전 10시	3월 신규주택 매매	55만 9000채	51만 8000채
24일	오전 8시30분	3월 내구재 주문	-1.4%	0.5%

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결국 디폴트(채무불이행)는 물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Grexit)'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부상하면서 지난 17일 그리스의 3년 만기 국제 금리는 전일보다 0.25%포인트 오른 연 25.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금리(13.56%)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10년 만기 국제 금리도 12.51%로 올해 들어 3%포인트 이상 올랐다. 같은 날 그리스의 5년 만기 외환환평형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왑프리미엄은 미국 뉴욕시장에서 3402.63bp(1bp=0.01%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1124.89bp)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모바일 친화' 검색엔진... 구글發 모바일겟돈 온다

모바일 최적화 콘텐츠, 검색결과 상위에... 소비패턴 변화 우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인 구글이 21일(현지시간)부터 '모바일 친화형'으로 검색엔진을 개편한다고 1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업데이트 작업은 대략 1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작업이 시작되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PC, 노트북 검색이 아닌 모바일 검색 결과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해져 사용자 환경이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검색결과에서 앞으로 노출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의 업데이트가 이뤄지면 모바일에 친화적이지 않는 웹사이트는 검색결과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즉,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라도 모바일에 최적화되지 않으면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아 낮은 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미 세계 검색엔진 1위를 자랑하는

구글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구글의 검색 엔진 개편이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번 조치를 아가렛 돈과의 합성어인 '모바일겟돈(Mobilegeddon)'에 비유하고 있다. 영국 온라인 마케팅 기업 관계자인 가브리엘 리나리는 "구글의 이번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모바일에 최적화되지 않은 웹사이트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모바일에 얼마나 최적화 되어있느냐에 따라 검색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구글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독려했다. 이는 모바일 검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PC를 통한 검색 비율은 점차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디지털제품 시장조사업체인 컴스코어(comScore)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전체 인터넷 검색 건수 가운데 29%인 185억 건이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 美 '오콜라호마시티 폭탄테러 참사' 20주기



미국 오콜라호마주에서 열린 19일(현지시간) 한 모자가 오콜라호마시티 폭탄테러 참사에 희생된 가족의 묘 앞에서 부둥켜안고 있다. 1995년 4월 19일 미국 육군 출신의 사교집단 광신도이자 반(反)정부주의자인 마커시 맥베이는 오콜라호마시티 알프레드 유라 연방건물 청사 밖에 주차된 트럭에 폭탄을 장착해 건물을 폭파시켰다. 168명이 사망하고 약 600명이 다친 이 테러는 자생적인 테러범에 의해 자행된 최대의 테러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오콜라호마시티/로이터연합뉴스

# 중시장용 신차 개발 GM, 17.4조원 쏟아

"5년내 시장점유율 10% 목표  
연료소비 25-30% 줄일 것"

미국 자동차제조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향후 5년간 중국시장용 신차 개발에 1000억 위안(약 17조4600억원)을 투자한다고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29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2015 상하이모터쇼'를 하루 앞둔 이날 왕 웡칭 상하이GM 대표는 "2016-2020년의 기간에 연간 10개의 신모델을 개발하고 기존보다 개선된 제품을 출시하고자 투자규모를 1000억 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40개의 제품 라인을 확보해 중국 시장점유율 최소 10%에 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상하이GM은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와 합작한 회사로 10개 이상의 신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까지 투자금 가운데 265억 위안을 투자해 친환경자동차인 '뉴-에너지 모델' 10개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왕 상하이GM 대표는 "상하이GM은 차량 연료소비를 25-30%가량 절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북극과 세베르 모랄에 매년 10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2015 상하이모터쇼'에는 세계 18개국의 업체가 참가해 100대 이상의 신차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 코카콜라, 6년 만에 중시장 재도전

현지 곡물음료업체 인수

최근 성장 둔화에 고전하고 있는 미국 코카콜라가 중국조양왕음료의 음료 사업 부분을 4억5000만 달러(약 433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년 전 중국 과즙음료 업체 인수에 나섰다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로 무산된 이후 중국 본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카콜라의 첫 인수합병(M&A)이라고 WSJ는

전했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조양왕음료의 음료 사업 부문은 팔과 호두, 귀리 등을 원료로 한 곡물 음료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최근 세계적인 웰빙 열풍으로 실적이 고전하면서 과즙 음료와 생수 등 비탄산 음료 비중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코카콜라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불과 2% 증가에 그쳐, 2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중 기업구조법 개정예 IT기업 비상

중국 국적 인사 경영권 필수  
다수 IT기업 사업 리스크로

중국 상무부가 기업구조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어 외국 IT기업은 물론 현지 IT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이 개정되면 현재 주요 외국기업과 미국증시에 상장된 일부 중국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합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새 법안의 핵심은 변동지분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y)로 불리는 지배구조 하에서도 중국 국적 인사가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VIE는 자본 관계가 아닌 용역과 기술, 임대 계약 등을 통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IT기업들은 이른바 '100% 외자법인(WFO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을 설립하고 다시 이 법인이 VIE와 계약을 맺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알리바바그룹홀딩과 바이두 등 중국 IT 메이저업체들도 같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들은 경영권이 중국인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새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존과 피어스, CBS 등 외국업체는 물론 시나와 웨이보, 오토홀 등 일부 중국기업들이 현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지분 일부를 중국인에게 넘겨야 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WSJ는 경고했다. 아마존닷컴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VIE 지배구조에 대한 규정 변경이 중국사업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나와 웨이보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했지만 오토홀은 호주 텔레스트라가 지배주주 위치에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법안 초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중국 정부가 다른 분야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VIE 관련 규정이 바뀌더라도 업체들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글로벌 車업계 격전지 된 멕시코

낮은 임금·물류환경 개선 등 이점  
도요타·포드 등 현지생산력 강화

멕시코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4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교역 관계, 낮은 임금, 개선된 물류환경이 이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는 멕시코에서 가동 중인 2개 공장의 제조라인을 증설하는데 25억 달러(약 2조7000억원)를 투자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포드의 이번 투자로 일자리 3800개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과나후아토는 최근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도 공장 신축 계획을 발표했던 지역이다. 도요타는 과나후아토 공장을 완공한 후 오는 2019년부터 '코롤라'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같은 추세에 '원조' 자동차 시장 경쟁지역 미국에서는 볼벤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은 "제너럴모터스(GM)가 멕시코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을 비롯해, نيسان, 혼다, 도요타 등이 멕시코에 투자한다는 사실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서지희 기자 jhsseo@

미셸 위·산드라 갈·렉시 톰슨·제시카 코다...

# LPGA 또 다른 볼거리 '미녀군단'

호쾌한 샷에 '볼륨 몸매' 흥행카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엔 또 다른 볼거리가 있다. 흰철한 신장에 모델 뺨치는 몸매를 자랑하는 미녀 군단이다. 신장 183cm의 미셸 위(26·미국)와 산드라 갈(30·독일)을 비롯해 미국의 차세대 기대주 렉시 톰슨(20), 제시카 코다(21), 그리고 LPGA투어 새 흥행카드로 떠오른 재미동포 엘리슨 리(19·한국명 이화현) 등이 주인공이다.

호쾌한 드라이버샷과 시원시원한 외모가 돋보이는 미셸 위는 시즌 초반 부진했지만 고향 하와이에서 열린 롯데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살아나는 모양새다. 지난해 US여자오픈 포함 2승을 거두며 제2의 전성기를 활짝 연 그는 늘 갤러리를 끌고 다니는 LPGA투어 대표 흥행카드다. 상체 라인과 지면이 수평이 될 만큼 바짝 웅크린 퍼트 자세도 화제를 모았다.

역시 흰철한 신장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산드라 갈은 올 시즌 KIA 클래식 공동 29위, ANA 인슈어런스 공동 45위 등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늘 LPGA투어 흥행의 중심에 서있다. 모델을 연상케 하는 시원시원한 외모와 화려한 필드 패션 덕이다. 어릴 적부터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나타냈지만 골프로 두각을 나타낸 건 성인인 뒤 이후다. 2008년 LPGA투어에 데뷔해 2011년 KIA 클래식에서 첫 우승했다.



미셸 위

산드라 갈

렉시 톰슨

무엇보다 LPGA투어 새 흥행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골프전문지 골프다이제스트 5월호 표지로 등장한 렉시 톰슨은 수건으로 가슴만 가린 매혹적인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는 스폰서인 푸마의 광고 모델로 비키니를 입고 두 명의 남성과 육조에 얽은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톰슨은 골프보다 외모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 2007년 12세의 나이로 US여자오픈에

출전한 전채 골프 소녀였다. 2012년에는 17세의 나이로 나비스타 클래식 우승을 차지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올해는 ANA 인슈어런스 7위, KIA 클래식 공동 10위에 올랐다. 신장은 183cm다. 신장 170cm에 인형 같은 외모를 자랑하는 제시카 코다 역시 실력과 미모를 겸비해 인기다. 2012년 호주 여자오픈에서 프로데뷔 첫 우승했고, 지난해는 에이버시 클래식에서 우승,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 '역전의 명수' 김세영 시즌 두 번째 '역전V'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한때 박인비에 2타 뒤지며 2위  
합계 11언더 277타로 연장전 돌입  
샷이글로 마무리하며 우승 확정  
상금순위·신인왕 포인트 현재 1위  
올 시즌 한국(계)선수 7승째

역시 '역전의 명수'였다. 김세영(22·미에셋)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올 시즌 자신의 두 번째이자 한국(계) 선수 7번째 우승을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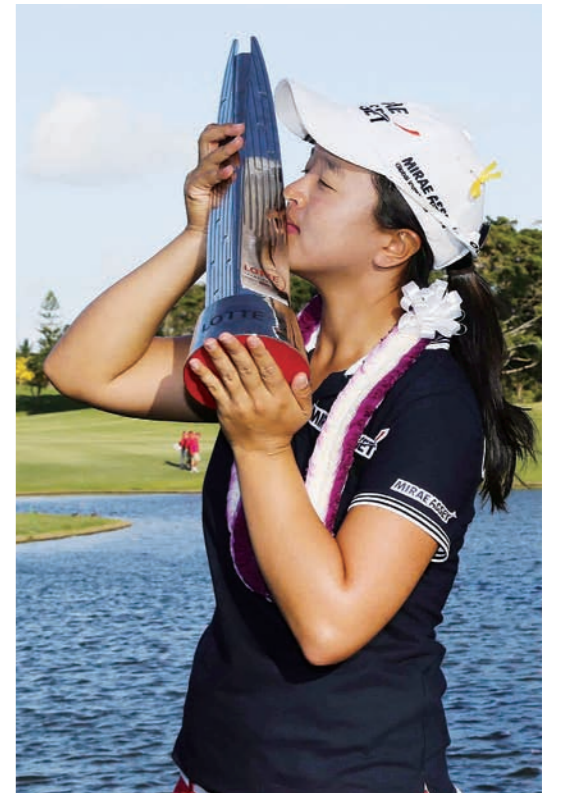
김세영은 1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오아후섬의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6383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아홉 번째 대회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180만 달러·약 19억7000만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1오버파 73타를 쳐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67-67-70-73)로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공동 선두를 이룬 뒤 가진 연장전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세영은 지난 2월 바하마 클래식 우승에 이어 생애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올 시즌 LPGA 투어 첫 다승자가 됐다. 두 번 모두 바람이 많은 휴양지에서의 연장 승부 끝에 달성한 우승이다.

1번홀(파5) 버디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인 김세영은 2번홀(파4) 보기에 이은 3번홀(파4) 더블보기로 한 조에서 플레이한 박인비, 김인경(27·한화)에 공동 선두를 허용하며 예측불허 승부를 예고했다.

5번홀(파5)에서는 버디로 한 타를 만회했지만 7번홀(파4) 보기로 다시 한 타를 잃는 등 좁혀진 안정감을 찾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박인비는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갔고, 한때 두 타 차까지 벌어지며 우승을 내주는 듯했다. 그러나 김세영은 '역전의 명수'란 별명이 그냥만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11번홀(파4) 버디 이후 17번홀(파4)까지 과로 막으며 반전을 노렸다. 그리고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거짓말 같은 드라마를 완성했다.

김세영이 티샷한 볼은 워터 해저드에 빠진 반면 박인비의 볼은 워터 해저드 근처 긴 풀에서 멈춰 있었다. 결국 김세영은 한 타를 잃고 세 번째 샷을 시도, 그린 플랜지 부근에 보내는 데 만족했다. 박인비는 세컨샷으로 그린에 올린 뒤 버디 퍼트를 절묘하게 컵에 붙여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김세영은 그린 플랜지 부분에서 시도한 집샷을 거짓말처럼 컵에 넣으며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김세영은 같은 홀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홀에서 154야드 세컨샷을 샷



19일(한국시간) 하와이 오아후섬에 위치한 코올리나 골프장에서 열린 2015 롯데 챔피언십 FFR에서 김세영 선수가 우승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

이글로 마무리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동안 얼얼얼한 표정을 지낸 김세영은 캐디와 기쁨을 나누며 포효했다.

강력한 드라이버샷과 정교한 아이언샷을 동시에 겸비한 김세영은 지난 2010년 제니아 투어(2부)를 통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 데뷔, 2011년과 2012년은 우승 없이 상금순위 40위와 3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3년과 지난해에는 총 5승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골프의 차세대 주역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에는 장하나(23·비씨카드)와 함께 캘리포니아 토너먼트(QT)를 통해 올 시즌 정식으로 LPGA투어 무대에 뛰어 들었다. 우승상금 27만 달러(약 2억9000만원)를 쟁긴 김세영은 리디아 고(18·캘리포니아)와 스테이시 루이스(30·미국·2위)를 제치고 상금순위 1위(69만9735달러·약 7억5000만원)로 올라섰다. 김세영은 또 로랙스 올해의 선수(85)와 신인왕 포인트(626)에서도 각각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국(계) 선수들은 이번 김세영의 우승으로 올해 열린 9개 대회 중 7승을 장식했다. 올 시즌 한국(계) 선수들은 개막전 우승자 최나연(코즈골프 챔피언십)을 비롯해 리디아 고(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 양희영(26·혼다 LPGA 아일랜드), 김효주(JTBC 파운더스 컵), 박인비(HSBC 위민스 챔피언십), 김세영(바하마 클래식·롯데 챔피언십)이 각각 우승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 어른들의 장난감이 완벽해졌다!

270가지 우드조합과 64가지 아이언 조합이 만드는 환상의 퍼포먼스!  
TOUR WORLD TW727



(주)호마골프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9-8 세원빌딩 1,2층 | Tel : 02-2140-1800 | www.honmagolf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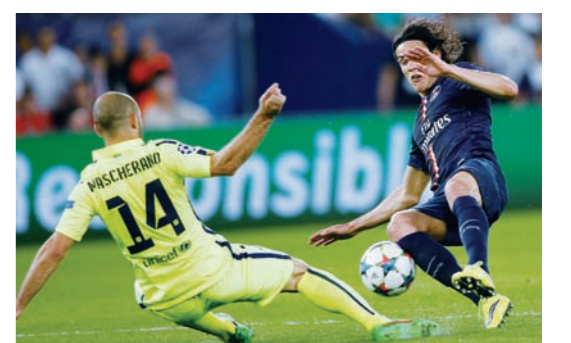
# 바르샤에 '복수' 버르는 PSG 마드리드 vs 마드리드 승자는?

22·23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파리 생제르맹(PSG)은 FC 바르셀로나에 복수할 수 있을까. PSG는 22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캄프 누에서 열리는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바르셀로나와 맞붙는다. PSG는 16일 열린 1차전 홈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 1-3으로 패해 3-0으로 승리해야 4강에 진출한다. 3-1 승리 때 연장 승부를 펼친다.

PSG로선 4강행이 가시밭길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이번 경기에는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34)와 마르코 베라티(23), 티아고 모타(33) 등 주축 선수가 합류한다. PSG가 1차전에서 느낀 이브라히모비치의 빈자리는 컸다. 에딘손 카바니(28)가 홀로 고군분투했지만 바르셀로나의 골문을 열기엔 역부족이었다. 티아고 모타가 없는 중원도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에 압박을 주지 못했다. 로랑 블랑(50) 감독은 "2차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생제르맹을 보게 될 것이다"며 "이브라히모비치와 베라티가 징계에서 돌아오고 부상 선수들도 복귀하면 달라진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비 불안은 여전하다. 수비의 핵심 티아고 실바(31)가 부상으로 빠졌고, 다비드 루이스(28)의 완전한 회복엔 시간이 필요하다.

바이에른 뮌헨은 22일 독일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15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린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경기에서 FC 바르셀로나의 마스체라노(왼쪽)와 파리 생제르맹의 에딘손 카바니가 공을 두고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FC 포르투와 2차전 경기를 펼친다. 1차전에서 포르투에 1-3 대패를 당한 뮌헨은 프랑크 리베리(32),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31), 아르넌 로빈(31)의 복귀에 희망을 걸고 있다. 0-0 무승부를 기록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 마드리드)는 23일 스페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4강행 티켓의 주인을 정한다. 마르셀로(27·레알 마드리드)와 마리오 수아레스(28·AT 마드리드)의 빈자리가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안 오블락(22·AT 마드리드)의 선방요소가 펼쳐질지도 기대된다.

정수현 기자 int100@

# ‘한은 독립’ 초석...노태우 정부와 대립각

### 김건 전 한은 총재 별세...외환관리·자금부장 등 역임 ‘중앙銀 중립성보장추진위’ 결성...100만 서명운동도

중앙은행 독립의 토대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김건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6공화국 노태우 정부 초기에 한은을 이끌었던 고인은 1951년 한은에 들어가 외환관리 부장, 조사·부장, 자금부장, 부총재, 은행감독원장 등 요직을 역임한 정통 ‘한은맨’이다. 이후 1983년부터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988년 3월 진정으로 돌아와 4년간 제17대 한은 총재로 일했다.

그는 총재 재임 시절에 한은 독립의 토대를 닦았다. 영문 이름 이니셜인 ‘KK’로 흔히 불린 고인은 중앙은행 독립을 둘러싼 한은법 파동과 금리 자유화 논란의 중심에서 한은의 입장을 적극 주창했다.

고인은 민주화 바람이 불던 1988년 11월

1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 여당이나 야당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거리가 있다”고 주창해 파문을 불러왔다.

당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현 금융통화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재무부 장관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금통위는 정부와의 사전 조율에 따라 재할인을 결정 등의 주요 안건을 결정했었다.

한은 출신의 총재로서 ‘독립성 제고’라는 직원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었던 고인이 총대를 메고 한은 독립운동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셈이다.

이후 한은 직원들은 총재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중앙은행 중립



성보장추진위원회’를 결성, 전국 15개 도시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988년 11월 시작된 서명운동은 1989년 1월까지 2개월 만에 서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분출했다.

당시 한은에 재직하며 독립운동에 참여

했던 김학렬 연세대 특임교수는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한은의 독립을 외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김 전 총재는 직원들의 서명운동을 암묵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회상했다.

김 전 총재의 의견 표명과 한은 직원들의 움직임은 추후 1997년 말 한은법 개정을 위한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은 총재 퇴임 직후 1992년 6월부터 3년간 금통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씨의 막내아들로 1929년 6월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대전고과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뒤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광일씨와 아들 재민(동의대 교수), 성민(KAIST 경영대 교수), 황민(연세대 원주대 교수)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장지는 천안공원. (02)3410-6917 이진명 기자 mint@

# 이건희·이재용·서경배 세계 200대 부자 반열에

마윈·마화팅 등 中선 17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경배 이도림파티 회장

세계 200대 부자 가운데 중국인이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 부자 순위 집계한 블룸버그통신의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 시간) 기준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 등 중국 부자들은 자국 증시의 강한 랠리에 힘입어 재산이 급증했다. 100위 안에 들어간 중국인 부호 4명의 재산은 총 1039억 달러(약 112조원)로 올 들어 193억 달러 늘었다. 중국 증시 상하이종합지수가 올 들어 32.5% 상승한 영향이다. 홍콩 증시도 중국과 더불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텐센트의 마화팅은 201억 달러로 올 들어 재산이 약 40% 증가했다. 홍콩 증시에 텐센트 주가는 올 들어 41.2% 치솟았다.

세계 15위로 중국 최고 부자인 마윈 알리바바 회장 재산은 356억 달러로 약 25% 늘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가 약 19% 하락하는 등 부진했지만 금융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그룹의 급성장에도 회장 재산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세계 19위인 왕젠린 다렌안다그룹 회장 재산도 331억 달러로 약 32% 증가했다. 반면 리엔홍 바이두 회장(세계 64위) 재산만 151억 달러로 약 9% 줄면서 100위권 내 중국 부호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반면 한국 부호 3명 재산은 총 303억 달러로 14% 증가에 그쳤다. 한국에서는 이진희 회장이 135억 달러 재산으로 세계 81위를 차지했다. 서경배 회장은 88억 달러로 155위, 이재용 부회장은 80억 달러로 172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진희 회장의 재산은 올 들어 2.4%, 이재용 부회장은 0.7% 증가에 그쳤다. 반면 서 회장은 한류 열풍에 따른 회사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재산이 60.8% 급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박현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교보생명 시상식서 시 읊은 신창재 회장

# “고객 위한 헌신이 결국 나의 행복”

### 이해인 수녀 ‘친구야...’ 낭송 재무설계사 소명의식 강조

서울시는 공석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박현출(59·사진) 전 농촌진흥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현출 신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내정자는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30여년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근무하며 농업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등을 역임한 전문 행정가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수많은 좌절과 남모름 아픔을 이겨내고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재무설계사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시를 낭송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창재 회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교보생명 ‘고객보장대상’ 시상식에서 재무설계사를 격려하기 위해 이해인 수녀의 시 ‘친구야 너는 아니?’를 직접 낭송했다.

시 낭송을 마친 신 회장은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결과를 이뤄낸다”며 “이타심에서 비롯된 고객을 위한 헌신이 결국 나에게 행복감을 주고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생명보험은 사랑과 지혜, 틀을 지키는 도덕성이 갖춰져야 잘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재무설계사부터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회장은 “더 크게 성공하는 재무설계



17일 교보생명 ‘고객보장대상’ 시상식에서 신창재 회장이 이해인 수녀의 시 ‘친구야 너는 아니?’를 낭송하고 있다. 사진제공 교보생명

사가 되기 위해서는 명예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스스로 혁신해 진정한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회장이 시를 직접 낭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창립기념식 때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를 읊으며 난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2013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애송시로 알려진 조선시대 문인 이양연

의 한시 ‘밤눈(夜雪)’을 통해 건강한 보험 문화를 만들어가는 본보기가 되자는 뜻을 임직원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시를 낭송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책(음성도서)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문학을 후원하는 공익재단인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신 회장은 평소 시인, 소설가 등 문학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 ‘장애인 배려’ 실천하는 기업들

### 삼성전자, 손·팔 불편함 덜어주는 ‘컴퓨터 보조입력기구’ CJ제일제당, 음성 대신 영상통화 연결 ‘수화상담 서비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손이나 팔 동작이 자유롭지 않은 상지 장애인들이 컴퓨터 보조 입력기구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두웰(Dowell)’을 개발해 19일 공개했다.

개발에는 삼성전자의 대학생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멘토십, 디자인 멘토십 대학생들이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 임직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두웰은 헤드마우스, 트랙볼 등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 입력기구를 스마트폰과 연결,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서는 탭이나 드래그 등 터치 동작을 선택하고 하단에서는 메뉴, 홈, 뒤로 가기 등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식품업계 최초로 ‘수화(手話)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화 상담 서비스’는 수화를 사용하는 전문 상담원들이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문의 등을 영상통화를 통해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CJ제일제당은 이미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문자상담 서비스를 시작하며 비(非)음성채널 상담 서비스를 확대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 ‘수화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손이나 팔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웰’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위쪽). 수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이야기하는 상담원. 사진제공 삼성전자·CJ제일제당

다. 이로써 CJ제일제당은 ‘수화 상담 서비스’와 문자상담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판 등 총 3개의 비음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CJ제일제당 고객센터 우석재 부장은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소외 받는 소비자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애·김지영 기자 Lsa@

## 인사

◆해양수산부 △장관정책보좌관 정광복 김희곤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대통령비서실 과장 인민호 △공정거래위원회(과장 부국) 전종수

◆국민체육진흥공단 △단장 임명 (경륜경정사업본부)△경륜운영담당 이상혁 이급 승진 (공단본부)△감사실장 안경원 △인재경영실장 황용필 △경연지원실장 김광식 △기금사업실장 최상현 △투표권사업실장 우치욱 (스포츠제작사업본부) △스포츠사업실장 박선중 (경륜경정사업본부) △영업총괄센터장 김운수 △2급 승진 (공단본부) △시정개선실장 홍주훈 △인사팀장 최정렬 △기금평가팀장 차차남 △건설안전팀장 민도평 (스포츠제작사업본부) △문화사업실장 한종규 △지도자연수팀장 신광이 (경륜경정사업본부) △분당지점장 조남화 △대전지점장 허정석 △천안지점장 이기환 △공정팀장 이희철 △영등포지점장 안경찬 △경정관리팀장 용재명 △3급 승진 (공단 본부) △예산팀장 오정식 △대의협력팀장 김형석 △성과관리팀장 이동수 △자금운용팀장

김찬 △투표권전산팀장 김중준 (스포츠제작사업본부) △TDK조직위원회 대외지원국장 이민재 △국민체육사업팀장 김명미 △자격검정TF팀장 전주연 △광산골프장팀장 박정숙 △기념사업팀장 노태일 △고객지원팀장 이규석 (경륜경정사업본부) △시설팀장 정종철 △경륜선수지원팀장 김광재 △경륜심판팀장 박진전 △정보지원팀장 고반석 △방송팀장 송일교 (한국스포츠개발원) △시장개발팀장 최형도 △연구직 승진 (한국스포츠개발원) △수석연구원 황종학 △책임연구원 한태룡 △선임연구원 노용구 △서대별 정진욱 김영숙

◆강원도개발공사 △총괄팀장 허진욱

◆하이투자증권 (승진) △총괄담당 이사대우 김상경 △증권법인2팀장 김국환 △정보지원팀장 박정익 (전보) △복동지점장 이광재 △금융센터영업부장 신상영 △분당지점장 신현철 △삼삼역지점장 오세호 △대치지점장 이인규 △대송지점장 박상철 △서면지점장 이현동 △구포지점장 공대석 △마산지점장 박근성 △대구지점장 박석훈 △창원지점장 황영민 △증권법인1팀장 함승일

◆고려대학교 △교육부총장 이남호

## 부음

▲강민구(부산지방법원장)·승구(삼성전자 사무서) 모친상 = 18일, 경북 김천의료원,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54-429-8285

▲박인수(전 수원지검장)씨 별세, 민홍기(민홍기안과 원장)씨 장인상 = 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9시 30분, 02-3010-2251

▲이순환(전 감사원 심의실장·전 중앙통신평의 대표이사 사장)씨 별세, 이정수(미국 거주)·상수(미국 거주)씨 부친상, 김교국(전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재일(전 서초고 교사)·양명두(열린장로교회 담임목사)씨 장인상 = 1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2227-7500

▲김원호(전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성호(사업)·동호(사업)씨 부친상 = 18일, 서울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2072-2020

▲안상환(한국수출입은행 타슈켄트 사무소장)씨 부친상 = 19일, 경북 울진 오차드 요양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54-787-1206

▲이덕성(전 한신상호신용금고 감사)씨 별세, 이상엽(BC카드 과장)·현주(KB국민

은행 과장)씨 부친상, 김영수(케어ENG 대표)씨 장인상, 이은화(GE 전무)씨 시부상 = 1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2-2227-7580

▲윤정주(안암스포츠센터 대표)·숙경·수진(메이커비디오투니스 대표)씨 부친상, 조동운(한울에드컴 대표)씨 장인상 = 19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2-923-4442

▲김영진(전 제텍스 부장)·영권(전 한솔제지 상무)씨 모친상, 유연근(전 성원건설 이사)·유창민(전 대양상호신용금고 부장)·최영호(엔테크 대표)씨 장모상 = 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37

▲송형관(CBS 문화체육부서) 모친상 = 19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7시, 064-742-5000

▲윤아영(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씨 부친상 = 19일, 서울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 02-2072-2033

▲오은주(잠실고 교사)씨 별세, 최재봉(LG하우시스 전문위원)씨 부친상 =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9시, 02-3010-2230

# 소리꾼 장사익, 1집앨범 분쟁 2심서도 패소

### “장씨 악보 그릴줄도 몰라 음반제작사로 볼수 없어”

가수 장사익(사진)이 대표곡 ‘절댓값’ 등이 수록된 1집 앨범의 복제와 배포 권리를 놓고 음반제작사 측과 법정 다툼 끝에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메가일 부장판사)는 20일 장사익이 A레코드와 B 미디어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사익은 A레코드의 실소유자인 안모씨와 전속계약을 하고 1995년 첫 앨범 ‘하늘로 가는 길’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회사에서 2집 앨범까지 내놨으나 1998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레코드 측은 2001년



다른 음반사 B미디어에 장사익의 1집 앨범에 대한 제조·판매 권리를 팔았고, B미디어는 장사익의 앨범 CD를 만들어 판매했다. 이에 장사익은 자신의 저작권점권을 침해했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와 관련해 “모든 제작비용을 부담한 A레코드의 안씨가 저작권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장사익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장사익이 마흔이 넘은 신인가수로 악보를 그릴 줄 몰랐고 음반 제작 경험도 없었기에 그를 1집 음반의 제작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공병호의  
독서산책

미치오 가쿠 '마음의 미래'

“미래의 제국은 정신의 제국일 것이다.” 윈스턴 처칠이 오래전에 했던 말이다. 결국 모든 혁신과 창조 그리고 행복은 인간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정신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떻게, 결출한 이론 물리학자로서 오랫동안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미치오 가쿠의 '마음의 미래' (김영사)는 인간 정신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담은 책이다.

10여년 전에 미치오 가쿠는 미래에 대한 전망서를 펴낸 적이 있는데, 정쟁한 명망가들이 만나서 인터뷰를 갖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책이었다. 이번에 펴낸 인간 정신에 대한 책 역시 정신에 대한 연구자들이 총출동했다고 말할 정도로 포괄적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한다. 저자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의식의 가장 큰 차이는 미래 전망이라고 말한다. 이를 두고 심리학자인 대니얼 길버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 두뇌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체나 시간을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능력 덕분에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인간의 두뇌를 ‘미래를 만드는 예측 기계’라고 했다.

이런 뇌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뇌 스캔 기술이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상당 수준까지 보여 줄 정도로 발전했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기술의 발전이 이를 가능케 한다. 과학자들은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는지를 읽을 수 있고,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생각을 물건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지가 마비된 환자들도 뇌에 이식된 컴퓨터 칩을 이용해 생각만으로 웹서핑을 하더라도 이것이 휠체어와 각종 전기장치를 제어하고 몸에 부착된 인공 팔까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정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은 단순히 수동적 관찰자에서 자연을 개조하는 적극적 창조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곧 기억과 생각 그리고 지성과 의식까지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에는 마음이라는 복잡한 세계를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조작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주문 제작된 생각과 기억들이 가능한 시대를 말한다. 텔레파시와 염력, 기억의 저장과 업로드, 지능 높이기 등과 같은 정신적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두뇌 지도가 완성된다면 100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목적인 책이다.

모든 혁신과 창조 그리고 행복은 정신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인간이 다른 동물의 의식과 다른 점 상상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집필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저자의 평가와 전망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정신에 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권의 책으로 접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뇌과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 발견된 다양한 장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됐는지,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휘황찬란한 컬러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됐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인상적인 점은 대단히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과학에 대해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을 지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는 것이다.

2부는 기억을 저장하고, 생각을 읽고, 꿈을 촬영하고, 마음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새로운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3부는 꿈과 약 그리고 정신질환에서 시작해 로봇과 외계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의식을 다룬다. 현대인들에게 주요한 도전과제인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두뇌 관련 질환

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한다. 저자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의식의 가장 큰 차이는 미래 전망이라고 말한다. 이를 두고 심리학자인 대니얼 길버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 두뇌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체나 시간을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능력 덕분에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인간의 두뇌를 ‘미래를 만드는 예측 기계’라고 했다.

이런 뇌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뇌 스캔 기술이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상당 수준까지 보여 줄 정도로 발전했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기술의 발전이 이를 가능케 한다. 과학자들은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는지를 읽을 수 있고,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생각을 물건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지가 마비된 환자들도 뇌에 이식된 컴퓨터 칩을 이용해 생각만으로 웹서핑을 하더라도 이것이 휠체어와 각종 전기장치를 제어하고 몸에 부착된 인공 팔까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정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은 단순히 수동적 관찰자에서 자연을 개조하는 적극적 창조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곧 기억과 생각 그리고 지성과 의식까지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에는 마음이라는 복잡한 세계를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조작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주문 제작된 생각과 기억들이 가능한 시대를 말한다. 텔레파시와 염력, 기억의 저장과 업로드, 지능 높이기 등과 같은 정신적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두뇌 지도가 완성된다면 100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목적인 책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국가 가치관의 정립이 절실하다. 과거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을 폐기 처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 전략으로는 일류 국가 진입이 불가능함도 명확하다. 제조 강국은 지켜야 하나, 서비스산업을 무시할 수 없다. 창조성은 중요하며, 성실성도 여전히 중요하다. 사전 규제와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사후 평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나, 각론에서는 전환의 실패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실패에 대한 가치관의 혼돈에 기인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빠른 추격자 전략 아래 ‘할 수 있다!’ 정신으로 선진국이 간 길을 열심히 추격해 왔다. 이미 남들이 간 길을 따라가는 전략에서 실패는 무능 혹은 나태의 대명사로 나쁜 것이었다. 실패를 배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전 규제를 만들어 왔다.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양산해 왔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이 일류 국가 진입을 위한

좋은 실패, 나쁜 실패

창조경제 전략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의 일부다.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 성공률이 95% 수준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실패는 새로운 프런티어 개척에 따르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핵심 패러다임은 실패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패의 양면성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실패는 나쁜 것인가? 실패를 앞세우는 노력은 창조적 도전을 억누르고 실패를 허용하는 유연성은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있다. 우리는 실패를 억제해야 하는가? 지원해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다.

과거 필자가 설립한 기업에는 ‘도전을 위하여 실패를 지원한다’라는 표어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젊은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 수많은 의료산업의 혁신들이 탄생해 100여명의 기업가가 창업하고 그중 다수는 성장까지 달성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위 적당히 묻어가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태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모두가 동의한 약속을 어기고 실패에 대한 지원을 부르짖는 과도하게 용감한 사람들도 존재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기존의 기업에 있던 관리자들이 보수 회귀의 반론을 제기했다. 실패는 없애기 위해 일벌백계의 신상개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장시간의 토론에 임했다.

토론의 결론은 ‘도전에 의한 실패는 지원하고, 경계에 대한 실패는 징벌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실패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한 도전의 실패는 가치 있는 실패다. 부주의에 의한 실패와 경계에 의한 실패를 분류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반복되는 실패 혹은 모럴 헤저드에 의한 실패는 당연히 경계의 실패다. KTX 표 검사시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듯 이 같은 명백한 경계의 실패는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더욱 강한 징벌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도전과 경계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도전에 객관적 잣대라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한 접근법이다. 그래서 도출된 결론이 학습할 것이 있으면 도전의 실패이고 학습할 것이 없으면 경계의 실패라는 것이었다. 학습의 유무는 여러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Peer Review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조직의 인프라가 된다.

톱 피터스는 우수 조직의 특징으로 ‘느슨함과 엄격함의 공존’을 강조했다. 창조적 도전을 허용하는 느슨함과 나태한 경계를 지양하는 엄격함이 혁신과 효율을 선순환시킨다.

규제를 풀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보수 회귀 현상이 나타난다. 규제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패라는 조직 활동에서 창조경제의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 그것이 문제다.

하루 한 생각 4월 20일 穀雨落種(곡우낙종) 벼씨 뿌리고 논농사를 시작하는 절

오늘은 입춘으로 시작되는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 곡우(穀雨). “곡우에 가뭄이 들면 땅이 석자나 마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때맞춰 비가 오고 있다. 곡우엔 못자리를 준비하고 벼씨를 담그는 등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된다.

벼씨를 담글 때는 부정찬 일을 했거나 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술가지로 덮었다. 곡우 날 사시(巳時, 오전 9-11시)에 담그면 벼씨가 떠내려간다고 그 시간을 피했다. 벼씨를 담근 뒤 황아리에 금줄을 쳐놓고 고사를 올리는 곳도 있었다. 나중에 개구리나 새가 모판을 망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다. 충남 보령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곡우낙종(穀雨落種)이라 하여 이때 벼씨를 눈에 뿌렸다고 한다. 낙종은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만.

곡우 절은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를 시기여서 자작나무 박달나무 산대레나무 등에 상처를 내고 그 수액을 받아먹기도 했다. 지리산에서는 통일신라 때부터 곡우에 약수 제사를 지냈다. 거자수라고 부르는 곡우물은 위장병 신경통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자신은 없지만 거자는 ‘거제수+자작나무’ 아닌가 싶다.

이 무렵에 부는 바람을 연화풍(梨花風)이라고 한다. 다산 정약용의 시 ‘농가의 늦은 봄’[田家晚春]에 “비 갠 방죽에 서늘한 기

운 돌고/연화풍 불어와 해도 점점 길어진다” [雨歇波池動小涼 梨花風定日初長]은 대목이 있다. 연화풍은 마지막 화신풍(花信風)이다. 이를 고비로 봄은 가고 여름이 온다. ‘동고잡록’(東阜雜錄)에 “화신풍은 매화풍(梅花風)이 가장 먼저이고 연화풍이 마지막이다”라고 돼 있다.

추사의 편지[與張兵使]에서도 연화풍을 읽을 수 있다. “인편이 돌아와 보내주신 답서를 받으니 자리를 마주하고 반갑게 웃는 것 같아서 마나면 백리 길도 지척에 있음을 느끼었다. 다시 뭍노니 연화바람[梨花風]에 영감의 정후(政候) 날로 편안하신지요?”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오늘의 **배국낭** www.baekn.com

중국인 방송 스타 장위안

배국낭닷컴은 요즘 우리 안방에서 인기가 높은 중국인 방송 스타 장위안을 인터뷰했다. 요즘 방송되고 있는 JTBC 예능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 출연해 네팔 체험기를 전달하고 있는 장위안은 “네팔과 음식 등 각종 문화가 비슷하다. 벨기에에는 김치와 라면을 챙겨 가서 먹었는데 네팔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싸간 걸 하나도 먹지 않았다. 네팔은 손으로 먹는 문화인데 맛있고 재밌게 먹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위안은 네팔에서 JTBC ‘비정상회담’에 함께 출연 중인 수잔의 여동생과 조우했다. 장위안은 그녀와 미묘한 분위기가 흐른 점에 대해 “수잔 동생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정말 순수하게 ‘오빠’로서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해 현장에 웃음을 안겼다. 장위안은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tvN ‘꽃보다 할배’와의 차이점에 대해 “여형 프로그램이 많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도시를 많이 갔다. 또한, 출연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와글와글

배터리 값 17만원

해마다 배터리 교체해야 하는 무선청소기, 소비자 등골 휘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무선청소기. 무선청소기의 실제 배터리 수명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본체의 절반 가까운 배터리 교체 비용을 해마다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에는 “청소기가 굳이 무선일 필요가 없다. 유선으로 하면 흡입력도 좋고 배터리 교체 비용도 신경 안 쓰는데”, “분명 코드 뽑아 놓고 충전 오랫동안 했는데도 며칠 지나 쓰려고 하면 배터리 금방 떨어져서 먼지도 못 빨아들이더라”, “팔 때 물어보니 배터리 2-3년 쓴다고 했는데,

실제 AS센터 말 들어보니 보통 1년 정도면 교체한다더군. 소비자 우롱하는 거 아닌가?”, “비싼 청소기 배터리는 17만원까지 가더라. 40만 원짜리 무선청소기 샀다가 담터기 씌”, “제품은 저렴하게 팔고 나중에 소모성 부품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는 기업 마인드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네”, “배터리 일체형 제품의 최대 단점. 아는 사람은 안 사지. 아니면 사서 쓰다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등 지적이 많았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남성용 골프화] GM 3173-74 가격 ₩180,000원

[여성용 골프화] GW8502-31 가격 ₩180,000원

[점포트화] CM 0512(검정, 밤색) 가격 ₩120,000원

[캐주얼화] DM 1301(검정, 밤색) 가격 ₩123,000원

[컬러 가죽벨트] 1+1이벤트 2개가격 ₩48,000원

서울역점 02)6959-4900 강남점 02)562-0009 목동점 02)2608-7400 천호점 02)485-2022 수정점 031)715-9933 인덕원점 031)422-8688 산본점 031)393-3258 대구점 053)522-2900 대구북구점 053)382-4302 부산점 051)804-8885 광주점 062)351-9000 전주점 063)276-5000

**www.jandiro.com**

正論

흥이 없는 세상에는 진화도 없다

설경진의 루머속살

자본시장부 차장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켜준 두 글자가 있었다. 이 두 글자 덕분에 대한민국은 경제의 신화를 만들었다. '꿈'과 '흥'이다. 이 덕분에 월드컵 신화를 만들었다. 꿈은 우리를 동지로 만들고, 흥은 우리에게 신화를 만들어 주었다. 꿈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주었고, 흥은 일에 몰입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성공할 조직은 꿈이 있고, 성공한 조직은 흥이 있다. 꿈은 성공의 필요조건이고, 흥은 성공의 충분조건이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세계중기학회 차기회장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꿈'과 '흥'이 없어지고 있다. 지금 사회지도자들은 꿈을 제시하기보다는 모두들 죄수의 달레마 게임에 빠져 있다. 서로 협력하면 서로의 이익을 올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합리적인 사결정을 추구한 결과,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손실이 되는 비합리성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망자의 리스트를 놓고 하는 싸움을 보라.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최악을 막기 위한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 하나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흥'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가 되기 어렵다.

광받는 기업의 저자 시소더 교수에 의하면 '사람받는 기업'이 S&P 500기업에 비해 10년간 주식투자 수익률이 8배가 높았고, 짐 콜린스의 위대한 기업보다 10년간 주식투자 수익률이 3배 높았다. 스탠퍼드대학의 배론과 해넌(Barron & Hannan)의 7년간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기업보다 사랑의 공동체로 몰입도가 높은 기업이 경영 성과가 높았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기업에서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지만 결국 정크푸드처럼 초기에는 맛있고 매력적이었다가 사람 자원을 소진시키는 자기 파괴적 독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은 사람이다. 기업의 최고 자원으로 사람이다. 그런데 모두가 움츠려 있다. 모두가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다면 누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정조적 모험사업

을 시도하겠는가? 이들이 출주해 하라. 조직행동의 대가 제퍼리 페퍼 교수는 사람을 통제하고 겁주기보다 이들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리더는 노력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는 우리 세상을 흥나게 만들어야 하고, 기업지도자는 살맛나는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그들을 풀어 놓는 것(turn them loose)으로 직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술 개발도 흥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온다. 직원들의 '흥'이 마인드셋을 변화시켜야 몰입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왜 지식있는 엘리트가 성과에 실패하는가? 왜 지식경영이 실패하는가?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기(The Knowing-Doing Gap) 때문이다. 제퍼리 페퍼교수는 주장한다. 무능한 사원도 출주해 하라. 분야별 텔런트가 있다. 직원 하나하나가 창조적 본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이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은 대체로 권위를 세우고 싶어 하고 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떠한가? 못할 때 일하는 방법과 잘할 때 일하는 방법은 다르다. 못할 때는 힘을 들수록 더 열심히 일하는 반면, 잘할 때는 재미있어야 일을 한다.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하일 때는 어려울수록 더 약삭같이 일했다. 2만달러 시대에는 2만달러 시대에 맞는 정치가 해야 한다. 재미있는 사람이 재미보는 시대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과속지체다. 코스피지수가 2011년 8월 이후 44개월 만에 21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지수는 강한 상승탄력을 받으며 7년4개월 만에 700선을 넘어섰다.



올해 코스피가 최고 2700도 가능할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국내 주식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보이는 시점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비판론자들. 물론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초강력 유동성 장세에서 단기간에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큼 선부른 낙관에 대한 경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럴 때 일수록 이른바 '선무당'의 훈수를 경계해야 한다. 선무당들은 일관성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비판론과 낙관론을 이리저리 오고 가기 때문이다.

무슨 일만 있으면 꿈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무슨 일이면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비판만 일삼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없이 오를 거라고 막연한 낙관론을 제시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최근 주가가 급등하는 이 순간에도 이들은 거품을 이야기하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급락할 수 있다고 한다. 5년째 같은 소리다.

일본의 아베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때 이 선무당들은 일본이 곧 망할 거라고 했다. 2년이 넘도록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

주식시장 역시 올 초만 해도 2015년 한국 증시 전망은 비판론 전하였다. 1800-2100 사이의 박스권을 예상하면서 끝모르게 추락하는 유가, 러시아 사태, 엔고로 인한 한국 수출기업들의 부트릴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 역시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다. 단통법이나 결합상품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가치는 신뢰다. 신뢰를 잃는 기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카카오톡 검열에 따른 가입자 이탈사태가 통신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의 우려대로 국내 경제가 조금 더 침체의 늪기를 견뎌야 할 수도 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점은 비판론자보다는 비판과 폭락을 외치다 어느 순간 낙관론자로 변하는 이른바 '선무당'들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세에 따른다.

오랜만에 박스권을 돌파한 주식시장을 두고 비판을 위한 선무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모습을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이 '꼭지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관성 있게 비판론을 제시하는 이들의 조언을 들으면 수익을 놓칠 뿐 손해는 보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비판적일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급격한 폭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반대로 긍정을 넘어 낙관에 젖어 있을 때는 지나친 자아도취에 빠져 투자에 신중함이 떨어지면서 급락이나 위기로 인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럴싸한 주장만 되풀이하는 선무당 말을 믿고 뒤늦게 투자가 나서면 그야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항상 그랬듯이 선무당들이 낙관론자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꼭지(고점)이기 때문이다.

skj78@

객석 민경선 라쉬반 대표 맥락이 없는 브랜드는 스톡

기자수첩 박성제 미래산업부/psj@ 고객정보 보호 손놓은 이통사

우리네 삶은 수없이 많은 판단의 연속 과정이다. 이것이 맞을지, 저것이 맞을지 결정하고, 이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다시 실행의 결과를 피드백해 2차, 3차 판단을 적시에 내려야만 명칭하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제품을 브랜드하는 작업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소비자가 무엇을 살까'라는 판단의 중앙에 내 제품이 놓이도록 하는 일련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브랜드의 '무엇'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 누구나 고민하는 화두지만 정답은 천차만별이다. 성공하는 제품의 핵심에는 반드시 '맥락(脈絡)'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전에서는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을 맥락이라 정의한다. 맥락은 공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절반 가격에 팔면 더 많이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그럴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확신일 뿐이다. 맥락이 없거나, 있더라도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품 브랜드 과정은 흔히 남녀가 연애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말한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얻기 위해 나름 꽃단장을 하는 것부터 만나는 동안에도 티격태격 밀당하는 것, 그리고 결국 상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숨겨놨다가 감동을 자아내는 프러포즈로 결혼에 골인하는 일련의 장면을 상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왜 안 팔릴까?"라고 한숨을 쉬기보다는 팔릴 만한 맥락을 상대방, 즉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제품을 권할 때도 "나라면 살까?"라는 자신의 물음에 '예스(Yes)'라는 대답이 명쾌히 나올 때만 비로소 성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도 제값 주고 사지 않을 것 같은 제품을 이윤이 많을 거라는 욕심에 시장에 내놔야 그 여자를 사랑한다며 쫓아다니는 '스토커' 취급만 받을 뿐이다. 누가 사랑해주길 바라는 것은 브랜드링이 아니다. 사랑받을 맥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브랜드링이다. 연애도 대박도 '공감받을 맥락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네이버가 수사당국의 가입자 정보 제공 요청을 저지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반면, 가입자 통신정보제공과 도·감청 논란의 최일선에 있는 이통통신3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네이버는 정부의 개인정보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 이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했는지 여부를 전담 검토하는 '포괄영장검토 전담변호사제'를 두고, 자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기로 했다. 또 수사당국에 개인정보를 얼마나 제공했는지 통계를 낸 '투명성 보고서'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강수를 뒀다. 하지만 여전히 도·감청 논란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통신사는 수사당국의 영장만 있으면 별다른 장벽 없이 가입자 통신정보 제공을 해주고 있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통신정보 제공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가입자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응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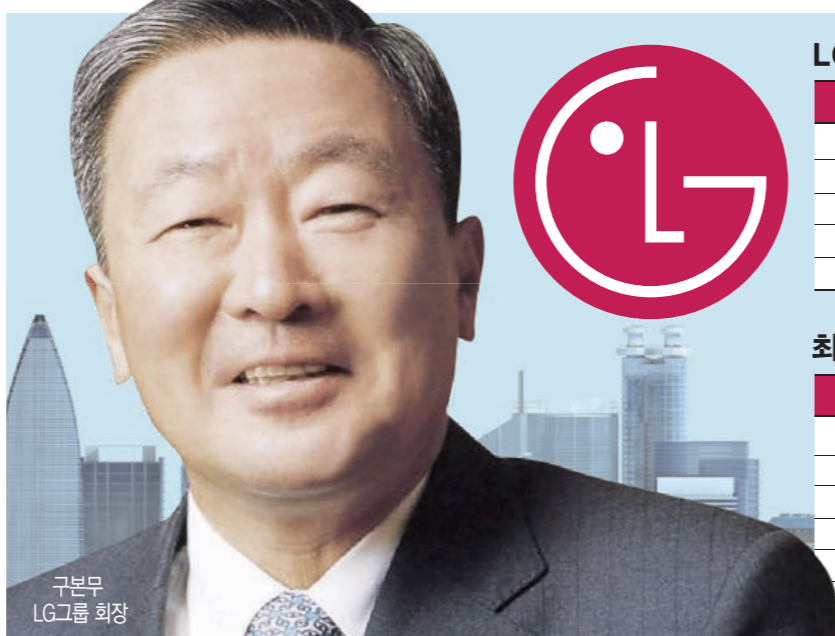
만일 마더 테레사께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을 것인가 - 정호승. 마더 테레사, 넘치는 사랑. 시인 정호승과 그 아버지의 손길로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깊고 큰 사랑! 인도 콜카타, 마더 테레사의 곁에서 보낸 사진작가의 7년. 조광호(신부, 작가) '신이 어디 계시며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분과,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참사랑과 행복과 기쁨, 보람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분에게 나는 이 책을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이혜인(수녀, 시인) '생생한 사랑의 기록인 이 책 속의 사진과 글을 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기도이고 묵상이며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이웃사랑의 지침서입니다. 김혜자(배우)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희생이라는 실천을 통해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가르치신 넘치는 사랑뿐입니다.'

# 4세 시대 준비하는 LG... '1조 승계자금' 확보가 관건

## 대기업 경영승계 대해부

### ⑤ LG 그룹

LG그룹은 비교적 잘 짜인 지주사 체제를 가지고 있다. 또 지주사 지분들도 많은 가족들이 분산 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등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광모 상무가 구분무 회장과 친부인 구분능 회장의 지분만 수증(受贈)하면 지분 승계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그러나 끝지의 대기업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경영능력 검증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는 향후 승계 구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분무 LG그룹 회장

### LG 주요주주 명단

※출처: 금융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구분무	본인	1939만8169주	11.24%
구분준	동생	1331만7448주	7.72%
구분능	동생(양자 친부)	595만5032주	3.45%
김영식	처	742만3100주	4.30%
구광모	양자	1033만19715주	5.99%

### 최근 3년간 구분무 회장 · 구광모 상무 지분 변동 현황

시기	구분무 회장	구광모 상무
2012년 5월	1868만8169주(10.73%)	814만6715주(4.73%)
2012년 8월	1881만8169주(10.91%)	814만6715주(4.73%)
2013년 11월	1897만8169주(11.09%)	834만19715주(4.84%)
2014년 12월	1897만8169주(11.09%)	1024만19715주(5.94%)
2015년 2월	1904만8169주(11.04%)	1024만19715주(5.94%)
2015년 4월	1939만8169주(11.24%)	1033만19715주(5.99%)



구광모 LG그룹 상무

◇순위권 지분 승계구조 = LG그룹 구광모 상무는 국내 10대그룹 후계자 중 가장 여유로운 방법으로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LG그룹은 지주사인 LG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48.6%에 이른다. 이 지분율은 최근 5년간 한 주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너가에서는 구분무 회장이 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34명에 이르는 친인척들이 나눠서 갖고 있으며 일부 그룹 산하 재단들이 우호지분으로 받치는 구조다. 또 LG는 LG화학, LG전자, LG유플러스 등 주력 계열사를 밑에 두고 있다. 주력 계열사들은 각 사업부문 별로 수직계열화된 손자회사를 두고 있는 순수 지주사 체제다.

이런 지분 구조를 감안하면 구광모 상무가 LG의 최대주주에 오르는 시점이 지분 승계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구 상무 입장에서는 현재 구분무 회장과 친부인 구분능 회장 그룹 회장의 지분을 적법한 절차로 넘겨 받을 수 있는 세금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셈이다.

현재 재계에서 구광모 상무가 수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LG 지분은 구분무 회장의 1939만8169주와 구분능 회장이 보유한 595만5032주다. 또 구분무 회장의 부인이며 구 상무의 양모인 김영식씨 보유지분

4.3%(742만3100) 모두를 구 상무가 넘겨 받게 되면 정확히 25%의 지분율을 갖게 된다.

지분 수증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될까. 최근 LG의 주가 흐름을 보면 6만4000원대를 보이고 있다. 주가를 감안한 구분무 회장의 현재 LG주식 가치는 1조 2400여억원이다. 친부인 구분능 회장의 지분가치는 3800억원 수준이다. 양모의 지분 가치는 4750억원이다.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은 3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 평가금액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가치대로라면 구광모 상무는 1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하다.

5년간 연부연납의 형태로 납부를 하면 당장 자금 마련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연부연납을 할 경우 LG 지분을 세무당국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매년 2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부연납에 따른 별도의 이자도 만만치 않다. 두 번째는 보유 주식으로 물납하는 방법인데 이는 지배구조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가능성이 적다. 평가금액이 미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자 부담은 있지만 주식 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도 생각할 수 있다. 지분을 승계하게 되고 현재의 배당상황이 유지된다면 구광모 상무는 매년 300억원의 현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장기적 입장에서는 연부연납 형태와 주식담보대

### 비교적 순위권 승계구조지만...

3200만주 받는데 세금 1조원 필요  
5년 연부연납·주식담보 대출 유력  
비상장 계열사 상장 통한 자금 확보  
그룹 산하 공익재단 활용 가능성도

### 지배력 키우는 구광모 상무

최근 3년동안 219만주 매입·수증  
오너가 주식거래의 절반 이상 차지  
“구분무 회장 승계에도 20년 걸려  
구광모 상무 경영능력이 속도 결정”

출을 함께 동원하는 방법이 구광모 상무에게 가장 자금 부담이 적은 수단이다.

현재 재계에서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일부 지분을 그룹 산하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세금을 줄여 연부연납과 주식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꼽고 있다.

현행 법률상 사실상 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증여세 없이 보유할 수 있다. 현재 그룹 산하 연합학원과 연합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LG 지분은 2.5% 수준이다.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우회적으로 증여하면 4000여억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외적으로 편법 증여라는 눈총을 받을 소지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구 상무가 현재 다른 비상장 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늘린 후 상장 등을 통해 자금력을 확보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 늘리는 구광모 상무 = 재계는 향후 구광모 상무가 지속적으로 여유 자금을 통해 LG지분을 매입하는 동시에 양부인 구분무 회장과 친부인 구분능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수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3년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광모 상무는 최근 3년간 친인척 보유 주식변동 물량 중 55%

에 이르는 주식을 취득했다. 지난 2012년 5월 이후 장내거래와 증여 등으로 나온 LG주식은 모두 396만주다. 이는 보통주 전체 주식 1억7246만3342주의 2.3%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주식의 소유권 변동 현황을 보면 396만주 중 219만주를 구광모 상무가 사들이거나 수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분무 회장이 친인척 소유권 변동 물량 중 17.95%에 이르는 71만주를 장내거래를 통해 사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분무 회장과 구광모 상무의 지분율은 최근 3년간 0.5%포인트와 1.26%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구광모 상무의 승진과 함께 본격적인 지분 승계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친부인 구분능 회장이 최근 보유한 LG지분 중 190만주를 한꺼번에 구 상무에게 증여하는 등 밀거름을 뿌렸다.

반면 구분무 회장도 승계 작업 기간이 20년간 이뤄진 것과 구광모 상무가 현재 경영수업 중인 점 등을 들어 본격적인 지분 승계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의 지배구조는 승계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결국 구광모 상무의 경영능력이 승계작업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우섭 기자 hyson0214@

## ‘범한판토스’ 지분 승계 자금줄 될까

구 상무 최근 7%대 지분 인수  
상장 통한 현금 확보 가능해져

범한판토스가 구광모 상무의 그룹 지배권 승계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구광모 상무가 보유한 범한판토스 지분이 향후 자금줄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상사는 지난 1월 범한판토스 지분 51%를 인수했다. 또 31.1%의 지분은 LG그룹 오너가에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룹 후계자로 점쳐진 구광모 상무가 개인자금을 투입해 범한판토스 지분 7%대의 물량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범한판토스가 향후 상장 준비를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범한판토스는 오래전 계열분리된 방계 기업이지만 매출의 절반가량은 LG그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 1조2448억원(개별기준)을 기록했다. 영

업이익도 매년 평균 300억원을 훌쩍 넘는 알짜 회사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범한판토스의 상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특히 구광모 상무가 범한판토스에 대해 유의적인 지분을 인수한 점을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구광모 상무가 향후 범한판토스 상장을 현금 마련 방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한판토스 지분 인수 이후 지주사인 LG 지분에

대한 오너가 내부의 변동이 잦아진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내놓게 하는 정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구광모 상무가 양부와 친부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1조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범한판토스 상장이 이뤄지면 이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그룹 측은 범한판토스의 상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우섭 기자 hyson0214@

피로, 수면장애, 무기력증...  
몸속 리듬이 망가진 게 아닐까요?

여보  
몸속 리듬  
부터  
챙겨주세요!

피로를 풀어  
몸속 리듬을 깨우세요!

**몸속 바이오 리듬처럼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 식습관은 이런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피로, 수면장애, 무기력증 등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B, C와 항산화제인 비타민 E와 셀레늄까지 채운 베콤씨로 몸속 리듬을 깨워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세요!

VITAMIN B ▶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구내염, 눈의 피로, 어깨결림, 피부병 예방 VITAMIN C ▶ 피로회복, 기미·주근깨 완화, 잇몸출혈, 비출혈 예방

**몸속 리듬 깨우기! 베콤씨**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일부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 합니다.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주선자 요금부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일부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 합니다.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주선자 요금부담)

# 온라인 게임 씨 뿌려 '바람의 나라' 세운 게임 황제

## IT 부호 열전

### ③ 김정주 NXC 회장

국내 게임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김정주(47) 넥슨 창업자 겸 NXC 회장을 빼 놓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불모지의 한국 게임산업을 일구고 성장시킨 주인공이 김 회장이다. 김 회장이 한국 시장에 생소한 온라인 게임산업을 씨앗을 뿌린 데는 아낌없이 지켜봐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컸다. 서울 토박이인 김 회장은 어린 시절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김 회장의 부친은 판사 출신의 김교창(78)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이고 모친은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이연자(74) 여사다.

김 회장은 유년기에 모친인 이 여사의 영향을 받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잘 다뤘다고 한다. 심지어 악기를 가지고 노는 데 빠져 학교를 빼먹기 일쑤였다. 한번 몸두하면 끝을 보는 성격을 지닌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김 회장을 잘 아는 지인은 "어린시절 김 회장은 주변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며 "국내 음악인의 등용문인 '이화경향 음악콩쿠르'의 초등부 바이올린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년시절 예술적 감각과 공부도 잘한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는 아닌 듯하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꼭 하는 성격에 아버지한테 혼이 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김 회장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새로운 길을 꿈꾸게 만든 시점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때로 판단된다. 1980년대 김 회장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의 컴퓨터 체험시설을 자주 찾았다. 김 회장은 컴퓨터에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다. 이를 눈치챈 이모부 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로 순국)이 김 회장에게 컴퓨터를 선물해줬다고 한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 1986년 2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성고를 졸업하고, 서울

등 대기업 홈페이지 제작을 맡으며 기회를 모색했다.

얼마 뒤인 1998년 김 회장은 일본길에 올랐다. 김 회장이 일본에서 목격한 장면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일본 시내의 한 전자제품 매장 앞에 사람들이 닌텐도 게임기를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이었다. 이때 김 회장은 일본에 머물고 있던 대우 출신의 최승우씨를 만나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최씨는 넥슨 일본시장을 개척한 주인공으로, 현재 넥슨 일본법인 명예회장이자 김 회장과는 서울대 동문이면서 68년 동갑내기 절친한 친구 사이이다.

김 회장은 최 회장을 선봉장으로 일본 공략에 공을 들였다. 지난 1999년 11월 최 회장은 일본 웹 호스팅업체와 함께 넥슨 일본 법인을 합작해 만들었다. '바람의 나라'를 첫 해외시장에 선보인 시점이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가입자가 모이지 않으면서 합작 법인은 해체되고, 2002년 일본 지사를 세웠다. 당시 김 회장과 최 회장은 비싼 일본 가구를 구입하는 대신 서울에서 가구를 들고 와 일일이 조립하며 비용을 아꼈다고 한다. 이어 김 회장은 2005년 모회사를 한국 법인에서 일본 법인으로 바꿨다.

하늘도 김 회장을 도왔다. 정부가 IT정책

바이올린 켜던 원조 엄친아...중학생때부터 컴퓨터 빠져 1994년 넥슨 설립 후 '바람의 나라' 출시 가입자 1800만명 정부 IT정책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게임 인기 치솟아 일본 법인 도쿄 증시 상장... 세계적 자산가 반열에 올라

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다. 이어 KAIST 전산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황간에는 김 회장의 부친인 김 교문 변호사가 자신의 뒤를 이어 법조인이 되길 원해 김 회장과 진로를 놓고 상당히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있으나 김 교문 변호사가 김 회장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게 정설이다.

김 회장이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김 교문 변호사는 김 회장의 든든한 조력자로 적극 나선다. 김 회장이 지난 1994년 넥슨을 설립하던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6000만원이란 사업 자금을 지원할 정도였다. 김 회장은 아버지가 준 밑천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10평 남짓한 오피스텔을 얻고, 온라인 게임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아버지 김 교문 변호사는 넥슨 설립부터 수년간 각종 법률 자문역을 맡으며 아들의 사업을 돕기도 했다. 현재 넥슨의 탄탄한 지배구조를 그려준 게 기업법 전문가인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는 후문이다.

넥슨이 설립부터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의 조언 덕분이었다.

김 회장은 넥슨 설립 2년 후인 1996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바람의 나라'를 출시하며 한국의 온라인 게임 역사를 처음으로 썼다. 캐릭터를 만들어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플레이 하는 경험 자체가 새롭고 흥미진진했다. 그렇지만 초반 흥행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당시의 인터넷 환경은 모뎀을 이용해서 전화선으로 연결하던 PC통신 시절이었다. 인터넷 속도와 그래픽 지원을 하지 못하면서, 게임행렬의 길쭉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초반 동시접속자가 수십명에 불과해 첫 달 매출이 고작 백만 원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넥슨의 주요 수입원이 게임보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나 아시아나항공

의 육성 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에 나서고 PC방이 곳곳에서 출현했다. 시대적 조류까지 맞아떨어지면서 '바람의 나라'는 일약 대표적인 온라인게임으로 등극했다. 현재 '바람의 나라'는 누적가입자 수 1800만명, 최고 동시접속자수 14만명이다.

이들 기반으로 넥슨은 '카트라이더', '던전 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대한민국 대표 게임기업의 아이콘을 얻게 된다.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졌다. 2004년 8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카트라이더'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전세계 3억 8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듬해인 2005년 8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던전 앤파이터'는 전 세계 약 4억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정식 서비스를 한 '메이플스토리' 역시 일본·미국·대만·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60여개 나라에 진출해 1억7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넥슨 일본법인의 도쿄증권 거래소 상장으로도 또 다시 조명을 받게 된다. 넥슨 일본법인은 2011년 12월 14일 8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도쿄증권거래소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넥슨 일본법인의 상장으로도 김 회장은 세계적인 자산가의 반열에도 올라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김 회장의 자산은 18억달러(약 1조9758억 원)로 전체 순위 중 1054위로 조사됐다. 김 회장의 성공에는 부유한 집안 환경과 부모님이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 회장에게 이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었다. 마음에 품은 게임의 열정과 포기하지 않은 끈기 등이 어우러져 지금의 김 회장을 완성한 것이다.

양창근 기자 yangck@



### 넥슨 오너일가 주식가치

단위: 백만원

이름	지분율	2012년	2013년
김정주	48.50%	1,333,567	1,768,194
유정현	21.15%	581,525	771,051
합계	69.65%	1,915,092	2,539,245

\*출처: CEO스코어



김정주 회장이 거주중인 서귀포시 고급 빌라 단지 '비오토피아'.

## 자산 18억 달러 제주 최고 부자

세계 1054위·국내 15위

제주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남자. 스스로 기업을 일궈낸 넥슨 신화의 주인공 김정주 NXC 회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와 넥슨네트워크 본사가 2009년 3월부터 제주도도 이전한 뒤 김정주 회장 스스로도 가족 전체와 제주도로 이사를 살고 있어서다.

지난달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정주 회장의 자산은 18억 달러로 전 세계 1826명의 억만장자 중 1054위에 올랐다. 억만장자는 10억달러(한화 약 1조1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를 가리킨다. 국내 조사 순위로는 지난해 8월 재벌닷컴 조사 결과에서 대기업 오너들을 제치고 15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 회장은 NXC의 지분 48.50%를 보유하고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지난달 5월 기준 국내 인터넷 포털, 게임 등 IT사업 분야에서 주식자산 1000억원 이상자 수성기형 신흥 벤처 부호는 총 10명이었다. 이 중 1조 클럽에 진입한 사람은 총 3명이며, 김 회장은 이들 중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고급 빌라 단지인 '비오토피아'에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는 김 회장 외에도 배우 김희애씨, 김수현 작가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면적 22만평 규모에 교회, 미술관, 레스토랑 등이 있다. 매 대기는 최대 25억원 정도로 제주도의 비버리얼즈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주변이 모두 골프장으로 만들어져 있어 슈퍼마켓을 다녀올 때조차 차량을 이용해 15분 정도 이동해야 할 정도다.

김 회장의 애마는 1억원을 훌쩍 넘는 '포르쉐 카이엔'이다. 서울에서 애용하던 카이엔을 제주도로 이사하면서 함께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엔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 3번째로 비싼 차량이다. 옵션을 포함한 최고 가 모델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조성준 기자 tlatio@

### 주변인물 누가있나

## 송재경·서민·정상원... 넥슨서 만나 승승장구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인연에서 악연으로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는 카이스트 룸메이트 서울대 동문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도 친분

김정주 NXC 회장의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것. 최근 경영권을 놓고 전면전에 들어가면서 이 둘의 인연 혹은 악연은 더욱 깊어졌다. 김 회장과 김 대표는 각각 서울대 86, 85학번으로 20년지기 선배 후배 사이이다. 이 둘의 첫 인연은 김 회장이 1994년 넥슨을 설립할 당시로, 그가 그래픽 분야 1인자로 꼽히는 김 대표에게 회사를 함께 설립하자고 제안하면서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를 거절하고 엔씨소프트를 설립한다. 이에 김 회장은 서울대 동기이자 KAIST 전산학 대학원을 함께 다닌 '천재 개발자' 송재경 XL게임즈 대표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다.

환상의 궁합을 보인 이 둘은 1996년 '바람의 나라'를

출시, 최고 동시접속자 14만명이라는 대박을 터트린다. 송 대표는 지난 2013년 '넥슨컴퓨터박물관' 개관식에서 "(김)정주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나는 놀기 좋아했다"며 "막연한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있는 동료들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1997년 김 회장과 의견 차이로 엔씨소프트로 떠나고, 그 빈 자리를 서민 전 넥슨 대표가 채운다. 97년 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한 그는 지난해 3월까지 넥슨 대표를 역임했다. 무려 8년간 이어진 인연이다.

서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김 대표를 한차례씩 떠났다가 되돌아왔다. 정상원 넥슨코리아 부사장은 삼성SDS에 입사한 이후 회사를 차렸다가 넥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처음 문제로 퇴사한 뒤 '쌍소프트'를 차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송재경 XL게임즈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의장

렸지만 지난해 3월 다시 넥슨으로 복귀했다.

'메이플스토리'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이승찬 넥슨 본부장도 위젯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며 넥슨과 결별을 선언했지만, 넥슨이 위젯을 인수하며 다시 복귀했다.

KAIST에서 맺은 인맥도 유명하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룸메이트였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그 맞은편 방에는 송재경 대표가 있었다. 이의 KAIST 출신은 아니나 서울대 동문이었던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도 교류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기자 psj@

한국 기업들의 시선이 일제히 동남아 쪽을 향하고 있다. 해외 생산공장 건설 후보지로 대부분이 중국을 선택하던 분위기가 몇 년 새 완전히 바뀌었다. 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 국가가 한국 기업들에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뭘까. 업계는 풍부한 노동력, 수출 전진 기지화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꼽는다. 더불어 동남아 국가들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이 좋은 점도 이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최적의 생산거점인 동시에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소비시장이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인구(약 2억5000만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5%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삼성·SK·LG 등 국내 대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베트남의 경우 2009년 이후 1인당 GDP 증가율이 55%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높아져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글로벌 기업의 동남아 시장 패권 다툼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잠재력 꿈틀대는

## 생산거점인 동시에 거대 소비시장 전자업계 '신흥 경제블록' 쟁탈전

**e** 국내 전자업계가 동남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와 세제 혜택을 앞세운 동남아를 제3의 생산 거점으로 삼아 원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국내 대표 전자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 중국 다음은 동남아... 베트남에 20조 투자=삼성전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 국가에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특히 투자는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삼성전자의 생산 및 수출거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베트남 연평과 호찌민에 각각 휴대폰과 TV 공장을 가동 중이다.

휴대폰 공장은 베트남 북부 박닌성 연평공단과 타이응웬성 연빈공단에 각각 위치해 있다. 25억 달러(약 2조7000억원)를 투입한 연평공단에는 2009년부터, 20억 달러(약 2조1000억원)가 투자된 연빈공단은 2013년부터 휴대폰 공장이 운영됐다. 최근 삼성전자는 타이응웬성 휴대폰 공장에 30억 달러(약 3조2000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업계는 연평공단에서 연간 1억2000만대 규모의 휴대폰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타이응웬성 휴대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휴대폰 생산 규모는 총 2억4000만대로 확대,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휴대폰 생산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호찌민은 소비자가전(CE)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부상 중이다. 삼성전자는 호찌민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TV와 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소비자가전 복합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복합단지 규모는 70만㎡(약 21만평)로, 오는 2017년까지 5억6000만 달러(약 6000억원)가 투입된다. 이밖에 태국 스리라차 지역에서는 냉장

**삼성, 베트남 휴대폰·TV공장  
2017년까지 누적투자 20조 전망**

**LG, 베트남 하이퐁 수출 기지로  
태국·인니와 '3대 생산기지' 낙점**

**베트남 6년새 GDP 55% 늘어  
세계 혜택 제공 한국기업 유치**

고·세탁기·에어컨 등이, 말레이시아 포트 클랑과 세렘방 지역 및 인도네시아 치카랑 지역에서는 TV와 모니터 등이 생산되고 있다.

전자 계열사인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도 10억 달러(약 1조원)를 투자해 각각 연빈공단에 휴대폰 부품공장을, 연평공단에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는 베트남에 대한 삼성의 누적 투자액이 130억 달러(약 14조원)에 이르고, 오는 2017년에는 최대 200억 달러(약 2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 "베트남, 글로벌 3대 생산기지로 키운다" =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 국가에 생산 법인을 둔 LG전자는 베트남을 글로벌 3대 생산기지로 낙점했다. LG전자는 하이퐁과 하이퐁으로 나누었던 베트남 생산공장을 통합해 '하이퐁 캠퍼스'를 구축, 베트남 생산기지에화에 시동을 걸었다.

LG전자는 지난달 하이퐁에 80만㎡(약 24만2000평)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하고 향후 15년간 15억 달러(약 1조6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내수 공급 위주의 하이엔(TV·휴대폰)과 하이퐁(세탁기·청소기·에어컨) 생산공장을 하나로 합쳐 생산능력과 생산효율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태국의 TV 생산공장(연간 60만대 생산)도 하이퐁 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이다.

하이퐁 캠퍼스에서는 기존 제품과 함께 IVI(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 등이 생산될 예정이다.

LG전자가 하이퐁에 주목한 이유는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이점 때문이다. 하이퐁은 베트남 제3의 도시이자 항구도시로,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낮은 인건비와 법인세 혜택 등으로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 거점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시장으로서의 잠재력 가치도 높다. 베트남 인구는 9000만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이 30세 이하 젊은 층이다. 풍부한 노동력의 제공처이자 주요 소비시장인 셈이다.

코트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최저임금은 한 달 기준 약 14만원에 불과하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지역 국가와 비교해 임금 수준은 낮지만 노동력의 질은 높다는 분석이다.

해외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을 찾은 이유다. 베트남 정부는 전자제품 주요 생산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제반산업을 육성하고 신규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15년간 10% 우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소득 발생 시 발생 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면제 및 면제기간 종료 후 9년간 50% 세액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김지영 기자 guty@



## 철강 수요 8000만톤... "아세안 진출은 필수"

**e** "철강산업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 동남아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조선산업은 성장 초기 단계. 그만큼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사 크라카타우스틸과 함께 세운 크라카타우포스코의 민경준 법인장은 동남아 시장을 이 같이 분석했다. 민 법인장은 "기업은 끊임없이 생산을 해야 하는데 다른 시장이 포화 상태라면 동남아로 진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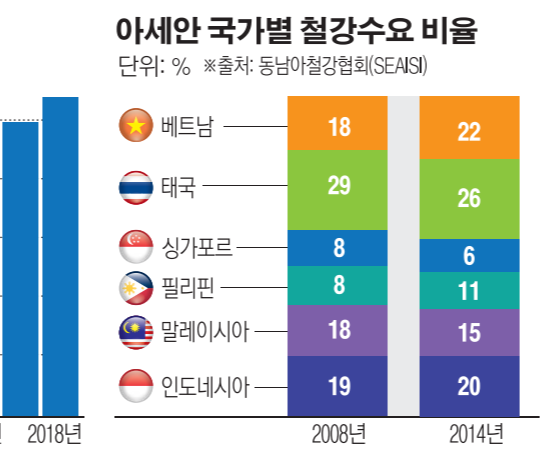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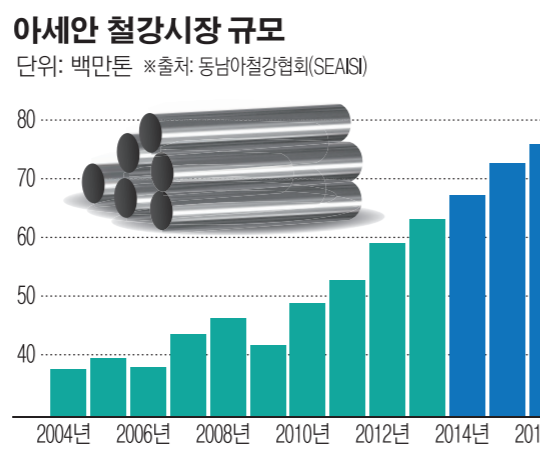
◇아세안 철강 수요 2018년 8000만톤, 연간 4~5% 고성장은 민 법인장의 시장 전망처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철강 수요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남아철강협회에 따르면 아세안은 지난해 6400만톤의 철강재를 소비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국가의 철강 소비규모는 2018년에는 8000만톤을 웃돌 전망이다. 올해 7~8%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한 이후에도 연간 4~5%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동남아철강협회의 전망이다.

국내 업체는 동남아 시장 진출에 쟁쟁하다. 포스코는 2013년 말 동남아 최초 일관제철소인 크라카타우 포스코를 준공했다. 이곳은 올해부터 흑자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강판과 전자제품에 쓰이는 냉연을 만드는 하공정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생산 제품을 고부가가치로 확대해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포스코 이외에도 베트남에서는 세아제강이 강관을, 태국에서는 동부제철이 컬러 강관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고려제강은 말레이시아에서 외외로프 등을 생산하며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수출 급증은 위협 요인 = 동남아 시장에 대해 정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의 동남아 철강재 수출 급증은 한국과 일본업체에



**철강산업 세계적 장기불황 직면  
동남아 유일하게 성장하는 시장  
지난해 철강재 소비 6400만톤  
포스코·세아제강 등 시장 확대  
中 업체 성장세, 국내 기업 위협**

게는 위협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 통관당국의 자료를 보면 중국 철강업체는 2013년 6200만2100톤의 철강재를 동남아에 수출했다. 이들의 동남아 수출 규모는 2014년에는 9400만500톤으로 늘어 전년보다 51.2% 뛰었다. 지난해 동남아 국가가 수입한 철강재 중 중국산이 48%를 차지했다. 2013년의 29%에 비해 19%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일본은 24%에서 25%로 늘었고 한국은 2년째 13%를 머물렀다. 중국이 동남아 철강 수입시장의 절반을

잠식하며 다른 국가의 성장을 빼앗고 있는 셈이다. 올해엔 중국 철강업체의 동남아 시장 공세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보산강철은 잔장(湛江)에, 무한강철은 광청강(防城港)에 제철소를 짓고 있다. 두 곳 모두 중국 남부 연안에 위치해 있어 동남아와 지리적으로 가깝다. 더욱이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하면 이곳에서 만들어질 철강재는 동남아 현지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것이 국내 철강업체의 분석이다. 중국 업체는 지금까지 저가 철강재 위주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했다. 그러나 최근 고급 판재류로 제품을 확대하면서 한국과 일본 철강업체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조대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동남아 시장은 구조적으로 경쟁 여건은 더욱 악화되면서 레드오션화가 급진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동남아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고 저가 시장이라 해도 한·중·일 및 대만계 철강사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곳"이라며 "한국 업체는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핵심 역량을 근간으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동남아를 잡아라



롯데케미칼 타이탄 공장 전경 ▶

## 풍부한 자원·글로벌 생산기지 이점 석화업계, '포스트 차이나'로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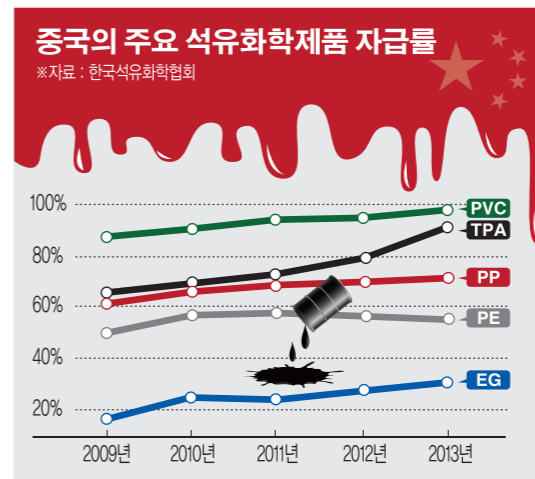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동남아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신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남아 선점 나선 롯데·한화·LG = 롯데케미칼은 2010년 11월 말레이시아 대형 석유화학 기업인 '타이탄'을 약 1조2000억원에 인수하며 동남아에 진출했다. 타이탄의 매출 규모는 작년 기준 2조8000억원에 달하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연간 올레핀 110만톤, 합성수지 150만톤, 부타디엔 10만톤, 이축연신 폴리프로필렌필름(BOPP) 3만8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또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240억원을 투자해 연간 5만톤 규모의 합성고무(BR) 생산설비도 구축했다. 이 사업은 롯데케미칼과 자회사인 롯데케미칼 타이탄, 우베 홀산 주식회사, 미츠비시상사가 각각 40:10:40:10의 지분으로 합작했다. 롯데케미칼은 이 사업을 통해 합성고무 분야 신사업 진출을 기존 범용 제품과 더불어 신성장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2009년 4월 태국에 알칼리 수용성수지(ASR) 공장을 준공했다. 이 사업은 한화케미칼의 중장기 비전인 '글로벌 케미칼 리더 2015' 전략의 일환이다. ASR 공장은 방콕 인근 방프리 국가산업공단에 있으며 2009년 7월 산업생산을 시작해 생산규모는 1만5000톤으로 동남아시아 최대다.

수성잉크와 수성페인트 등의 주원료인 ASR 수지는 유성제품보다 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SR 수지 시장은 매년 7~10%씩 성장하고 있고, 태국의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화케미칼은 태국을 ASR 중심기지로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2차 증설을 시작한 상태다.



롯데케미칼, 말레이 거점 신사업 한화는 태국·LG화학 베트남 등 아세안국가 영향력 확대 쟁점

석화제품 수출물량 7년새 2배 ↑ 경제전망도 고성장세 지속 주목

LG화학은 지난 1997년 11월 베트남 정부와 합작해 베트남 호찌민시 근교 동나이성 고다우 공업단지 내에 연산 3만톤 규모의 다옥틸프탈레이트(DOP) 공장인 'LG VINA'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총 1500만 달러가 투자된 이 공장에서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첨가제로 플라스틱 장판류 등 PVC 가공제품에 많이 쓰이는 DOP를 생산한다.

◇중 자급률 확대에 동남아 성장세 매력 = 국내

화학업계가 이처럼 동남아를 주목하는 이유는 '수요 증가와 '지리적 이점' '천연 자원' '정책적 석유화학산업 육성' 등의 기회 요인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자급률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중국의 PVC 자급률은 이미 100% 수준에 도달했고 합성원료도 자급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PET의 주원료인 고순도 테레프탈산(TPA)은 자급률이 2009년 66%에서 2013년 90% 수준까지 단기간 급등해 점차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주요 합성수지 제품도 이 같은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는 6억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둔 소비시장 및 글로벌 생산기지다. 동남아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2013년 수출물량은 2006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동남아에 대한 중기적 경제전망도 양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2014~2018년 아세안 10개국의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5.4%로 2000~2007년의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 5.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 국가 중 베트남과 함께 석유화학제품 순수입국인 인도네시아는 석유화학제품 수요 대비 생산능력이 낮다. 2008~2012년 누적 합성수지 수출액 금액 기준으로 수입액이 수출액 대비 약 3.7배 많은 수준이다. 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 등 4개국의 석유 매장량은 약 127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259조㎥에 달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 원재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시장,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의 대표적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전방위적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동남아 중심 국가"라며 "각국 정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과 민간투자·소비 촉진 정책으로 기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등 동남아에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rdan@

## 한류, 소비시장 강타... 유통업계의 '新블루오션'



국내 유통업체들이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중국 시장에 집중했던 국내 업체들이 정부의 규제 및 현지 업체의 성장과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에 집중하고 있는 것. 한류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선점이라는 장기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도 저변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형 홈쇼핑 '한류' 타고 인기... 백화점·마트 진출도 활발 = 국내 성장에 제동이 걸린 홈쇼핑업체들이 동남아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에 진출한 CJ오쇼핑은 지난해 해외 사업 취급고가 2조원 수준까지 올랐다. 동남아에서 한국형 홈쇼핑이 주목받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CJ오쇼핑은 오는 2017년까지 해외 사업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GS샵은 동남아 시장을 발판으로 세계 1위 글로벌 비전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매출액이 전년 대비 51% 늘어나며 고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1월에는 말레이시아 미디어그룹 아스트로와 함께 설립한 'GO SHOP'을 개국하면서 해외 진출국이 7개로 늘었다.

현대홈쇼핑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 태국 1위 방송통신기업 인터치그룹 자회사인 인터치미디어와 합작법인 'HIGH 쇼핑' 설립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말 베트남에서 'VTV현대홈쇼핑'을 설립한다. 향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추가 진출 계획을 갖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동남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3년 인도네시아, 지난해 베트남에

CJ오쇼핑, 해외사업 취급고 2조 GS샵·현대도 합작법인 설립 나서 마트·백화점업계 신규매장 오픈

1인당 GDP 1만달러대 잇단 진입 소득수준 향상에 성장성 충분해 식품업계,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있달아 진출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12월 베트남 고방 지역에 1호점 오픈 준비가 한창이다.

롯데마트의 동남아 해외 점포는 인도네시아 38개, 베트남 10개다. 롯데마트는 올해 인도네시아 9개, 베트남 3개 등 총 12개 매장을 오픈할 방침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소매시장은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10% 이상 신장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공략해야 할 곳이 됐다"며 "베트남 역시 개발도상국으로 전통시장 비중이 높고,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산업 비중은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어서 성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식품·외식업체, 소득 수준 향상으로 외식산업 발전 기대 = 식품·외식업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식품·외식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외식산업이 급증하는데 말레이

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이미 이 수준을 넘었거나 조만간 이를 돌파할 전망이다.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푸레쥬르는 베트남 호찌민에 1호점을 내며 진출 5년 만에인 2012년 매출, 매장수 등에서 모두 1위에 올라섰다. 미얀마 지역을 공략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2013년 롯데리아가 미얀마 양곤에 1호점을 냈고 지난해에는 롯데칠성음료가 미얀마 현지 식품료 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었다.

MPK그룹은 말레이시아 예치그룹과 합작법인을 통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3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한다. MPK그룹 관계자는 "2017년까지 인도네시아 50개, 말레이시아 30개, 싱가포르 20개 등 동남아 3개국에 100개 매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C그룹도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 나자 그룹과 마스터프랜차이즈 협약을 맺고 올 상반기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에 5·6호점을 오픈했고, 연내 10개 매장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또 JKN 글로벌 미디어와 손잡고 JKN 베네 컴퍼니를 설립해 태국과 라오스에 진출한다. 카페베네는 올 상반기 태국과 라오스,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 1호점 개장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동남아에서 140개 매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태국은 전체 프랜차이즈 50% 이상이 외식업일 정도로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했으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연평균 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라오스도 경제 성장에 비해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지 않은 국가여서 공략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신애 기자 Lsa@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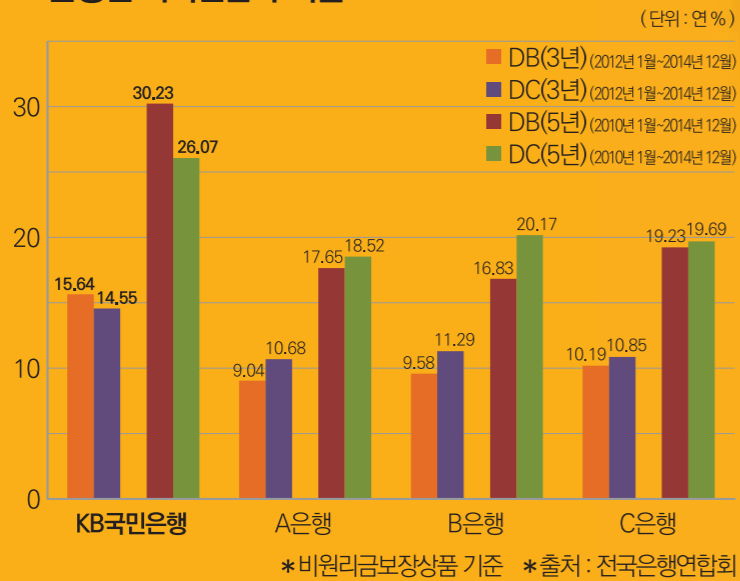
# “대한민국 3천만 고객이 KB국민은행을 선택한 이유”

##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권 1위 주식형 펀드 3년 수익률 20.2%\* · 판매고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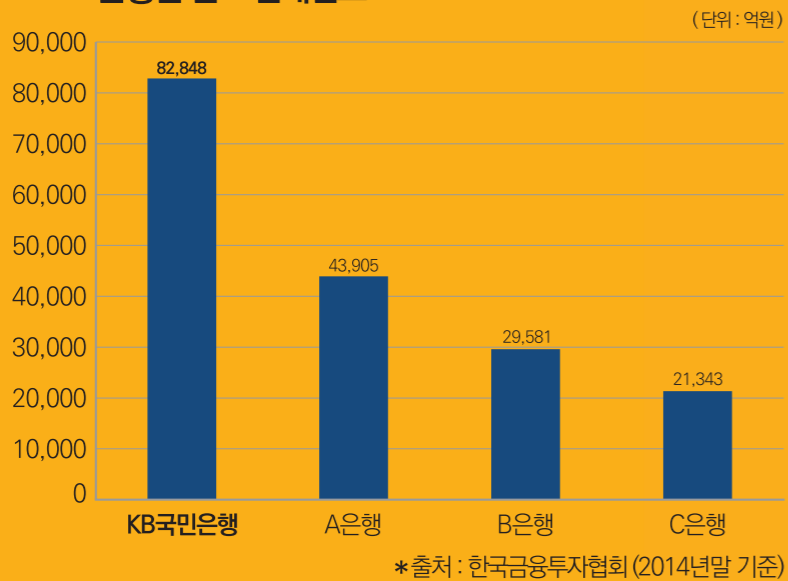
고객님이 주신 믿음, 수익률로 보답합니다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금융의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1등 수익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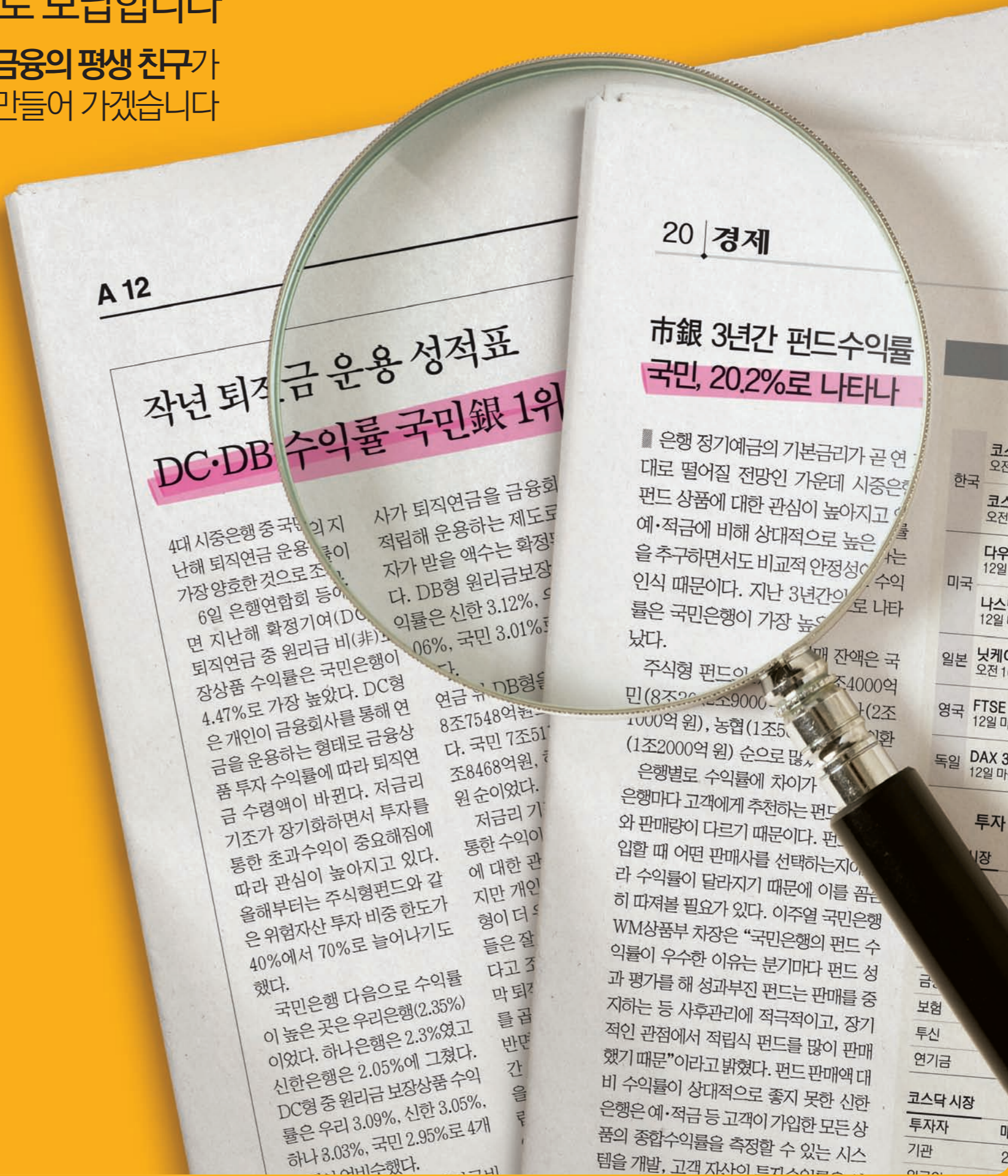
은행권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권 펀드 판매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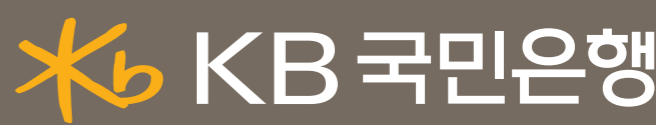


\* 동 수익률은 당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주식형 펀드를  
3년간 보유 한 경우의 판매 잔고 가중 평균 수익률로서  
개별고객의 수익률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 한국금융투자협회 기준)



※ 퇴직연금은 신탁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투자위험,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거 운용 성과가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직원 또는 고객센터(☎1599-9999)로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91호 (2015.03.26)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 15-02084호 (2015.03.27-2016.03.26)



넥슨

'용사X용사' '광개토태왕' '영웅의 군단' 실감나는 전투, 심장이 뛰다



넥슨은 올해 모바일 게임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대작 퍼블리싱 외에도 자체 개발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진출을 통해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넥슨은 우선 콘셉트가 개발한 모바일 액션 RPG '용사X용사 for Kakao'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용사X용사는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동화풍의 그래픽, 실감나는 액션이 어우러진 RPG 게임으로 수십 마리의 몬스터를 '몰이사냥'할 수 있는 '해킹슬래시(Hack and Slash)'의 감점까지 갖췄다. 화면을 가리지 않는 가상패드를 통해 이동과 전투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친구와 협력할 수 있는 '2인 파티플레이'와 커뮤니케이션 공간인 '광장'을 통해 협동과 경쟁의 재미요소도 제공한다.

또 자체 개발한 모바일 게임 '광개토태왕'과 '야생의 땅: 듀랑고'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광개토태왕은 최근 2차 비공개 시범테

스트를 마치고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고구려 광개토태왕과 다양한 장수들의 활약을 담았다. '야생의 땅: 듀랑고'는 공룡시대의 야생 환경에 던져진 현대인이 거친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형 오픈 월드 MMORPG' 장르로 유저들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 방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영웅의 군단'의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영웅의 군단: 레이드'와 지난해 지스타 2014에서 티저 영상 공개로 화제를 모은 모바일 액션 RPG '프레타'도 올해 출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중국 게임업체 창유와 손잡고 '천룡팔부3D'를 선보일 예정이다. 천룡팔부3D는 창유의 지난해 10월 중국 앱스토어 출시 이후 월 최고매출 410억원, 다운로드 수 1000만건을 기록한 모바일 게임이다.

엔씨소프트

'패션 스트리트' '팡야' '프로야구 육삼공' 남녀노소 즐기는 캐주얼게임



엔씨소프트는 PC온라인에서 벗어나 앞으로 선보이는 모든 게임을 모바일게임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기기에서도 게임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엔씨는 특히 올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게임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블소 모바일' '아이온 레기온즈'뿐만 아니라 패션을 소재로 한 SNG '패션 스트리트'도 공개를 앞두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자회사인 엔트리브소프트를 통해 모바일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프로야구 육삼공'과 골프게임 '팡야 모바일' '쇼환사가 되고 싶어' 등 3개의 캐주얼 게임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시한 '프로야구 육삼공'은 선수 카드 모으기와 빠른 경기진행 방식, 추천 선수와 팀 시스템 등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휴도 진행한다. 2월에는 넷마블게임즈와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양사가 보유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IP에 기반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엔씨소프트의 글로벌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개발을, 엔씨소프트는 넷마블게임즈의 IP를 활용한 온라인 게임 개발을 담당하는 등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과 역량을 살린 시너지 효과를 예고했다.

이 외에도 신작 온라인 게임 2종을 올해 공개할 계획이다. 밝은 느낌의 슈팅 액션 게임 'MXM'은 지난해 첫 번째 비공개 테스트를 마쳤으며 올 상반기까지 두 번째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리니지 이터널'도 비공개 테스트를 통해 이용자와 만난다.

넷마블



'크로노블레이드' '드래곤스트라이커' 역동적인 액션, RPG 진수

넷마블이 신작을 앞세워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모바일 사업 강화와 글로벌 시장 공략이라는 목표를 잡고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 넷마블은 올해에만 크로노 블레이드, 파이어즈 등 40여종의 모바일 온라인 게임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게임 시장의 트렌드를 지속 견인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미 시동은 걸렸다. 모바일 RPG의 새로운 흥행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레이븐'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5일 만에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양대 마켓 최고매출 1위에 오르며 저력을 과시했다. 올 상반기에는 초대형 액션 모바일 RPG 크로노블레이드, 모바일 RPG 드래곤스트라이커, 모바일 비행 어드벤처 스텔라사가 등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크로노블레이드는 Grand Theft Auto(GTA) 시리즈 아버지 데이브 존스(Dave Jones)와 디아블로의 메인 기획자로 참여했던 스티그 헤드룬드(Stieg Hedlund)가 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업계 안팎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게임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역동적 전투를 통해 액션 RPG의 진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스텔라 사가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세계관을 통해 몰입감 넘치는 짜릿한 비행전투를 즐길 수 있는 모바일 비행 어드벤처 게임이다. 이 게임은 지난해 뇌정전기라는 명칭으로 중국과 대만에 서비스를 시작한 후 누적 다운로드 1억5000만을 돌파했다. 또 중국 애플 앱스토어 무료 다운로드와 매출 순위에서 한 달간 1위를 차지하는 등 출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야심찬 신작 전진배치 '글로벌·모바일' 정조준

신작 부진에 시달렸던 게임업계가 가나인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다. 게임업계가 앞다퉈 신작게임을 내세워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마냥 힘차게 뛰어오를 준비에 여념이 없다. 방향성은 모바일 사업 강화와 글로벌 시장 공략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궁극적 지향점에서는 하나로 합쳐진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게임업계의 트렌드는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의 시대적 흐름이다. 국내시장의 정체현상이 생기면서 글로벌 시장의 갈망은 더욱 커졌다. 게임업계의 이번 봄 신작이 기대되는 이유다. 각 게임사가 어떤 신작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양창균·조성준·박성재 기자 yangck@



네시삼십삼분



다양한 유닛 보유한 '이터널클래시' '전차' 투입 판세 뒤집기 짜릿

모바일게임사 네시삼십삼분(4:33)은 신작게임 '이터널클래시' 비공개 테스트(CBT)를 이달 말부터 5월 초 사이 돌입, 올 여름 내 출시한다.

이터널클래시는 지하세계의 드워프들이 언데드가 지배한 지상세계를 되찾는다는 설정의 간단한 디펜스 형태의 RPG 게임으로, 실시간 대전과 보스전을 지원한다.

게임은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채워지는 게이저를 소모해 원하는 영웅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맵 반대편에 존재하는 적의 본진을 먼저 부수는 쪽이 승리한다.

이 게임에는 무려 200여 종의 영웅이 등장하는데 공성전, 버프, 넉백 등 용도에 따라 총 7가지 클래스로 구분된다.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팀을 구성할 수 있고, 이터널클래시만의 다양한 장비와 강화, 각성 등을 전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차'는 간편한 조작만으로 전투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유닛으로 이터널클래시를 마지막까지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네시삼십삼분은 유저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2D 그래픽을 적용했고, 북극 신화를 배경으로 한 만큼 웅장한 오페스트라를 배경음악으로 깔았다. 안드로이드, iOS 버전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길드전과 공성전은 지금까지 모바일게임에서 찾아볼 수 없던 커다란 감동을 전할 것"이라며 "이터널클래시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출시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Hauri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로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제품구입문의: 02) 3676-1100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록 삭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 “한국 물티슈 땡호와” 깨끗한나라·모나리자 급등

**베스트&워스트**  
4월 13~17일

코스피지수가 한 주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며 2140선을 돌파했다. 지난 4년여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연일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셋째주(13~17일) 코스피지수는 전주말 대비 55.74p(2.7%) 오른 2143.50으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증가기준으로 214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11년 8월 1일(2172.31)이후 처음이다.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과 국내 금융시장의 저금리로 코스닥지수가 7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20.07포인트(3.65%) 오른 706.90로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증가 기준으로 700선을 넘은 것은 2008년 1월 10일 713.36을 기록한 이후 7년 3개월여 만이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면 이번 주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승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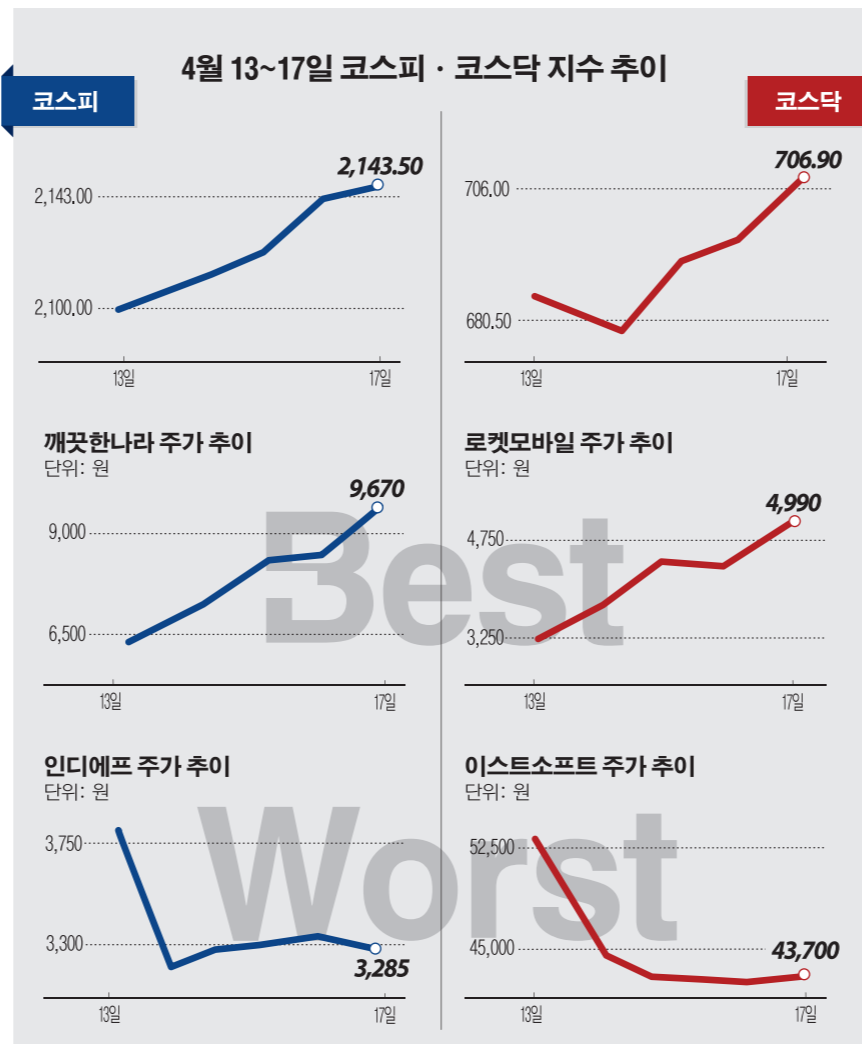
◇깨끗한나라, 중국 직구족 선호도 ↑... 주가 76.78%↑ = 20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깨끗한나라다. 지난 10일 종가 5270원에서 17일 종가 9670원으로 76.78% 상승했다. 깨끗한나라는 중국 직구족들이 한국 물티슈와 세제 등을 가장 선호한다는 소식이 3개월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소식이 깨끗한나라뿐 아니라 모나리자도 급등했다. 모나리자의 주가는 지난 한 주간 61.51% 상승했다. 천일고속은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 실명 전환과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액배당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다. 10일 종가 6만9100원에서 17일 종가 11만5000원으로 59.91% 상승했다. 천일고속 창업주인 박남수 명예회장은

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양사도 지난 한 주간 29.44% 상승했다. 심은주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올 1·4분기 삼양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2% 급증한 11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원당 가격 하락세에 힘입어 환율을 감안한 원당 매입액이 전년 대비 5.5%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원당 가격이 연초 대비 11.1% 하락해 원가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JW중외제약(27.48%), 사조산업(27.23%), JW홀딩스(24.5%), 대한유화(23.74%) 등이 지난주 큰 상승폭을 보였다. ◇상승세 보이던 인디에프 주가 조정 타임... 15.55%↓ =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은 인디에프다. 지난 10일 종가 3890원이었던 주가는 17일 3285원으로 15.55% 하락했다.

‘천일고속’ 유통주식수 줄며 품절주 등극 59.91%↑  
‘한익스프레스’ 역직구 시장 지지개에 32.13% 올라  
‘인디에프’ 지난주 급등 후 조정장세 15.55% 떨어져

차명주식 실명전환을 통해 98만2944주(68.77%)를 손자인 박도현 대표이사와 박주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증여를 통해 박도현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기존 6.02%에서 43.09%로, 박주현 부사장의 지분율은 4.4%에서 36.11%로 높아졌다. 차명주식 등장으로 시장에 대주주 지분이 크게 늘면서 천일고속은 순식간에 유통주식수가 줄며 품절주가 됐다. 또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고액 배당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성피혁 제조업체인 덕성의 경우에는 화장품 퍼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한 주간 41.13% 상승했다. 역직구 시장이 지지개를 넘어 물티슈로 꼽히는 한익스프레스도 강세를 보였다. 10일 종가 4만9800원에서 17일 종가 6만5800원으로 32.13% 상승했다. 원재료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올 1·4분기

코스피 지수가 랠리를 지속하며 섬유의 복 업종과 의약품 업종 등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인디에프의 주가는 잠시 조정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성그룹주인 신성이엔지는 지난 한 주간 12.63% 하락했다. 성안중 리스프 파문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이완구 총리와 관련된 이완구 테마주로 분류되며 신성에프에이(-9.73%)와 신성이엔지 등 신성그룹주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성그룹 주식은 이완구 회장이 이 총리와 같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이완구 테마주로 분류됐다. 봄을 맞아 백화점이 과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가운데 백화점주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도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 한 주간 10.06% 하락했다. 이 외에도 지에스인스트루(-11.18%), 성문전자(-10.10%), 조광페인트(-9.30%), KR모터스(-8.79%) 등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정유현 기자 yhssoo@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7일 시가 총액	1월 10일	1월 17일	주가등락률 (%)
깨끗한나라	236	5,470	9,670	76.78
모나리자	227	3,845	6,210	61.51
천일고속	158	69,100	110,500	59.91
덕성	82	3,720	5,250	41.13
한익스프레스	79	49,800	65,800	32.13
삼양사	715	90,000	116,500	29.44
JW중외제약	370	17,650	22,500	27.48
사조산업	570	89,600	114,000	27.23
JW홀딩스	229	3,245	4,040	24.50
대한유화	1,034	128,500	159,000	23.74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7일 시가 총액	1월 10일	1월 17일	주가등락률 (%)
로켓모바일	82	2,905	4,990	71.77
지어소프트	21	1,160	1,730	49.14
원익큐브	144	3,600	5,240	45.56
비에스이	103	5,500	7,780	41.45
하이벨	138	1,390	1,960	41.01
웰크론	93	2,810	3,935	40.04
뉴프라이드	49	1,130	1,560	38.05
메디포스트	736	74,200	102,100	37.60
보령메디앙스	237	16,150	21,950	35.91
위노바	128	1,700	2,260	32.94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17일 시가 총액	1월 10일	1월 17일	주가등락률 (%)
한국주철관	409	19,600	17,950	-8.42
KR모터스	167	1,535	1,400	-8.79
조광페인트	206	17,750	16,100	-9.30
신성이엔지	36	2,260	2,040	-9.73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386	71,600	64,400	-10.06
성문전자	28	2,030	1,825	-10.10
KEC	85	1,615	1,435	-11.15
지에스인스트루	33	3,130	2,780	-11.18
신성이엔지	29	1,900	1,660	-12.63
인디에프	194	3,890	3,285	-15.55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17일 시가 총액	1월 10일	1월 17일	주가등락률 (%)
원익IPS	813	11,350	10,100	-11.01
한빛소프트	271	13,150	11,700	-11.03
특수건설	48	5,410	4,800	-11.28
메타바이오메드	95	5,660	5,000	-11.66
우성아이비	43	4,140	3,640	-12.08
파티게임즈	198	49,150	43,200	-12.11
세원물산	82	11,450	9,780	-14.59
소프트맥스	98	18,850	15,850	-15.92
테스나	132	23,000	19,300	-16.09
이스트소프트	216	53,500	43,700	-18.32

◇로켓모바일, 주가 급등 사유 없지 만... 71.77%↑ = 20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로켓모바일이다. 로켓모바일은 지난 10일 종가 2905원에서 17일 종가 4990원으로 71.77% 급등했다. 로켓모바일은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업체다. 최대주주인 라이브플렉스는 지난해 플레이텍(현 로켓모바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 52.2%(855만 3000주)를 130억원에 취득했다. 라이브플렉스는 레저용 텐트제품 제조업체에서 출발해 온라인·모바일 게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로켓모바일은 게임 사업 진출설로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로켓모바일은 주가 급등 사유가 없다고 공시했다. 주가 상승률 2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이 외에도 뉴프라이드(38.05%), 메디포스트(37.60%), 보령메디앙스(35.91%), 위노바(31.94%) 등이 지난주 큰 상승폭을 보였다. ◇힘빠진 게임주 = 이스트소프트는 지난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10일 종가 5만3500원이었던 주가는 17일 종가 4만3700원으로 18.31% 하락했다.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플레이텍(현 로켓모바일)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방식으로 지분 52.2%(855만 3000주)를 130억원에 취득했다. 라이브플렉스는 레저용 텐트제품 제조업체에서 출발해 온라인·모바일 게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로켓모바일은 게임 사업 진출설로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로켓모바일은 주가 급등 사유가 없다고 공시했다. 주가 상승률 2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로켓모바일’ 근거 없는 게임사업 진출설에 71.77%↑  
‘지어소프트’ 49.14% 묻지마 상승에 투자경고 예고  
‘이스트소프트’ ‘소프트맥스’ ‘파티게임즈’ 게임주 휘청

지어소프트다. 지난 10일 종가 1160원에서 17일 종가 1730원으로 49.14% 상승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주가가 상승하자 한국거래소는 지어소프트에 대해 투자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원익큐브는 자회사 씨엠에스랩이 운영 중인 화장품 브랜드 셀퓨전씨의 중국시장 확대 기대감에 지난 9일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며 지난 한주간 45.56% 상승했다. 비에스이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타법인 지분 취득 소식이 41.45% 올랐다. 비에스이는 최대주주 박진수 회장이 보유주식 528만 9000주를 330억원에 이화준 HNT일렉트로닉스 대표에게 매각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변경된 최대주주의 예정 보유 지분율은 40%이며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웰크론은 연경중속회사 웰크론웬스케어의 중국 진출 확대 기대감에 한 주간 주가가 40.04% 상승했다. 지난 10일 종가 2810원에서 17일 3935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파티게임즈는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한 주간 12.11% 하락했다. 지난 1월 ‘아이리브파스타’의 중국 진출 이슈로 급등한 이후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다. 둘째 주 주가가 급등하며 주목을 받았던 메타바이오메드는 지난 한 주간 11.66% 하락했다. 지난 15일 신주인수권 행사를 결정하며 주가는 3.36% 하락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발행주식 총수의 1.83%에 해당하는 35만4987주에 대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 신주인수권 행사 후 실적 향상을 위한 잠재매물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에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테스나(-16.09%), 세원물산(-14.59%), 우성아이비(-12.08%), 특수건설(-11.28%), 한빛소프트(-11.03%), 원익IPS(-11.01%) 등이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정유현 기자 yhssoo@

## 임도적 1위

# 반기문 리더십의 실체를 증명하다!

세계를 설득해낸 반전 드라마! 반기문의 유엔 7년을 밀착 취재한 단 하나의 기록

2007.1. 6대 유엔 사무총장 취임  
2007.9. 기후대변 중요 의제 설정  
2009.6. 세계 언론 집중 공격 연일 심해준 대응  
2009.12.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국적 합의  
2010.12. '아랍의 봄' 직후 비호 독재자들의 연세여 출몰 강행한 리더십 증명  
2011.4. 코프투라이브 전쟁 강행한 리더십 증명  
2011.6. 유엔군 파견장사 사무총장 연임 확정  
2011.7. 유엔 총재 임명 승인으로 남수단 독립  
2012.1. '아랍의 봄' 대응에 전 세계 언론의 극한 무력충돌 증명  
2012.11. 기후대변, 시골인보 글로벌 평화상 후보 초선

## 반기문, 나는 일하는 사무총장입니다

중앙일보 부국장·국제선임기자 남정호 지음 | 396쪽 | 값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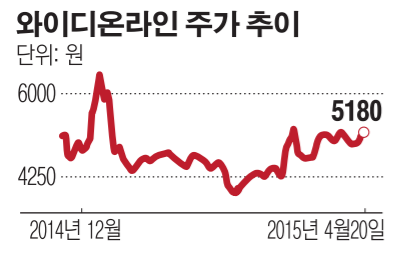
김영문  
TEL: 031)955-3200 www.gimyoung.com  
책은 사랑에 읽는다.



# 와이디온라인, 밖으론 지분 매각 안으론 신작 개발



### 최대주주 시니안유한회사, 다수 회사와 매각 논의 내달 중 '갓오브하이스쿨' 모바일 게임 출시 준비 올 신작 4종 예정... 中·日 공격적 시장 확대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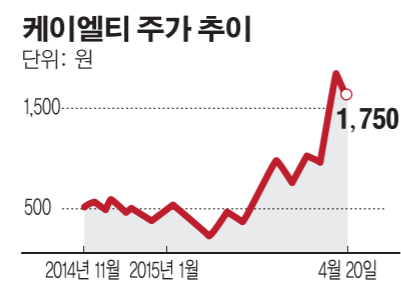


와이디온라인 최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내달 모바일 게임 신작을 출시한다. 20일 와이디온라인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시니안유한회사에서 여러 방법으로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과 별개로 일본 자회사를 현지 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곳에 매각하는 한편 내달 중으로 '갓오브하이스쿨'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와이디온라인 최대주주 시니안유한회사는

는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지만 다수의 회사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과 별개로 와이디온라인은 모바일 게임 강화와 일본시장 확대에 나선다. 게임 개발 1세대인 와이디온라인은 웹툰, 한빛소프트, 네오아레나 등에 비해서 다소 뒤늦게 모바일게임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내달 중으로 중국과 일본 시장을 겨냥한 모바일 웹툰 게임 '갓오브하이스쿨'을 시작으로 올해 4종의 신작 게임을 출시하며 모바일 게임 사업 강화에 나선다. 특히 와이디온라인은 '갓오브하이스쿨'에 기대가 크다. '갓오브하이스쿨' CBT에서 사전 신청자 5만명 돌파에 이어 실제 참가자 3만명 이상 및 재방문을 70% 이상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테스트를 마쳤다. 이밖에도 3종의 모바일 신작도 모두 자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와이디온라인 관계자는 "지난 2년동안 경험을 쌓고 운영 개발 노하우를 쌓아서 이번에 모바일 게임 '갓오브하이스쿨'을 출시하는 것"이라며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디온라인은 공격적인 일본 시장 확대와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해 일본 계열사 매각에 나섰다. 설경진 기자 skj78@

## 케이엘티, 창조경제 기업과 손잡고 사업 탈바꿈

### 조만간 '아이팩토리' 사명 변경 아이카이스트 상품 전문 생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기업 케이엘티가 창조경제 대표기업 아이카이스트 제품 생산으로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케이엘티는 20일 "아이카이스트 사의 2015년 국내외향 수요처와 협약 및 계획된 터치테이블 물량 등에 대한 생산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카이스트는 카이스트(KAIST)가 출자한 첫 번째 자회사로 대표적인 창조경제 관련 유망 중소기업이다. 아이카이스트는 정전용량 대형 멀티 터치패널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65

인치 정전용량 터치 스크린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정전용량 터치 스크린, 전자 칩판 등의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교육솔루션 '스마트스쿨'은 세종시 전 학교에 적용됐으며 중국, 몽골,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세계 각국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5대 전자업체 중 하나인 TCL과 손잡고 5년간 약 2조5000억원 규

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객들이 고가의 스마트스쿨 솔루션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 KT캐피탈 등 대기업과 창조금융 상품을 개발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케이엘티는 이번 계약으로 우리은행, 중국 TCL 등 올해 공급이 예정된 아이카이스트의 첨단 신기술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대형 터치테이블, 터치 화이트보드, 멀티터치 화이트보드 등 터치 관련 상품이 될 예정이다. 케이엘티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아이카이스트 상품 생산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아이카이스트와 다양한 사업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조만간 사명을 '아이팩토리'로 변경하고 아이카이스트 상품 전문 생산기업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 창립 14주년 크루셜텍 "BTP로 세계시장 석권할 것"

### 화웨이·HTC·후지쯔 등 공급 지속적 R&D 투자로 1위 도약

크루셜텍은 지난 17일 창립 14주년을 맞아 판교 본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세계 시장 제패를 향한 새로운 도약 의지를 다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크루셜텍 및 관계사 임직원, 우수 협력사 대표 등 약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회사의 지난 성장 과정을 되새기고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 및 우수 협력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함께 진행됐다. 크루셜텍은 지난 2001년 벤처기업으로 창립한 이래 독자적인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OTP(모바일 기기용 마우스)를 세계 최초 개발 및 상용화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2011년 2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룬 코스닥 대표 기업이다. 현재는 모바일 생체인증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해 새로운 주력상품인 BTP(모바일 지문인식 솔루션)을 화웨이, HTC, 후지쯔, Gionee, BBK, 팬택 등 다양한 글로벌 핸드셋 업체에 공급하며 또 한 번의 세계 시장 석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BTP 탑재 스마트폰을 출시한 HTC의 고위 관계자는 "크루셜텍은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우수한 사업 파트너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크루셜텍 안건준 대표는 "BTP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와 특허 경쟁력 강화를 통해 모바일 생체인증 시장의 명실상부한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또 현재 진행 중인 신규 고객사들과의 스마트폰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 '코이즈 하반기 배리어 필름 재도약' 보도에 22% 급등

4월 셋째주 분지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스타크프리미엄(http://www.etoday.co.kr/stockpremium)에는 총 12건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 가운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사는 지난 13일 작성된 '조재형 코이즈 대표 "올 하반기 배리어 필름으로 재도약 나선다"'는 기사였다. 이 기사가 보도된 당일 주가는 -0.51% 하락 약보합을 보였으나 이후 호재로 작용하며 주간 상승률 22.08%를 기록했다. 스타크프리미엄(SP)은 코이즈가 올해 하반기 배리어필름의 제품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도광판 분야에서의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재형 코이즈 대표의사는 "한 발 앞선 출발 탓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올해 그동안의 투자에 대한 성과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14일 보도된 '이진우 하이로닉 대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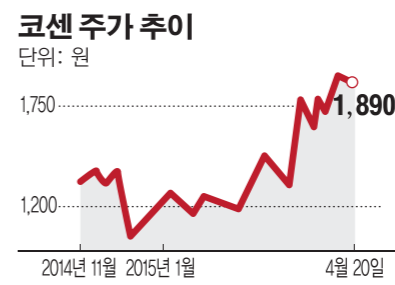
SP동향 종목동보기사 리스트 (증가기준)

기사명	당일 주가 등락률	주간 주가 등락률
아이마켓코리아, 갤럭시S6 출시 수혜주 부각...설계 급등 전망	0.58%	4.05%
조재형 코이즈 대표 "올 하반기 배리어 필름으로 재도약 나선다"	-0.51%	22.08%
동우 관계사, 10조 매출 중 BGX그룹과 수출 협의...검역 진행 중	4.81%	5.44%
대진디앤피, 삼성 프린터 사업 확대 위해 전략	12.50%	7.71%
이진우 하이로닉 대표 "해외시장 공략 강화" MS 1위 '홍콩' 기반으로 주력 진출	-1.36%	8.92%
현대약품, 환인제약 투자로 300% 이상 수익	0.14%	5.83%
LG생활건강, 중국서 화장품 동종...맥퀀리 110만원 제시	6.02%	6.02%
코리아나, 오르시아 엠블 중서 대박...500% 매출 성장 전망	3.56%	3.56%
대원화성, 베트남서 정제사업 확대한다...이르면 이번달 라이선스 취득	0%	0%

외시장 공략 강화"...MS 1위 '홍콩' 기반으로 주력 진출"이란 기사도 보도 당일에는 -1.36%에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주간 상승률은 8.92%를 기록했다. 스타크프리미엄에 따르면 하이로닉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며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하이로닉은 약 60여개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총매출액의 46%달하는 105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하이로닉은 현재 시장점유율(M/S)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홍콩시장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진우 대표는 "double'로 하이로닉의 미용기기 제품들이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홍콩의 경우 중국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경진 기자 skj78@

## 코센KH, 576억 태양광 PF 체결 "상반기중 매출 발생할 것"

### 고흥군 '녹색에너지 프로젝트' 20년 동안 연 100억 매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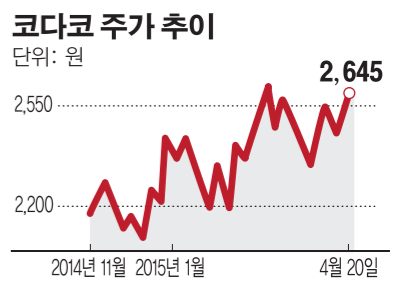
광관 및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코센의 태양광발전 관계사인 코센KH가 576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PF는 25MWh 규모로 진행되는 고흥군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금융으로, 고흥군이 추진하는 '고흥 녹색에너지 505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코센KH는 이번 PF로 고흥군 일대에 25MWh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다. 이 발전소는 상반기 중 완공 예정이며 최소 20년 이상 연간 100억원 가량의 매년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코센KH는 전기 판매를 통한 매출 이익은 물론 고흥군의 에너지 자립 및 세수 증대와 농업기반 시설 확보 등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윈윈(Win-Win) 사업을 위해 농기계 보관 창고 등 농업지원시설을 건설해 기부채납 예정이다. 코센KH에 이어 코센은 고흥군에

풍력발전소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이번 PF를 담당할 발전PF전문가 SK증권 이상득 이사는 "최근 유가 급락으로 신재생에너지 업계 전체가 커다란 위기에 빠졌음에도 상관없이 PF 사업 참여자간의 합리적 리스크 분담으로 금융을 완성했다"며 "태양광발전소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고흥군 풍력발전소도 적극 협력해 또다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세원 코센 대표는 "지난달 17일 착공한 발전소 건립 공사가 이번 PF 성공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상반기중 전기 판매 매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동아에스티 '시벡스트로' 신약 허가

### 슈퍼박테리아 타깃 항생제 美 FDA 허가 후 국내 승인

구에 대한 지원을 받아 2006년 전임상시험을 완료했다. 이후 2007년 1월 미국 트리어드 테라퓨틱스(현재 MSD)에 라이선스 아웃 했으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FDA 승인을 받아 시벡스트로는 미국 내 출시됐다. 박찬일 동아에스티 사장은 "자사신약 4호이자 국산 신약 24호인 시벡스트로가 드디어 국내에 허가 승인을 받게 됐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슈퍼박테리아의 위협 속에서 시벡스트로의 우수한 내약성·1일 1회 편리한 투약·6일의 짧은 치료 일수의 특징이 국내 환자들에게도 편의성과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국내 허가 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했는데, 이번에는 임상시험 진입단계부터 해외관관수출(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미국 등 글로벌시장에서 먼저 허가를 받았다"며 "이번에 허가한 신약은 기존 항생제 내성균(MRSA) 피부감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우리 회사의 사회 공헌은 신약개발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1977년 연구소 설립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와 축적된 기술로 2002년 자사 신약 1호 스티렌·2005년 자사신약 2호 자이데나·2011년 자사신약 3호 모티라톤 등을 출시한 바 있다. 강인호 기자 kangih@



### 코다코, 美 GHSP에 398억 규모 부품공급

자동차부품용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기업인 코다코가 미국 자동차 부품회사인 GHSP와 총 398억 규모의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1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다코는 이번 계약을 통해 GHSP에 미국 포드의 라사르트에 장착되는 펌프 관련 부품을 공급하게 된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다. 인귀승 코다코 회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자동차 1차 벤더들은 조립과 모듈사업에 주력하고 다이캐스팅 및 기계공과 같은 생산부분은 아웃소싱 하고 있다"며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생산업체를 통해 이러한 아웃소싱 물량들에 대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당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수주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신규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다코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사업 외에도 기계가공 주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말 안성 4공단에 클린 가공공장을 준공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유아용 화장품 출시 코리아나, 중국 가나

미세먼지용 발효녹두 '순한베베' 코리아나가 자사 최초로 유아용 화장품을 출시했다. 코리아나는 이 제품이 회사와 미세먼지용 화장품인 만큼 중국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코리아나 관계자는 "자연주의 브랜드 발효녹두에서 코리아나만의 특허 성분인 태지유사성분을 함유한 순한베베 라인을 출시했다"며 "중국 유통망에도 직접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프랑스에서 들여와 판매를 했지만 이번에는 최초로 직접 제조해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품은 코리아나의 자연주의 브랜드 발효녹두에서 코리아나만의 특허 성분인 태지유사성분을 함유한 순한베베 라인이다. 태지는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천연 보호크림이다. 발효녹두 순한베베 라인은 자연크림과 유사하게 조성된 태지유사성분을 함유하여 피부 보습, 장벽 강화, 항산화 효과를 예민한 아기피부에 전달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당신이 꿈꾸던 상쾌한 봄을 돌려드립니다

황사, 미세먼지로 잃어버린 맑고 깨끗한 봄  
삼성전자는 그 봄을 당신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 삼성전자 S' 프러포즈 우리 집, 꿈꾸던 봄날의 프러포즈 (행사기간: 2015.4.10~ 5.10)

### 1. 상쾌한 바람이 가득한 봄

- 2015 스마트에어컨 Q9000 air 3.0 제품 구매 시 공기청정기 증정
- Q9000 김연아 스페셜 구매 시 공기청정기 증정 등 4가지 혜택 제공
- Q9000 김연아 스페셜과 액티브워시를 함께 구매 시 공기청정기 및 모션싱크 증정

### 2. 기분 좋은 선물이 가득한 봄

- 커브드 UHD TV (138cm)와 액티브워시를 함께 구매 시 공기청정기 증정
- 셰프 컬렉션+액티브워시 또는 셰프 컬렉션+버블샷 2015 구매 시 모션싱크 증정
- 버블샷 2015 구매 시 모션싱크 증정

\*본 행사는 행사 매장 내 행사 모델 구매 시에 한하며, 혜택 부여 방법은 매장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행사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amsung.com/sec/)  
 \*본 행사는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